

2024년 도  
국 정 감 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피감사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정책방송원|한국문화관광  
연구원|한국언론진흥재단|국제방송교류재단|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  
관광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주)|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언론중재위원회

일 시 2024년10월15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정책방송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하여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인 11개 기관들은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서비스, 문화예술과 전통예술 인재 양성, 정부 정책 홍보 및 정부 영상물 보존관리,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언론 진흥과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중독의 급증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지역언론 활성화 및 정부광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회복 및 지역관광 활성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관증인들의 증인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은 총 스무 분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10월 7일 추가적으로 채택한 기관증인 중 조대익 KTV PD는 모친상 및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4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합감사 등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심오택

사무처장 이진식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대진

사무국장 권수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이은우

방송기획관 이성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세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경영본부장 유병철

미디어본부장 남정호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김태정

경영본부장 김중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준희  
사무처장 김일희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리 서영충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 김영산  
경영본부장 김현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신미경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사무총장 김윤정

○위원장 전재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 대상 기관들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각 의원실에 전달되었고 감사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고 나머지 기관들의 업무보고는 위원님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심오택입니다.

오늘 2024년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7년 9월에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로서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행산업 영업장 및 매출액 총량 조정,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사행산업 현장 지도감독, 불법도박 감시와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민간위촉위원과 당연직 정부위원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공공기관으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있습니다.

위원회 예산은 총 619억 원으로 위원회 운영경비 52억 원, 예방치유 사업비 244억 원과 기금예치금 32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출총량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총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행산업 전체 매출총량은 12조 원이 되겠습니다. 매출총량을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해서 외국인 카지노를 매출총량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감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를 시행해서 매출총량 설정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산정에 반영하는 등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건전화 평가편람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핵심 관리과제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불법도박 대응과 청소년 보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조정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사행산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과 7쪽이 되겠습니다.

사행산업 정책포럼 개최, 국내외 사행산업 동향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행산업 대응의 적시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요 시기별, 맞춤형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해서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8쪽과 9쪽입니다.

사행산업 사업자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온라인발매제와 전자카드제를 실명구매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구매상한제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행산업의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영업장별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유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유병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주기를 매년 실시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대학, 군부대와의 협력해서 젊은 층의 도박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도박 문제는 조기 개입이 중요하므로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치유와 재활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박예방주간을 신규 운영하였고 연령별 맞춤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소년 도박 문제 중점 치유센터 지정·운영 등 치유서비스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수사기관, 방심위,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합동대응을 통해서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불법온라인도박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고포상금 상향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불법온라인도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도박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와 불법도박사이트 신속 차단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위원님들의 고견 또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입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문체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출석한 저희 재단 본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철 경영본부장님입니다.

남정호 미디어본부장님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4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는 자료로 대체하고 10쪽 주요 사업현황 및 성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단은 언론진흥기금사업을 통해 뉴스미디어 디지털 혁신을 지원합니다. 심층 기획취재 지원 사업과 뉴스 콘텐츠 공용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언론이 고품질 뉴스콘텐츠를 생산하고 IT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둘째, 뉴스정보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3개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수송노선 운영 등의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한계지역에 신문이 효율적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셋째, 저널리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미디어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사업과 대학 뉴스활용 강좌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늘봄학교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사 및 광고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언론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자율심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넷째, 언론인의 취재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장기 심층연수를 기존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째, 미디어교육 수업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강사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연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를 개발해 운영 중으로 내년에는 국내 최초로 미디어교육 분야 국가자격으로 전환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쪽 하단입니다.

여섯째, 미디어산업 진흥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0년 전통의 월간 ‘신문과방송’을 발행하고 국가승인통계인 신문잡지산업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일곱째, 정부광고법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와 정부광고 진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광고 수탁 업무를 통해 23년 기준으로 약 1조 3378억 원의 광고료를 집행하고 1095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수수료는 정부광고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언론진흥기금에 출연해 언론 지원과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17쪽의 내용과 같이 지역 및 중소 언론사의 경영개선 지원 등을 위한 공익광고 집행 등 정부광고 진흥 사업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재단은 뉴스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서 뉴스저작권사용료를 징수·분배합니다. 재단은 언론계와 협의를 거쳐 이번 달부터 AI 학습용 뉴스데이터 상품을 출시하여 AI 산업계와 언론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코자 하니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현안 관련 심층 기획취재와 지역신문 경영여건 개선 사업, 인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적사항 등은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향후 사업과 기관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리 나오셔서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서영충입니다.

오늘 2024년도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1962년 국제관광공사법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국제관광 진흥, 국내관광 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 연구·개발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이 일상화된 시대에 관광산업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관광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공사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주요 사업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방한 관광시장 확대 및 다각화, 지속가능한 국내관광 활성화, 관광산업 혁신성장 견인, 고품질 관광 콘텐츠 및 서비스 확대라는 4대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쪽 방한 관광시장 확대 및 다각화입니다.

공사는 인바운드 수요 가속화를 위해 한국방문의 해, 주요시장 관광로드쇼 등 대형 이벤트와 연계한 유치 마케팅을 확대, 시장별·테마별 타깃 마케팅 강화, MICE·의료·웰니스 관광 등 고부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며 27년 외래객 3000만 명 유치를 향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속가능한 국내관광 활성화입니다.

범국민적 국내관광 분위기 조성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여행 가는 달 캠페인,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간관광, 레저관광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리는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무장애 열린관광 환경 조성,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5쪽 관광산업 혁신성장 견인입니다.

공사는 관광의 모든 단계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요 교통수단 외국어 예약, 결제서비스 구축 등 안내·교통·쇼핑·숙박 등 관광 접점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스마트관광, 하이커 등을 통한 고객 경험 확장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기업의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 밀착 지원과 관광종사자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관광산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고품질 관광 콘텐츠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공사는 한국형 관광 콘텐츠 육성 및 브랜드 강화를 위해 해양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이종산업과의 융합과 시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 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데이터랩, 한국관광산업포털, 한국관광콘텐츠랩 등 관광 종합 플랫폼 기반의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확대 및 업계 간 협업·교류 활성화를 추진하여 더욱 효과적인 관광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공사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하여 한국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이정미 정책기획관, 신은향 예술정책관,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 김도형 소통정책관, 이정우 체육국장, 김정훈 관광정책국장,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질의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몇 분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주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했던 작년 10월 31일 있었던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건 관련해서 저희가 기관증인인 조대익 증인 그리고 일반증인 최재혁 증인에 대해서 오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요. 아무리 불출석사유서를 들여다봐도 불출석할 사유가 없습니다.

조대익 PD, 실무자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분의 진술이 그 당시 하종대 원장 그다음에 최재혁 방송기획관의 진술과 상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핵심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꼭 오셔야 되는데, 이분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건강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의사 소견서를 보면 ‘내시경 검사를 받고 나서 추적조사를 해 보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분이 지금 출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정감사의 기관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못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 오늘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최재혁 비서관도 이분 일정을 보니까 지난번 대통령 체코 순방 행사에 이분이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약 한 5일에 걸친 일정과 장거리 비행을 소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9월 30일 날 요통·방사통 이런 게 있다, 척추협착증 증세가 있다고 그래서 어제 입원을 예고하고 오늘 안 나오셨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또 이분이 일반증인이라고 하지만 핵심 증인일 수밖에 없고 지금 대통령비서실의 홍보기획비서관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줬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재혁 증인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김재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KTV 최재혁 전 방송기획관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청와대에서 김건희 여사를 위한 황제관람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이 모든 의혹의 핵심 기획자인 최재혁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이번 국감을 두고 맹탕국감이다 이렇게 반드시 지적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최재혁 전 방송기획관을 이 상임위장에 불러 세워서 우리 위원들이 그날의 진실을 확인하는 그런 충실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최재혁은 입원·물리치료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입원 중이던 어제 자에도 통화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등 현재 신체의 상태가 본 감사장에 직접 출두해서 증언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상태는 아닌 듯 보입니다. 따라서 증인 본인 의지에 따라 국감장에 와서 증언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이는바 참석할 수 없다는 소견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에 따라서 최재혁 씨를 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



록 동행명령 논의하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일단 한국관광공사 관련 요구 자료에 관한 건입니다.

5000억의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한국관광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너무 어수선했습니다. 김장실 사장이 퇴임한 게 올해 1월 12일인데 지금까지 차기 사장을 임명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려 언론에서는 김건희 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내정됐다는 내정설이 계속해서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나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9월 6일 면접심사 및 후보자 추천이 끝났고 9월 12일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종후보자를 추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명단 및 이력, 사장 임명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 일체 그리고 사장후보자 명단, 후보별 제출 서류 이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관광공사 국정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자료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외려 김건희 라인이라고 부각되고 대통령 부인의 의혹들이 증폭되는 그러한 일들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증폭시키려고 하는 의도 아닌가라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두 번째, 아리랑TV 사장과 관련해서 첫 번째, 아리랑TV 사장 임명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2022년 1월부터 24년 9월 용역사업 계약 목록, 사업명, 계약업체, 업체 대표자 일체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세 번째, 아리랑TV 김태정 사장의 이력서와 그 이력서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일절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도대체 어떻게 국감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 요청한 자료와 아리랑TV에 요청한 자료, 지금 즉시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보내 주기를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촉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일단 먼저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관광공사 사장님, 가능하겠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여러 위원님께서 같은 자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다만 각 의원실에 저희가 좀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아직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다소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협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사장님, 국회의 국정감사에 개인정보를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국회에서 위원회가 열리거나 국정감사가 열리게 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삭제하고 가리고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사유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가 양해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자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 판단하시기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리면 됩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그 부분뿐만 아니라 채용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혹시나 결과에 미칠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드렸던 거고요. 절차가 마무리되면 협조를 하겠다라는……

○위원장 전재수 그 부분은 오전에 국정감사가 진행될 때 관광공사 담당 분을 시켜서 양문석 의원실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리고 아리랑TV 관련해서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님, 자료제출 가능하겠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저희 재단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는…….

○위원장 전재수 예, 최대한 빨리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낸 최재혁, 조대익 증인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KTV 국악공연 황제관람과 관련해서 실질적 기획을 하고 실무를 한 사람들입니다, 위원장님.

두 사람이 국정감사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 자리에 불출석했습니다. 국민의 혈세 8600만 원으로 김건희 여사 단 한 사람을 위한 국악공연이 열렸고 우리는 이 공연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획하고 진행했는지 국민을 대표해서 묻고 따져야 될 사안들입니다.

조대익 PD는 지난달 모친상 이후 꾸준히 회사에 출근하고 있고, 최재혁 홍보비서관은 지난달 체코 순방에 동행하는 등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아프다는 핑계를 대는 것인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김건희 여사의 무엇을 숨겨 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불출석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국회증·감법 제6조에는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을 때는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인들이 낸 사유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만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위해서 오늘 최재혁 증인과 조대익 증인에 대해서 행정실이 원활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주질의 전 동행명령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적어도 여야 사이에 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증인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냥 채택된 것이 아니고 여야 사이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서 합의된 증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증인이 채택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주질의 순서입니다만 오늘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재수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전재수 아, 그렇습니까? 예.

○민형배 위원 언론진흥재단의 김효재 이사장님께서 지난 8월 저희 문체위 회의 때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 한국’ 발간을 하겠다, 10월 중에 발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언제 발간되는지 날짜를 좀 알려 주시라 그리고 발간이 안 된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국정감사에서 이사장이 직접 구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왔어요. 또 2024년 리포트에서 빠지는 내용이 있냐, 있다면 빠진 내용이 뭐냐 이 부분도 국정감사에서 이사장이 직접 구두로 답변하겠다…… 안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 누가 물어야 답변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런 태도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는 군사·외교·대북 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때문에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 장관이 5일 이내에 소명을 하지 않으면, 이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 안 하시면서 국감장에서 말로 하겠다…… 저는 이 태도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지원팀이라고 하는 언론진흥재단의 팀에서, 언론단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을 요청했는데 이 심사위원 명단을 또 제출 안 해 줘요. 공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할 근거나 규정이 있냐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이사장님과 그 재단의 이 국회에 대한 태도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KTV에서도 성비위자들이 승진을 한 것 때문에 관련 평가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제출을 안 해 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자꾸 회피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국회에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겠다 이것은 원활한 국정감사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제출된 자료를 보고서 우리 위원님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겠다 이것은 그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위원장님, 저는 그게 자료……

○**위원장 전재수** 이사장님,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계속해서 몇몇 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자료제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한 번 더 짚어 드리자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은 국회법, 국회중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사유로 제출할 수 없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중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외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기관장님들께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지난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악인 전체를 비하하는 그 모욕적인 발언으로 많은 국악인들이 분노하고 어제는 우리 국회를 직접 찾아오셔서 가지고 우리 국악인들의 그런 억울한 심정을 눈물로써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문체위 국감 전체회의 석상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또 우리 문체위는 정말 바른 말 쓰기 또 한글 진흥 이런 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와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 이런 데 대해서도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사 표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저도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우리 국악인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문체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보기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있는 뒤에 양문석 위원님께서 SNS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진정성 있는 그런 사과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날 기생 등과 관련된 언론 보도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는 사실도 저희 위원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하튼 과정과 절차가 어떻든 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이 나온 것은 위원장으로서 우리 전체 국악인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위원장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장 입장에서는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국악인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또는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좀 삼가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악인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상당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께서 본인의 발언의 취지와 다르게 국악인들께 그런 마음의 상처를 본의 아니게 드린 점에 대해서 아마 본인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으나 일단 SNS에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 것으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또 국악인들께서도 그런 진정성을 충분하게 받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김승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그 취지를 존중하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쨌든 KTV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3일 언론의 보도 이후에 KTV에 많은 자료 요구가 빚발쳤을 것이고 그래서 KTV의 여러 가지 인력의 부족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본 위원은 사실 자료를 단 한 건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무슨 복잡한 자료가 아니라 금방 제출할 수 있는, 청와대 촬영 관련해서 청와대 부속건물에서 촬영한 행사 관련 행사 일시, 행사명, 행사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 달라, 이것은 아무리 인력이 없어도 한두 시간이면 제출할 수 있는 준비된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하는 데 무려 7일간이나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본 의원실에서 독촉전화를, 연락을 두 번이나 하게 되고 세 번째 연락을 했을 때 겨우 자료를 받았는데 심지어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TV가 그 보도 이후에 인력 부족과 여러 가지 많이 고생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간단한 자료 하나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독촉을 해야 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이런 것이, 그 이전의 자료는 다 제출을 했더라도요. 그런데 그 건과 관련한 자료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는데도 이렇게 의원실이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러한 태도 이것이 있어서 되겠는가.

앞으로 종합감사를 두고도 또 자료 요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장님,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자료제출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실이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한국정책방송원 원장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배현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배현진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양문석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냥, 어제 국악인 선생님들께서도 어렵게 오시고 국회에 와서 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울고 한탄 하시는 모습이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제 저희가 염려했던 대로 대한민국의 무수한 국악인들께서 우리가 무료공연을 하면 기생이나, 권위가 높은 사람 앞에 나와서 공연을 하면 그것이 기생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들 볼 면목이 없다라고 얘기하실 때 저도 거듭해서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저는 양문석 위원께서 실제 더 진정성 있게 본인께서 직접 어떤 방식으로든 국악인들께 사과를 더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 문체위 위원장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시지만 대리사과의 형식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좀, 양문석 위원님의 글을 저도 찬찬히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비유를 했다고도 항변도 하셨는데 아예 입 밖에 언급하지 말아야 할 말이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의 인식의 수준이 그런 것조차 변별하지 못한다 하면 국민께서 이 국감장의 어느 누구를 믿고 본인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신뢰를 하실 것이며……

실은 그 자리에 저는 제 질의서에 집중하느라 양문석 위원님의 질의말씀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이 지랄들 하고 있어’라는 그 말씀은 제가 후에 영상을 보고 꽤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기생집, 상납 이런 발언으로 우리 국악인들도 상처받으셨다 하지만 ‘이 지랄들을 하고 있어’라는 것은 이 상임위장에 함께 앉아 있는 저희 전체 위원들과 그날 하루 종일 출석했던 모든 기관증인들을 함께 모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폐북에 글쓰기로 열심히 진정성을 담아 쓰셨다고 다시 믿겠지만 저희가 이것이 정쟁의 소재로 비화되지 않도록 더욱더 진정성 있는 본인의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사실은 위원장인 제가 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국악인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과를 드렸던 것이고, 대리사과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다만 당일 날 언론 보도 과정에 일부 오류가 좀 있었고 또 양문석 위원님의 SNS 사과글이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양문석 위원님, 꼭 발언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양문석 위원 예, 사과해야지요.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전승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원로들께서 기생, 기생집이라는 단어와 그 파생적 의미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며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나 이수자 등 무형문화재를 지키고 계승하며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헌신해 온 전승자들의 그 피나는 노력을 폄훼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외려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연주가 정당한 보상 없이 국가기관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바로잡고 싶어서 담당 기관인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누구를 대상으로 공연하는지도 알려 주지도 않고 심지어 공연료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취급하는 행태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저는 국가무형문화재를 기생 취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공연료도 지급하지 않고 홀대하는 국가유산청장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비판함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질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이런 단어와 표현 그리고 그 파생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이 너무 거칠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합니다.

저의 본의와 다르게 거칠고 다른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에 상처받은 분들께, 특히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양문석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주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서울 서초출의 신동욱 국회의원입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김영산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예.

○신동욱 위원 잠깐 앞으로 좀,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최근 들어서 경영평가 성적이 굉장히 낮아졌고 또 도덕적 해이 문제, 방만경영 문제, 감사원에서 지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지적들을 받으셨습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저희가 작년에 국감에서 세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2019년도에 잘못해서 100억 손해 본 것 그다음에 횡령 문제 그리고 청탁 금지법 문제 등등 감사를 받았고요. 감사는 지금 완료됐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을 하셨습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예.

○신동욱 위원 혹시 김효숙 씨라는 분 잘 아십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예?

○신동욱 위원 김효숙.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모릅니다.

○신동욱 위원 동은기프트라는 회사는 혹시 아십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이번에 국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신동욱 위원 어떤 회사로 파악하셨습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저희가 수익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 낙찰을 많이 받았다고 할까요.

○신동욱 위원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GKL하고 수익계약하는 업체가 국민관광상품권 만드는 회사가 273억 원, 엠지엠월드라는 머신기 납품하는 회사가 132억 원, 사무용품 9억 또 주차장 주차비 6억 그다음으로 많아요, 이 회사가.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봤더니 도무지 상호명으로 검색도 안 되고 이 회사가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화면 하나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회사의 주소지가 서울 금천구에 있는 25평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대표자 전화번호만 나와 있는데 도무지 이 회사하고 왜 이렇게, 특히 사장님 취임 이후에 수익계약으로

많은 거래를 했는지……

이게 경품 납품하는 회사잖아요? 명품 이런 것 하는 회사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예.

○신동욱 위원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워서……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저도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또 벤처기업 등등 거기서 구매대행, 수익계약을 하거나 낙찰을 받으면 경영평가에서 점수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동욱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 이 여성기업의 실체가 없어요. 적어도 공기업과 거래하는 데라면 하다못해 무슨 오피스텔이라도 빌려서 사업을 하는 업체여야지. 가정집이잖아요, 가정집에 사장 이름만 있는 이런 기업하고 거래 액수로 보면 5위의 거래를 했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납득 가지 않는 것 한번 보시지요.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이 회사하고 작년에 아이폰 10대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지금—글씨가 위에는 좀 작습니다만—아이폰을 판매하는 공식 홈페이지 가격이 하나에 1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동은기프트라는 회사의 견적서를 보면 180만 2000원의 견적서를 냈어요.

공식 홈페이지보다 더 비싸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단체로 구매하면 얼마라도 더 싸게 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특히 공기업이라면 소위 구매자 파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업체의 견적이 공식 판매가보다 더 비쌀 수가 있습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제조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게 있고 구매대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구매대행을 하는 업체인데……

○신동욱 위원 아니요, 이 업체를 두둔하실 게 아니라 직원들이 구매를 하실 때…… 우리 집에서 뭘 구매해도 인터넷에서 얼마 하는지는 확인을 해 보잖아요. 그러면 확인 안 하고 그냥 삽니까, 이런 물품 살 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동욱 위원 아니요, 그것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좀 싸야지요.

두 번째, 하나 좀 보시지요, 두 번째 화면이요.

명품들 많이 여기서 구매하셨는데 뭐 디올, 루이비통 좋습니다. 경품으로 주시기 위해서 구매하신 거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예.

○신동욱 위원 그런데 공식홈페이지 가격, 저것은 제일 비싼 겁니다. 공식홈페이지 가격이 12개 품목에 4249만 원인데 이 회사에서 납품한 게 4500만 원이에요.

다음 화면 좀 보여 드릴게요.

2023년 4월 18일 내부 사업계획서 보면요, 위에 죽 나오지요. 254만 원, 뭐 이백 얼마 나오지요. 오른쪽에 4월 24일, 18일 내부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금액과 오른쪽의 이 회사가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똑같습니다. 어떻게 견적서하고 내부 사업계획서하고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저 회사로 나가서, 나중에 보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더 비싸게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화면 좀 보시지요.

마찬가지로 2023년 6월 26일 내부 사업계획서를 보면 470만 원, 470만 원, 410만 원 죽 나오지요. 6월 26일 날 내부 사업계획서에 적혀 있는 저 금액이 6월 27일 하루 뒤에 동은기프트라는 회사가 제출한 견적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카피한 그대로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일견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동욱 위원 일견 타당한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제 주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왜 더 비싸게 샀냐, 두 번째 내부 사업계획서하고 저 회사가 제시한 견적서, 견적서는 우리가 얼마에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금액이 나오냐고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조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게 있고 구매대행업체를 통해서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대행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성기업 벤처기업 장애인기업을 통해서 하면 저희 경영평가, 중소기업 살리기에서 좀 올라가거든요.

○신동욱 위원 이 기업은요 할당량을 넘어서입니다. 할당량을 넘어서면, 할당량까지 채우시고 그다음은 견적서 받아서 더 싼 곳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이—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아파트에 주소지가 있는 곳이니까—사장님 취임 이후에 거래가 집중된 회사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거래가 너무 많아요. 그냥 그분 한 분입니다, 김효숙 씨라는 분. 이분이 도대체 사장님하고 어떤 관계시냐고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전혀 관계없고요.

○신동욱 위원 그러면 사장님, 이렇게 큰 금액의 물품을 사시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데서 사는, 특히 여성기업 할당이라면……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동욱 위원 잠깐만요. 여성기업 할당이라면, 더구나 어떤 여성기업에서 물건을 사는 건지 당연히 사장님이 확인하셔야지 전혀 모르겠다고 그러시면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수억 원대의 물품을 샀습니다, 이 회사에서.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동은기프트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시작한 게 아니라 2020년부터 계속 거래를 해 왔고요.

○신동욱 위원 아니, 거래 액수가 사장님 취임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났다고요. 지금 보시잖아요, 2023년, 2024년.

또 보여 드릴까요? 다음 거 하나 더 보여 주세요.

지금 이런, 기본적으로 무슨 한우세트인가요? 한우세트 60세트를 사셨어요. 한 세트에 52만 9000원, 내부 사업계획서, 2023년 작년입니다. 아마 추석 선물 주시려고 한 것 같은데 제출 견적서가 끝자리까지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과거의 것 다 빼고요. 추석 선물 살 때 얼마짜리 사는지 어디서 사는지 이것 확인 안 합니까, 사장님 이름으로 선물 나가는 것일 텐데?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손님에게 가는 마케팅 선물은 제 이름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요, 어쨌든 사장님이…… 저 정도 52만 원짜리 한우세트 60세트를 구입하는데 사장님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금액이 똑같습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하여튼 제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관리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이번 국감 준비하시면서 이 회사의 존재를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누구, 기획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아니, 기획실장은 없고요. 제가 확인을 이번에 해 봤더니 조달청의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확인만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홈페이지도 조금 부실하고 사업장 주소도 형편없고, 그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나……

○**신동욱 위원** 제가 지적한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구입했는데, 아까 수의계약은 아니고 저희가 100만 원만 넘으면 입찰의 형태를 떠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혼자 동은기프트랑 바로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라 3개 업체 정도가 입찰을 해서 최저가 낙찰을……

○**신동욱 위원** GKL의 방만경영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걸 도덕적 해이가 심해도 보통 심한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례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례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 많은데, 구매 품목도 그렇고 이걸 누구한테 주었는지, 많지만 그러나 적어도 어떤 가격에 샀는지 그 업체가 납품할 자격이 있는 업체인지 이것 정도는, 사장님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 감사든 수사든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명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파악했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따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문체위원으로서 특별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접하면서 참 특별한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이 수상을 계기로 해서 아마 온 국민이 그런 것을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 강국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적 품격과 소양이 높은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다 하실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은 좀 부족하지만 두 가지 생각을 해 보는데 하나는 이 수상을 정말 아주 차분하면서도, 차분한 축하와 자부심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말 우

후죽순처럼 무슨 기념사업을 하네, 기념관을 짓고 하는 이러한 접근보다는 정말 이번 기회가 품격이 높은 인문학적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차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이것 관련해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이 그러한 출발을 만드는 시작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글썽, 모르겠습니다. 제 부족한 생각이 꼭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곳에서 우후죽순처럼 나올 수 있는 혹은 이미 거론되기 시작한 각종 기념사업의 유치나 전개나 이런 것들이 좀 차별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강 작가에게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했던 그러한 잘못된 과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국정감사 중에 수상 소식을 접하면서 저희가 다 박수로 축하를 했고 그다음 날이 마침 우리 국정감사 일정 중 현장시찰 중이었는데 현장시찰 중임에도 저는 문체부가 언제 빨리 축하 메시지를 낼까라고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4시가 넘어서까지 축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비판을 하려고 페이스북 문구를 쓰고 있는데 4시 반쯤에 보도자료가 나오더군요. 이례적으로 늦은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봤어요. 왜 문체부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늦은 축하 메시지를 낼까. 물론 축전을 보내려고 했는데 축전을 수령할 어떤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과 공식적인 보도자료는 또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한강 작가에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오욕을 안겼던 문체부의 행위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차마 정말 마음을 다 담은 축하를 보내기가 면구스러워서 고민하다 늦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개인적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시 반쯤에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메시지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굉장히 건조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와 관련한 문체부의 보도자료와 그다음에 올해 3월 21일에 있었던, 김혜순 작가가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는데 그때 문체부가 냈던 보도자료 내용을 챗GPT에게 어떻게 평가하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놀랍게도, 제가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챗GPT가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문체부는 주로 문체부의 정책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한국 문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도자료에 대한 챗GPT 평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월 21일에 있었던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에 대한 보도자료에 대한 챗GPT 평가는 이거였습니다,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활동을 칭송하며 작가 개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문체부의 정책보다 작가 개인의 업적과 영향력을 더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강 작가의 보도자료는 문체부의 업적과 정책적 관점에서 쓰여졌고 김혜순 작가의 보도자료는 작가 개인의 성과와 문학적 공헌을 기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체부가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을 자축하는 방식과 김혜순 작가의 성과를 더욱 개인적으로 격려하는 방식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품격 높은 인문학적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데 우리가 다 동의했는데 이러한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문체부가 주무부처로서 정말 온 국민이 너무나 놀랄 만큼, 너무 놀라움이 커서 기쁨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런 정도의 소식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그렇게 늦게 내놓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도 굉장히 문체부의 자화자찬식 업적 중심으로 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체위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제가 종합국감 때 다시 한번 문체부장관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출판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 특별한 감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그 감회 한 말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느낌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질문하신 그 부분들은 장관께서 적절하게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라고 지칭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 안 될 일이고 저희 기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 대신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다시 나와 주십시오.

지난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의장에서도 정상 연설 때를 제외하고는 박수를 치지 않는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 속보가 전해지자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과 함께 모두 기뻐하면서 박수를 쳤지요.

그런데 수상의 기쁨과 함께 한강 작가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도 다시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원장, 이러한 보도 보셨습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예, 보도 봤습니다.

○**김재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통상 문체부 추천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교양학술 쪽으로 세종도서 보급 사업, 문학 쪽으로 문학나눔 사업, 이렇게 세종도서 문학나눔도서 선정이 현재 진흥원 소관 업무인데요. 세종도서 온라인시스템에 올라온 8549개 추천도서에 국내문학상 황순원문학상 수상 작품집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말고는 한강 작가 작품이 한 개도 없습니다.

원장, 국민 대다수가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책이 이제라도 추천도서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원장은 개인적으로 또는 원장 자격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심사 과정 전체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사항이고 심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진흥원은 2014년 추천도서 3차 심의에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탈락시켰습니다. 진흥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제20대 국회 박경미 국회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이 도서의 사상적 편향성에 대해 검토하였음이라는 심사총평이 존재합니다. 특히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책에 줄을 쳐 가면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검사했다는 당시 진흥원 관계자 인터뷰도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와 그 작품이 보수정권 정치탄압을 받은 것입니다.

원장, 당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진흥원이 과거 한강 작가를 부당하게 탄압한 것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예. 잘못된 일이고요. 그 이후에 블랙리스트 조사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심사는 여러 차례 걸치면 좋은 작품을 뽑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심사 과정이 늘어지면 늘어지는 만큼 개입의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모든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한 번의 심사로 심사가 종결되도록 하고 있어서 블랙리스트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잘못된 점들은 다시 사과드립니다.

○**김재원 위원** 저는 제22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블랙리스트 근절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다시는 사전검열, 사상검증, 정치편향, 사상적 편향성 등을 내세워서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인을 피해 입히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진흥원은 당시 발생했던 일에 대해 진흥원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피해 입은 작가들 명예를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관련 내용을 본 위원에게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연결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이은우 원장 계십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김재원 위원** 먼저 PPT 보겠습니다.

원장, 문체부와 KTV는 김건희 씨 황제관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화면 보이시지요? 이 입장 변함없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김재원 위원** 입장 변함없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변함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이 김건희 황제관람을 KTV와 대통령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다는 증명을 증거로써 밝히겠습니다.

원장, 본 위원이 지난 7일 국감 첫날 장관 상대로 인력과 리플릿 등 의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질의를 했는데 원장, 해명할 수 있습니까? 의전 사전 준비 정말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관중인데 이렇게 리플릿을 준비한다고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리플릿은……

○**김재원 위원** 저는 평생 무관중 방송에서 리플릿이 있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리플릿은 이미 사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건적상 이 리플릿이 한 장당 4만 원꼴입니다. 제가 입수했습니다. 과연 황제관람에 걸맞은 금액이고요. 200만 원이나 들여서 50부 제작했습니다. 행사장 테이블 위에 공연 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PPT 2 보시면 리플릿이 놓여져 있는 장면 보실 수 있고요.

무관중 공연에는 절대 필요하지 않은 VVIP를 위한 고가의 의전물품입니다. 철저하게 사전에 기획되었다, 김건희 황제관람. 명백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원장, 김건희 씨가 분명 당일 갑작스럽게 방문했다고 해명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PPT 다음 것 보시지요.

자료 화면은 용역업체 관계자가 행사 스태프를 섭외하면서 보낸 메시지입니다. 발신날짜 10월 26일, 31일 청와대 행사에 VVIP가 참석하니까 스태프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적사항을 내고 신원조회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총괄했던 외주제작사 본부장이 경호처와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행사참여자 신원조회 경호처가 하는 일 아닙니까? 김건희 황제관람을 위한 사전 경호회의, 명백한 두 번째 증거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당시 행사 주도했던 용역사의 업무 일정 자료입니다. 업체 내부 자료에 따르면 행사 열흘 앞둔 10월 19일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정용석 선임행정관, 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이지요. 문체부 해명자료에 등장하는 용역업체 관계자 박종현 PD와 만났습니다. 박종현 PD, 당시 용역업체 측 공연행사 총괄PD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문체부와 KTV는 시종일관 김건희 씨가 분명 당일 날 갑작스럽게 방문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행사를 총괄한 PD가 대통령실 직원을 왜 만납니까? 공연 일정을 사전에 보고하거나 공연 프로그램을 조율하거나 카메라에 김건희 씨를 잡으면 안 된다거나 하는 사전 기획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당일 현장에서 근무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박종현 PD가 현장에서 ‘김건희 씨 사진 촬영 불가, 스태프들은 주머니에 손 넣지 마라’ 이런 지시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심지어 정용석 선임행정관은 공연 시작 전에도 미리 왔습니다. 왼쪽 사진이 공연 전 정용석 선임행정관이 출연진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행사 마치고 김건희 씨가 행사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인데 여기서도 정용석 선임행정관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건희 황제관람을 위해 먼저 와서 기다리고 마칠 때까지 수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갑자기 왔다는 김건희 씨, 하지만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의 행사 전부터 시작된 의전행위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황제관람의 명백한 세 번째 증거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증인 질의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증인이 있지 않으므로 이따 오후까지 출석하는 것을 봐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김태정 아리랑TV 사장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김태정입니다.

○양문석 위원 PPT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부가 김태정 사장님 이력서 딱 두 줄 보냈습니다.

이력서 원래 없습니까?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왜 안 주시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저 두 줄이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아리랑TV 사장 언제 임명됐습니까?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올해 6월 5일 자로 임명됐습니다.

○양문석 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명됐습니까?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4월 말에 문화부로부터 연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간단한 저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6월 5일 자 그 한 2~3일 전에 최종 임명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제출 서류, 이력서 달랑 한 장 보냈습니까?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문석 위원 뭐뭐 보냈습니까?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이력서하고 지금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료 등을 보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양문석 위원 김대중 조선일보 전 주필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딸이 제 와이프입니다, 부인.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아리랑TV 사장 가신 거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저는 아리랑TV의 여러 가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리랑 사장으로 온다는 것은 희박한 공기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제대로 된 국제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양문석 위원 장인어른이 사장 관해서 취업 청탁을 했더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양문석 위원 2007년 이후에 공식적인 프로필이나 스펙이 경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유나이티드미디어 사장 경력만 가지고 계속 있었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공적인 활동이 거의 20년 가까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리랑TV 사장으로 갔다?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문화부 차관보 이진석, 조선일보 논설위원—당시에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 강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입니다—그리고 조선일보 전 주필 김대중 씨의 사위, 이렇게 되면 그림이 상당히 너무 판에 뚜렷이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강훈 아십니까?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전혀 모릅니다.

○양문석 위원 이진석 아십니까?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지난 7월 초에 문체부 업무보고 때 간단히 인사를 나눈 것 외에는……

○양문석 위원 장인어른이 어떻게 움직이신지 모르시겠네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PPT 좀 띄워 주세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김건희 라인, 저 내용이 일찍이 보도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저기에 당시 국정홍보비서관 강훈,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또 이기정 이 사람들이 오늘 동아일보에 이니셜로 칠상시, 칠상시라고 하는 명단에 올라왔던 사람이고 그 중에 지금 관광공사 사장내정자로 되어 있는 강훈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김태정 사장님을 임명했다고 저희들은 제보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으시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전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자료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문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정말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의 사위로서 그리고 김건희의 백으로 너무 과감한 플레이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장 언제까지 하셨어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양문석 위원 유나이티드미디어 사장 언제까지 하셨어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2007년 회사를 설립하고 올해 6월 4일까지 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6월 4일 사장 하셨어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제가 허위경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겠네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억울하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아닙니다.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양문석 위원 지난번에 제가 허위경력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상당히 억울했을 것 같은데.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착오는 할 수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기본적으로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허위경력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겸직금지 규정이라고 혹시 아세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겸직금지 규정이 뭐지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아리랑TV 임원 복무규정에 보면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임원은 법령과 정관 또는 재단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겸직금지 관련이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런데 겸직금지를 시켰는데 계속해서 유나이티드미디어 대표로서 활동 하셨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그렇지 않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정말입니까?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만약에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면 사장 그만둘 생각도 있습니까?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위증죄로도 처벌을 받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위증죄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올려 주세요.

저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저 일정을 한번 보세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그것은 아직 그쪽에서 제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거기 착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쪽이 누구예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영화진흥위원회 심의등급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영진위가 잘못된 거예요? 김태정 대표가 잘못된 게 아니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저는 아닙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둘 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목록 보면 ‘김태정’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유나이티드미디어 대표로서 이야기가 되어 있고 6월 14일, 7월 30일, 8월 1일, 8월 6일, 8월 7일 각각 9건이 김태정 대표 이름으로 됐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없습니다. 저희 등기부등본……

○양문석 위원 상당히 위험한 수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1분만 주십시오.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자료 띄워 주세요.

유나이티드미디어하고 아리랑TV 업무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지요? 거의 유사해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아니, 확실히 다른 게 국제방송교류재단……

○양문석 위원 사적 이해관계자, 지금 대표가 부인이시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사적 이해관계자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심지어 공직자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 또는 별도의 단체. 유나이티드미디어하고 아리랑TV가 거의 유사한 내용의 일을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2년 이내에 유나이티드미디어 대표를 하시면 아리랑TV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부인이 아리랑TV가 하고 있는 활동과 유사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장님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2년 이내에 유사 업종에 종사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사장으로 시켰고 그리고 여전히 부인이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어떻게 아리랑TV 사장이 되었을까 저희들이 곰곰이 추적하면서, 취재하면서 제보와 함께 정리를 했더니 뒤에 장인어른, 조선일보 전 주필 김대중 씨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부 차관보 그다음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건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직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해충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위원님 질의에 사실과 내용에 있어서 필요하시면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올 때, 제가 임명받을 때부터 저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국제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미디어와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사업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유나이티드미디어는 대부분 해외 프로그램 수출 또는 수입에 한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은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방송으로서 전혀 그 사업과는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줌……

○위원장 전재수 이미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부산 수영구 정연욱 위원님입니다.

관광공사 사장직무대리인 줌 나오시지요.

관광공사에 아마 여러 가지 관광지를 소개하는 포털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포털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런데 별도로 아마 1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홈페이지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정연욱 위원 이게 아마 어르신들이나 여러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따로 좀 특화된 영역으로 홈페이지 사업을 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이벤트는 연중 상시 하고 있어서 제가 속속들이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연욱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위치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 한 10억 원 들였고, 이 중에 지금 열린관광지에 등록된 게 13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당 보니까 750만 원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저희가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부분으로 줌 넘겨 주시지요.

지금 대부분이, 올린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지만 텅텅 비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정연욱 위원 다시 또 바꿔 보시지요.

이름만 걸쳐 놓고 지금 아예 비어 있는 것도 있지요. 이게 기본적으로 중복사업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기존의 구석구석이라는 포털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하는 게 건당 750만 원을 줘야 될 가치가 있는 건지도 기본적으로 의문입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런 예산, 10억 원 예산을 들여서 고작 이것 하나 만들려고 지금 이런 포털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참고로 저희가 외국인 대상으로는 VISITKOREA 사이트가 있고 내국인 대상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그럴 수는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전체적인 포털의 운영 자체가……

이게 자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이트 검수나 취약점 점검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 데이터 접근성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다고 그러고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혈세 낭비, 기본적으로 저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걸 추진한 업체입니다. 이전에 추진한 업체가, 이 업체 한 곳에만 9년간이지요, 279억입니다. 거의 300억 가까운 돈을 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더, 제작 기간도 그렇고 이게 코로나 때 사업 방식 자체가 좀……

왜 이렇게까지 이 업체에 몰아줬는지 제가 어제까지 계속 관광공사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어제저녁까지. 지금 직전까지 와도 그럴 만한 어떤 이유를 내놓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과에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 과정만 복잡하지 뭘 이렇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 콘텐츠 개발, 엉망인 콘텐츠 자체를, 개발한다는 말도 쓰기도 어려운 이 업체에 왜 이렇게 몰아줬는지.

2024년 올해까지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총 5건입니다. 올해 한 것만 해도 8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도 제작한 기간이 또 코로나 한창 유행했던 기간입니다. 코로나 때 기본적으로 관광객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차로 정보서비스 개선한다는 이유로 1억 6670만 원이 지급됐고 또 코로나가 한창 피크에 올라갔을 때—그게 2021년입니다—긴급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긴급 입찰공고까지 낼 사안입니까? 거기서 3억 9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긴급 입찰 사유라는 게 고작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등 전염병 재해 극복을 위한 언택트 인프라 구축이 조속히 요구되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관광 포털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이게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국민적으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필 유독 코로나 기간 때 관광정보 제공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때는 오히려 관광객이 급감할 때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급감할 때기는 한데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을 통한 프로모션이나……

**○정연욱 위원** 그런데 그 온라인이 이것입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아니,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위주로 한 마케팅은 많기는 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금 이런 실태를 보시고서도 온라인 방안을, 강화를 얘기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의혹을 살 만하다고 봐지고요.

**○정연욱 위원** 그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약 문건도 지금 좀 기가 막힙니다. 명색이 공공기관입니다. 대표자 이름이 ‘안’ 자, ‘한’ 자. 성도 자기 멋대로 써 놓았습니다, 당사자는 같은데. 대표자 이름도 확인하지 않고 문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계약서도 대충 작성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계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통해서, 공사 업무 특성상 사업 단위가 작은 홍보마케팅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계약 건수가 과다하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수의계약 건수가 좀 많다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정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게 지금 벌써 아까 얘기드린 대로 9년 동안 이 업체와 총 204건, 279억 계약을 했습니다. 이 업체가 수의계약만으로 128건, 127억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못 합니다, 지금 관광공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한 업체가 이렇게 계약을 독점하고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설명을 못 드리면 이상하다고 봐야겠지요.

○정연욱 위원 왜 설명을 못 합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제대로 소명해서 종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알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앞서서 김재원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소록도 방문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황제관람이 10월 31일 날 있었고요. 그로부터 딱 일주일 후에 김건희 여사가 소록도를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다음 날 보도자료를 내는데 소록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올해 초에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주재로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가유산청 국장급들이 모여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소록도 미래비전 협의체를 꾸려서 소록도를 보전·관리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서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에서 1차 킥오프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래비전 협의체 구성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사의 위당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특별한 역사·문화적 유산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또 ‘보전·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논의가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재수 위원장, 박정하 간사와 사회교대)

김건희 여사 소록도 방문 이후에 용산 대통령 지시로 이 3개 부처 이외에도 국립소록도

병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경연구원은 올해 처음으로 연구용역비 7227만 원으로 용역을 받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소록도 자연가치 등의 보전·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라고 해서 올 7월 22일서부터 용역 기간이 진행됩니다.

소록도 방문 관련해서 이후에 KTV는 또 소록도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공연을 작년에는 청와대에서 했고 올해는 소록도에서 공연을 하고 이걸 방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따라간 행사만 촬영하고 방송을 해냅니다. 저는 KTV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요.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고 워딩을 하면 정부부처가 움직이고 예산이 따라가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규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명태군 게이트와 관련해서 여사의 여러 가지 개입 정황들이 나타나는데 공천 개입을 뛰어넘어서 국정 운영과 관련된 개입, 예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공화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우 원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방에서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별도의 청중 없이’라고 하는 저 공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맞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거짓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짓 자료를 내면서까지 김건희 여사를 꼭꼭 숨기려고 했는지 묻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별도의 청중이 없이 무관중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당일.

○이기현 위원 아까 김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가 사람이 아닙니까? 관중이 아닙니까? 리플릿은 왜 만들었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위원님, 관중이라는 것은 어떤 공연이나 이벤트를 전적으로 감상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관중이라고 하는 것이고, 당일 날 영부인께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거기 출연한 국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중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참관인 내지는 격려차 방문한 외부 인사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원장께서 계속 하고 계시는데, 오후에 하종대 증인 오면 제가 한번 할 텐데 원장님 본인이 안 계셨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황제관람이라는 그 말씀에 동의를 못 합니다.

○이기현 위원 국민들은 동의하니까요. 원장님은 여기까지만 대답하십시오.

KTV가 문체부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을 좀 띄워 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장소 허가 신청서라는 게 있고 ‘청와대 구 관저에서 열리는 국악공연을 위해’라고 보냅니다. 이 공문이 갔을 때, 이게 공문이 10월 26일 날 보낸 공문입니다. 문체부는 여기에 30일 날 장소 대여 신청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KTV가 문체부 소관기관

이기는 합시다만 아주 작은 기관인데 여사와 대통령의 방문을 기정사실화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 청와대 구 관저를 KTV는 이미 대관을 한 것처럼 짜놓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KTV가 청와대 구 관저와 대통령 내외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해서 공문을 발송하는 게 이게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래서 나중에 수정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호상이나 어떤 보안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기현 위원** 무관중 행사라고 하면, 무관중 행사였다고 하면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거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문에. 그리고 이것이 보안상의 이유라면 당연히 공문서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KTV가 만든 세 차례의 공문에 모두 대통령과 대통령 내외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렇지 않습니다. 무관중 녹화를 결정하는 그 시점이 늦은 데서 오는 혼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들어가세요.

저는 대통령실 그리고 문체비서관실 그리고 부속실이 사전에 협의 완료 이후에 KTV는 집행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성구 방송기획관, 앞으로 나오세요.

○**임오경 위원** 그 당시 안 계셨으니까 그냥 모른다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박정하** 임오경 위원님, 의견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이기현 위원** 제 시간이니까요. 제 시간입니다.

이성구 방송기획관님.

○**한국정책방송원방송기획관 이성구** 예.

○**이기현 위원**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JTBC에 방송 인터뷰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저희는 행사 당일 임박해서 아주 극소수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극소수가 누구입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기획관 이성구** 아주 극소수는 제작진이 아니고 전임 기획관 또는 전임 원장님 등을 의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기현 위원** 여사님이 아니고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기획관 이성구** 여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기현 위원** 알지 못했다고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기획관 이성구** 예, 저는 그때 당시에 여사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기획관님 밑에서 일하는 조 PD 만약에 동행명령장 받아서 오시면 기획관님 위증입니다.

임박한 시점에 알게 됐다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기획관 이성구** 그것은 전언을……

○이기현 위원 언제 알게 됐어요, 김건희 여사가 오게 된다는 것?

○한국정책방송원방송기획관 이성구 위원님, 제가 그때 당시에 전언을 확인해서 드린다는 맥락, 앞의 맥락을 해당 기자에게 설명했던 내용하고……

○이기현 위원 누구로부터 그 사실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행사는 기획관님 오시기 전 일이니까, 언제 알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김건희 여사가 임박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누구로부터 전해 들으셨냐고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기획관 이성구 전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기현 위원 전임자 누구입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기획관 이성구 전임자들은 전 원장 등을 포함하는……

○이기현 위원 하종대 원장한테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기획관 이성구 예.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꺼 주세요.

저희들이 영부인이 왔냐고 물어봤을 때 무관중으로 진행했다라고 여러 번 속이다가 나중에 자료가 나오니까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성구 방송기획관 본인과 그리고 허위 진술을 해 왔던 그리고 거짓 해명을 해 왔던 이은우 KTV 원장도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방송 언제 했냐면 저희가 처음 KTV의 김건희 황제관람에 대한 첫 국감이 진행된 국감 첫날 그 시간에 이은우 원장, 방송기획관, 누가 허락했는지 모르지만 저따위 방송을…… KTV가 저런 방송하는 방송입니까? KTV가 종편입니까? 뉴스채널입니까? 국감장에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저런 방송을 동 시간대에 급히 제작해서 아나운서 이름으로, 아나운서 워딩으로 저렇게 낸 KTV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장과 그리고 방송기획관, 법적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이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구 증인 와 계시는데요. 앞서 이기현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많고 똑바로 말씀하셔야 오해도 없을 거니까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질문이 많이 있을 텐데 잘 기억을 정리하셔서 명료하게 명쾌하게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원방송기획관 이성구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님, 왼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다.

원장님, 일단은 자료화면 좀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은 도박 빚에 빠져 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친구를 성매매에 동원시키고 또 마약 던지기 들어 보셨지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진종오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들 도박중독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살도 하고.



원장님, 이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일단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또래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래로부터 권유를 많이 받고, 일단 도박에 빠지게 되면 뇌 발달이 다 끝나지 않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극적인 것들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차 범죄, 3차 범죄까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맞지요? 도박중독이 청소년들한테 심각한 상황인데 최근 3년 전에 비해서 5배가량 증가를 했어요.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박 문제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의 필요성이 보입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도박중독이 약간 적절한 시기에 예방과 치유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대리입금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진종오 위원** 10만 원 소액으로 SNS에서 강하게 퍼져 나가는 불법 사채 같은, 이게 또 결국에는 학폭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2차 강력범죄로. 그래서 빠른 치유서비스랑 인프라가 약간 부족하다는 문제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방교육 같은 경우 교육에 대한 시수 그리고 방법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현안으로 보고 있는 게 예방교육이 어쨌든 학교장 재량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꼭 도박교육의 의무로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수나 방법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진종오 위원** 여가부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첫 번째로 접근성 문제인 것 같아요. 청소년의 경우 상담시간이 방과 후 그리고 부모와 동행을 해야 되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전담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치원 보면 청소년 중점치유센터 5개 중에 인력을 증원해서 일일이 찾아가는 상담 그리고 나머지 9개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여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일단은 9개는 전담 인력이 없지만 청소년 상담은 하고는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하고는 있고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그리고……

○**진종오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가 없다는 뜻이네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그 서비스를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전문상담기관 자체가 또 개수도 그렇고 아직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확충된다면 기관을 조금 늘리고 전문상담 인력도 충원을

하면 사각지대가 조금 촘촘하게 메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어쨌거나 제도를 좀 더 개선하려면 가장 중점적인 예산이 부족한 거지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진종오 위원 예산이 부족하고.

또 제가 앞서 말한 두 가지 개선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도입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필요한 법 개정이나 예산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저 또한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치유서비스, 인프라 부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지역센터 중에 강원센터가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가 되었지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진종오 위원 그래서 24년도 12월에 재개소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렇게 되면 1년 정도 공백기간이 필요한데 이런 공백기간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지역센터가 없어서 공백기간이 되는 것은 저희가 전문상담기관이 지금 강원도에 한 3개 정도가 있어서요 보완 작업을 통해서 그것들을 메워 나가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걸 한번 보니 의무기관 또한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저희 유찰을 세 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강릉원주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정선 직영센터로 대응하고 계시지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일단은 몰려 가지고 대기시간이 거의 두 달 가까이 넘어가고 또 치유상담 받으러 4시간을 이동하는 수요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위탁사업을 지정하지 못한 것도 결국은 예산 문제, 맞지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진종오 위원 결국은 이게 예산 문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꺼리는 것도, 일단은 처우 문제 또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 치유원 서비스 구현체계도를 보시면 결국에 중점되는 사업은 치유와 재활인데 체계도랑 업무계획을 보면 지역센터의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역센터 또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제주를 제외하고 보면 전부 지역 거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8월 기준으로 5만 7000여 건의 업무 실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현도를 보더라도 지역센터의 비중이 높은 걸로 파악되는데 일선에서 도박 문제 치유와 상담

을 위해서 치우 개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저희가 기재부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워낙 문턱이 높다 보니까……

○**진중오 위원** 기재부에서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높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는 있고요.

치우 개선 관련해서는 이게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적인 예산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늘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그것은 차후에 제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중오 위원** 보니까 민간 상담전문기관 같은 경우 예산 부족 현상이 연례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상담 인원 연계가 8월과 10월 사이에는 마감돼서 중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매년 서비스 중단으로 차년도로 연기되는 인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이 또한 예산 문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산 문제도 있지만 올해 급증하는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기존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이 다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민간 상담기관을 통해서 예산을 7900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차후에 더 증액을 해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중오 위원** 보니까 내년 2025년도에도 치유·재활 예산이 증가되지 않은 것 맞지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치유·재활 예산은 지금 7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은 저희 통합 플랫폼이 지금 구축이 돼 있는데 거기 1차 연도가 완료가 돼서 그 자연감소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진중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증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행산업위원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산이 증액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주간 운영, 알고 계시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알고 있습니다.

○**진중오 위원** 그런데 보통 이게 일회성 행사라고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아닙니다. 매년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중오 위원** 그런데 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00만 원 정도 증가하였고 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있어서 그다지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예치원의 예산 관리감독을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앞으로 예방·치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예치원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청소년 도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진중오 위원** 심각하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부족한 것들, 그러니까 예산이랄지 인력이랄지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중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행산업 매출액이 증가해서 2023년도, 전년도의 순 매출액이 한 10조 정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10조 정도를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감위법 아시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진중오 위원 사감위법 보면 순 매출액의 0.35%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선진국 수준인 보통 순매출액의 1~2%보다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법안 개정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부담금 상향 조정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자들의 매출 추이랄지 그다음에 사행산업으로 인한 피해랄지 부작용 이런 것들을 더 데이터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중오 위원 적극적으로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진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신미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님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좀 전에 존경하는 진중오 위원님께서 불법도박을 일삼던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지금 도박이, 토토 하던 청소년들이 이제 온라인카지노로 대규모로 지금 이동하고 있지요?

(박정하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조계원 위원 그래서 도박중독이 심각한 문제인데, 더더구나 도박 연령대도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는 17~19세 사이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 빠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14~16세 청소년들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연령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일단은 그 또래의 청소년들은 아무튼 인터넷에 익숙하기도 하고요. 또 또래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또래 간 확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또 불법……

○조계원 위원 핵심은 스마트폰 아닌가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스마트폰에서 바로 접속이 가능하지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원인은 아이들이 바로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 도박의 광고 그런 노출로 인해서 그쪽으로 접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계원 위원 왜 청소년들 접속이 가능하게 방치하고 있는 거지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그것은 저희가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조계원 위원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그건 방심위의 업무 소관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사 감위를 통해서 차단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단하는 데 좀 물리 적인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PPT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PPT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소년 도박중독과 관련한 치유상담 서비스 현황을 보면 지금 2020년에 대비해서 거의 2배로 증가를 하고 있지요. 이 상황에서 상담 시설이나 인력들은 큰 변동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지요? 예치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치원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예치원에 300억 원대의 여유자금이 있는 것으로 아 는데 그것 전부 창고에 쌓아 놓고 있을 겁니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저희도 그걸 너무나 쓰고 싶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재부 한도 값도 있고 건축재정도 있고 예산승인 한도 내에서만 이걸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조계원 위원 아니, 청소년이 도박에 빠져 있고 심각한 도박범죄가 지금 큰 문제가 되 고 있는데 그 예산을 쌓아 놓고 기재부 탓을 하면 되겠습니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협조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도박 관련해서 청소년 상담, 그리고 상담도 문제지만 치유 프로 그램이 2017년, 2018년에 개발된 두 가지뿐인 것 같은데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그 이후에도 사실은 치유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내담을 하시 게 되면 도박의 수준이나 정도를 좀 파악을 해서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적합하게 맞춤형 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청소년들이 많고 또 재발률이 높다 보니까 그 적절한 서비스 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프로그램이 2017년, 2018년이면 지금부터 오륙 년 전에 개발된 프로그램 가지고 현재 온라인카지노 도박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치유나 대응이 가능할까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저 프로그램 말고 사실은 저희가 24년도에 청소년 진단을 할 수 있는 척도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워낙 청소년이 온라인에 강 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 서 저것은 조금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조계원 위원 다음 PPT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측정만 해 가지고, 측정과 치유 프로그램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측정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치유 프로그램이고 치유 프로그램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는 문제입니다, 2017년, 2018년도에 개발된 거.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이 거지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계원 위원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을 좀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하고 있는데요. 그것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도 계속하고 있지만 일단 저희가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꼼꼼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다음에 다시 표를 보시면 단도박률, 그러니까 도박을 끊는 율이 시간이 갈수록, 정규 상담을 종결하고 나서는 80%대 가까이 나오는데 한 12개월 정도 되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이런 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위낙 중독이라는 게 재발률이 굉장히 높고요, 원래 한 60% 정도는 1년 이내에 다 재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발이 사실은 실패가 아니고 재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단도박을 좀 넘어서 치유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상담자에 대한 사후 추적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저희는 지금 12회기 서비스 이후에도 1년간 추적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유선상으로 하고 있고 또 단도박이 끝나면 자조모임이라고 그래서 회복자 패러다임이 당사자 위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도 동료 지원관을 통해서 지금 멘토링 작업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조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불법도박의 유형별 이용 현황을 보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토토, 체육진흥투표권의 토토 이쪽에서 지금 온라인카지노 도박에 압도적으로 청소년들이 빠져들고 있고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스마트폰의 즉시성이나, 즉시 응답이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들이 더 강한 중독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도박의 중독과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사전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소년 도박중독의 심화 그리고 저연령화에 대한 특별 대책은 없습니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저희가 어쨌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방을 통해서 도박범죄의 어떤 인식 또 폐해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아이들이 인식을 하

고 나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더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앞서도 사전 예방교육 지적이 됐지만 교육부의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항목에 지금 도박중독과 관련된 교육은 빠져 있지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조계원 위원 이 부분은 좀 시급하게 교육부하고 협조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하기로는 예치원에 약 300억 원이 넘는 여유자금이 쌓여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맞지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위원님, 저희도 너무 쓰고 싶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걸 지금 현재 도박중독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나 치유 프로그램 이런 개발들에 시급하게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문체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계원 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는 불법게임과 사이트를 만들어서 무차별 배포하고 운영하고 있는 나쁜 성인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조계원 위원 그래서 앞서도 강조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발을 들여 놓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그리고 폐쇄 그리고 인증 절차를 강화해서 청소년들은 아예 접속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러한 조치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에게 듣고 싶습니다.

원장께서 있었던 시절은 아니지만 블랙리스트와 상당히 유관한 기관이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예.

○강유정 위원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 있으시지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오늘 자 머니투데이 기사를 봤더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자료를 하나 쫓더라고요. 신문사에 쫓나 봐요, 한강 관련 지원 내역이 굉장히 많다……

제가 PPT 좀 보여 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예술위에서 제공한,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지원을 받은 작가인데 야당 일각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운운하며'라는 기사 내용이 있어요. '정부의 탄압을 받은 작가로 묘사하고 있다', 이걸 마치 야당의 정치공세 내지는 정부 탄압이라는 운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표현 같은데, 아까 자료 한번 다시 보여 주시지요.

이 자료를 보더라도, 문제적인 건 지금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원장께서 계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밑줄까지 쳐 가면서 문학나눔 도서 선정 과정에 개입해서 블랙리스트화해서 지원을 주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썼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2014년 5월에 창비에서 '소년이 온다'가 출간이 됐어요. 제가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바로 이 '소년이 온다' 이후에 비어 있는 2014년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빼고서 문화예술위에서 자료를 주시고 이걸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 기자가 문체부 출입기자라는 것까지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블랙리스트라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을 교묘하게 감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는 매우 보편적인 야당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운운이라는 등, 정치에 개입이라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개탄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김영하 작가가 2017년 5월 29일에 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김영하 작가는 뉴욕타임스 아시아판에 어떤 칼럼을 쓰냐면 '독재자의 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이후로 모든 지원에서 배제되면서 자신의 작품인 '빛의 제국'이 프랑스에서 연극으로 만들어져서 올림에도 불구하고, 원작자를 초청해 달라는 프랑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배제한 사건 이런 걸 두고 저희가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운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에 대해서 실행까지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문체부라면, 제가 중감 때 다시 물어보긴 하겠지만,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블랙리스트 작업에 부역을 했던 기관으로서 훨씬 더 많은 각오와 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보는 겁니다.

연관해서 하나 더 여쭙보겠습니다.

문학나눔 사업이라는 거 아시지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예.

○강유정 위원 보통 몇 권 정도 선정해 왔지요, 연도별로 대략?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금년도는 한 40억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몇 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긴장하셨나 봐요.

연도별로 상이하지만 500~550권 정도 매년 문학나눔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강 작가 같은 경우도 문학나눔에 선정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학이니까요.

그런데 2024년에는 몇 권 선정이 될 계획이었습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

○강유정 위원 390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예, 390종입니다.

○강유정 위원 160권 정도 줄어든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 22% 줄었습니다.



제가 더 걱정되는 건 문학나눔 사업과 세종도서관이 합쳐졌지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저희 기관이 맡고는 있지만 사업 심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조금 계속 어긋난 대답을 해 주시는데, 세종도서관 교양 부문은 440권으로 선정이 돼요. 그런데 이게 2021년에 몇 건인지 아세요? 2827권에서 교양 부문 440권, 학술 부문 최대 390권. 그런데 이게 합쳐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문학나눔을 더 이상 따로 하지 않고 세종도서관과 합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문화예술 진흥이 맞을까요, 원장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늘려 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유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비관이 계속 이어지자 올해 좀 원상 복구하거나 늘리겠다고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2025년을 좀 봤더니 세종도서관 문학나눔 사업 예산이 131억 29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원장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정확하게 기억치 못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2023년에 140억이었어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2023년에 140억이었다가 이에 대비해서 45억이 줄었어요. 거기서 소폭을 늘린 게 131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2023년 수준도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 계속 원상 복구다, 늘리겠다고 말하는 건 저는 아까 그 한강 작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지원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꿈수처럼 매우 꿈수로 느껴지는데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에게 없고,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강유정 위원** 그 부분에서 좀 강한 주장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예,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문화예술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가 전방위적으로 발휘가 될 때에는 사실 이런 지원 부분을 상당히 줄여 놓고, 문을 좁게 만들고 여기에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드는 각각의 상황을 만드는 걸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세종도서관 사업이나 문학나눔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학·출판 분야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걸 기관장으로서, 이 부분을 주관하는 기관장으로서 좀 더 선명한 태도를 유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기관이 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 맞는데요. 같은 개념으로 하지는 않고 문학나눔은 별도로 또 그동안 문예위에서 했던 방식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면 왜 두 개의 분리된 사업, 독립사업을 합쳤습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저희 기관에게 그 임무가 주어진 것뿐이고요.

○**강유정 위원** 방금 말씀은 마치 2개가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합쳐지는 순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원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를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온 국민이 축하해야 될 일이고 이 부분을 이념적 잣대로 폄하하거나 또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한강 작가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시다만 실질적으로 한강 작가가 블랙리스트 백서에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세종도서에 배제됐던 것 2014년 ‘소년이 온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보면 심의위원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이지 정부에서 뼈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강 작가 지원내역을 보면 오히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 2014, 2015년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됐고요. 이때 한강 작가의 작품들도 보면 28개 언어로 76종이 번역 출판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노벨상을 받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팩트 위주로 말씀하시고 그래야지 이렇게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언론중재위원회 직무대리님 나와 계시지요?

언중위에 한번 제소가 되면 실질적으로 기자나 아니면 언론사는 위촉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중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승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에 언중위 제소 건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5년 정도 따져 봤을 때도 2020년도에 3건 있다가 거의 없다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거의 이틀에 1건꼴로 언중위에 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언론 재갈 물리기 차원의 제소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제소한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더라도 보면 거의 대부분 기각되거나 또 취하됩니다. 김만배 돈거래 혐의 또 당내 경선 시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충돌, 다 기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언중위 제소가 되면 또 서면 해명해야 되고 또 중재 때 출석해야 되고, 물론 데스크 쪽에서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시다만 제가 기자들 만나서 직접 물어봐도 당연히 위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언중위 제소하는 것은 또 언중위의 업무도 굉장히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최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정신청을 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중재위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정신청을 하면 담당 중재부에서 국장이 중립적으로 그냥 처리할 따름입니다.

○김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님 와 계시는데, 앞서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한 5년 정도 GKL의 용역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것

을 보니까 무려 2020억 정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불투명한 예산 집행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VIP 선물, 담배, 여기 선물이 한 39억 정도 집행을 하고 사회공헌에 내놓은 돈은 25억에 불과합니다.

물론 VIP용 상품 이런 것들은 다른 민간기업의 카지노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회공헌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하더라도 강원랜드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앞서 VIP의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동욱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아예 자체 매장에서 파는 그런 가격에 비해서 어떤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씩 더 비싼 돈을 가지고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의 구매대행 사이트하고 비교해 보면 한 20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 한 1억씩 구입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수의계약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씩 끊어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특정 외국산 담배업체 3개하고만 집중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실제 코엑스 쪽에 보면 코엑스 매장에서 판매되는 담배의 비율을 보면 국산 담배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출입하는 카지노라 하더라도 전액 외국산 담배만 구입을 한다는 겁니다.

또 더 의문이 가는 것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데 3개 업체에 구입이 거의 집중돼 있어요, 두루행복한세상, 행복큐산업, 그린주의. 이 셋 다 사회적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보면 사무용품이라고 회사 등록은 돼 있습니다만 구입하는 내용들을 보면 치킨쿠폰, 아이폰, 반팔티, 잡다한 품목들이 여기에서 구매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개 업체에만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한 5년간 두루행복한세상 같은 경우에는 10억, 행복큐 4억 이런 정도로 집중적으로 여기서 매입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인테리어공사도 보면은 특정 업체에 계속 그냥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징계나 이런 것들도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체육계 관련되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제일 많이 징계 건수가 발생하는 곳이 GKL이고. 또 GKL 징계가 적발이 되면 바로 경영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 홈페이지에는 전혀 공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직원들의 비위를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의문이 가는 것은 지금 또 조직진단 용역하고 있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예.

○김승수 위원 2019년도에도 한 3억 원을 들여서 조직진단 용역을 했었는데 굉장히 과업 수행기간도 짧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역하고 나서, 지금 조직의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원과 현원 대비가 7급 또 6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려 몇백 명씩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조직진단이 제대로 됐었으면 조직관리가 이렇게 됐었겠습니까? 2019년도에도 보면 그냥 형식적인 조직진단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조직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다시 조직진단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용역 금액인데, 조직진단 용역으로서는 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은 착수 후 6주

이내에 완성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이렇게 큰 조직의 조직진단을 6주 안에 만들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수박 겉 핥기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냥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들게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GKL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면은 굉장히 불투명하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의문을 지을 수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수의계약 문제는 저희 기관이 타 기관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업의 특성상, 보통 수의계약이라 하면 2000만 원 이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100만 원만 넘으면 입찰형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잡다한 게 많아서 최저가 낙찰을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많이 쏠린 것 같습니다. 이걸 계속 점검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공시, 휴직관리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은 오늘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최저가 낙찰하는데 VIP 명품가격은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삽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그것은 아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장애인·여성 등등 해서 경영평가를 위해서 구매대행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살펴보고 조금 줄여 나가겠습니다. 구매대행을 계속해서 그 퍼센티지가 올라간 건데, 그것은 결코 방만경영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언론재단 이사장님, 지난해 5월부터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최근에 폐쇄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 올해 상담실적을 보니까 13건, 내용이 거의 없어요.

지난 국감에서 그렇게 야당이 반대하고 했는데도 야심차게 출발해서 한 것치고는 정말 웅색하기 그지없는데 이거 뭐 사과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사실 약간의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가짜뉴스에……

○김윤덕 위원 아니 이사장님, 너무 복잡해하지 마시고요. 이거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 운운하니깐 준비도 없이 무조건 만들었다가 운영하고 낭패를 본 경우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당시에는 여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이나 정부뿐만이 아니라 가짜뉴스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을 때고 언론진흥재단의 정관에 보면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아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하면 되지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피해 신고센터가 되니까……

○**김윤덕 위원** 대문짝만하게 홍보하는 데 열중하고,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폐쇄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정책의 잘못은 늘상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의 입장은……

○**김윤덕 위원** 잘못이 늘상 있을 수 있으니까 사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헛웃음을 웃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하고 매해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서 그 결과를 3년마다 일반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맞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내부 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래서 그걸 제출하라고 하니까 21년 것을 제출했어요, 저희한테. 올해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이 위원회가 예산이 3억 2000만 원이고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회의록을 제출하라니까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제출했어요.

이사장님 잘 아시지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국익에 따른 외교·국방에 한하는 겁니다.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에 외교·국방 관련 내용이 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런 건 없습니다.

○**김윤덕 위원** 자료를 왜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합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런데 심사위원이나 발언이 공개가 될 경우에 그 심사위원회에서……

○**김윤덕 위원** 아니, 여론집중도조사 결과에 대한 회의 내용을 공개하면 되지요. 누가 이렇게 제출하라고 지시했어요? 이사장님이 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지 않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면 제출할 수 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제가 실무자하고 바로 상의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국회에서 제출하라고 그러시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지금 제출 안 한 실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출 안 해 놓고 버티다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하고 떠들어대니까, 지금 답변이 이상하잖아요.

지난번에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 코리아판 우리 돈으로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한 건데 그때도 난리가 났었지요? 이거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는 정부광고 지출내역 거부하고 담당 임원이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이번에도 회의록 제출 불성실하게, 이걸 도를 완전히 넘은 경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 고발을 요청드리고요.

이사장님, 이거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넘어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김윤덕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가짜뉴스 센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그 폐쇄된 것에 대해서, 지난 경과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김윤덕 위원 KTV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저희 의원실에 내부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대통령 부부와 김건희 여사의 유흥을 위해서 KTV 예산이 도둑맞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것 정확하지 않은 제보인 것 같습니다.

○김윤덕 위원 2024년 6월 20일 열린 ‘차별과 편견을 넘어선 힐링 소록도 작은 음악회’에서 108주년 기념한다고 했으나 다행히 김건희 여사는 참석을 안 한 걸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제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수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어떤 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덕 위원 이 공연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조급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조급하게 진행되지 않았고요. 원래, 그것은 제가 5월 22일 날 발령을 받았는데 6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 전부터 이미 기획이 되어 왔었습니다.

○김윤덕 위원 원장님, 잠깐 제 얘기를 듣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덕 위원 KTV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데 쪼개기가 의혹이 돼요, 2000만 원짜리, 5500만 원짜리.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쪼개기로 수의계약한 적은 없습니다.

○김윤덕 위원 이 행사가 천재지변, 감염병, 긴급한 수해 이런 긴급한 행사였나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닙니다. 원래는……

○김윤덕 위원 아니지요? 실제 이 두 계약이 전부 다 6월 10일 날 계약이 추진되고 6월 14일, 4일 만에 계약이 체결돼서 지출원인행위까지 결재가 일사천리로 다 끝납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관련 규정에 맞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실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황제관람과 연동되어서 이 행사를 긴급하게, 조급하게 준비했고 여기에 따라서……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김윤덕 위원** 그다음에 지시를 받아서 이 콘서트를 지휘한 사람이 현재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자 오늘 국회 증인 채택했는데 지금 나오지 않은 최재혁 비서관이거든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전혀 맞지 않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내부에서 기획을 했고 제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김윤덕 위원** 원장님, 답변하실 때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면 더 의심받아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가 아니고 사실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이 소록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진행 과정에 대해서 문제,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김윤덕 위원** 지금 이 같은 행사를 갖다가 4일 만에 일사천리로 뭔가가 빨리, 쪼개기로 해서 진행된 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의구심이 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정확하게, 아니더라고 말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명하면 되고요. 이 해명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알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관광공사의 서영충 대행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저는 오늘 한 해에 50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중에 800억 원 규모 그리고 1년에 1500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수의계약이 과연 투명·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짚어 보려고 합니다.

서 대행께서는 공사의 수의계약이 잘,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예, 기본적으로 저희 계약 관리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현진 위원** 계약 관리 타이트하게 하고 있으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짚어 보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자료를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중 눈에 띄는 하나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1년에 한 기업이 맺는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관광공사에서도 통상 1건, 2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올 한 해만도 벌써 지금 해가 저물지도 않았는데 18건, 지난해에는 22건을 체결하며 거의 독점하다시피 수의계약을 체결해 가는 개인사업자가 하나 눈에 띄는데요, 제가 표로 만들어 봤어요.

서 대행님, 표 보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예.

○**배현진 위원** 눈에 띄시지요? 넥스트스텝이라는 여성 대표가 있는 기업입니다. 관광공사는 이 넥스트스텝과 2018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총 90건, 25억 80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넥스트스텝의 대표, 여성 대표의 남편 김 모 씨가 2015년 관광공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전시팀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6개월 인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관광공사 근무 이력은 인정하셨고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요 이 넥스트스텝이라는 회사가 2018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사실상 여성 대표 혼자인 1인 기업으로 설립이 되는데, 2018년 2월 1일에 설립이 됐는데 비교견적서 하나 없이 무려 5000억 규모의 정부 주요 기관인 한국관광공사의 수의계약에, 여기 제가 표에 보여 드리지는 않았는데 2월 9일에 견적서를 비교견적서도 없이 제출해서 한 달 만에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직원은 더더군다나 공교롭게도 지금 서 대행이 말씀하신 공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함께 근무했던 함 모 씨입니다. 이 함 모 씨는 이후에도 넥스트스텝이라는 회사에 총 2건의 계약을 함께 체결하게 해 줘서 2018년에만 3건의 수의계약이 연달아 체결됐고 2019년에는 2건, 게다가……

다시 표 띄워 주시지요.

본인이 소속된 부서가 아닌데도 다른 부서의 계약견적서를 대신 본인이 수신해 받아서 총 받은 것이 6건, 본인이 소속된 부서에서 받은 수의계약은 16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넥스트스텝이라는 특정 회사에 관광공사의 각종 수의계약을 몰아주게 됩니다.

서 대행님 이것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몰랐습니다.

○**배현진 위원** 전혀 모르셨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배현진 위원** 사실상 이것 최종 결재 누가 합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결재는 계약 금액에 따라서 직급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렇지요? 1억 원 이하는 실장이 하시고 5000만 원 이하는 팀장이 하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래도 한 해에 이렇게 총 90건 정도 되는 계약에 어떤 특정 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부사장급이신데 좀 인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첫 계약 당시, 2018년에 한 달 만에 받은 수의계약 이 사유가 뭐였냐, 공사에서 밝힌 이유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상기 업체는 이벤트 대행 전문회사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라고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연 전문성을 얼마나 갖추고 일반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회사인지 살펴봤습니다.

중소기업 현황을 한번 시스템에서 살펴보니깐요, 이 넥스트스텝이라는 회사가 매출액



이 매년 얼마인지 제가 그냥 간략하게 써 놔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수의계약 한 액수 3억, 2억, 3억 외에 다른 시장 건은 계약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올해까지도 수의계약 체결이 이루어졌고 공사는 계속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서 대행님, 관광공사와만 주로 계약하는 회사, 시장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회사의 전문성, 어떻게 담보할 수 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말씀하신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확실히……

○배현진 위원 알아보셔야겠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배현진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기업은 여성기업, 여성 대표 혼자 사실상 1인으로 설립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기업 수의계약 특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저렇게 특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의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체결을 하는데 여성기업은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계약 건도 수의계약이 체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넥스트스텝이라는 회사가 이제까지 해 온 여러 수의계약 건수 중에 여성기업의 사유로 받은, 체결한 수의계약의 규모가 총 19억 4000만 원, 토털 25억 80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이 넥스트스텝은 여성기업의 자격으로서 굉장한 수혜를 입었구나라고 판단을 본 위원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배현진 위원 이 회사 어디인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주소를 좀 확인해 봤더니요 그냥 빵집이 나왔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제공한 주소를 토대로 저희가, 이걸 이후에 확인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빵집만 있는 곳이었습시다.

이 여성 대표의 SNS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왼쪽이 문제의 여성 대표의 SNS인데 어제까지도 매일 본인이 만든 빵 사진만 올라옵니다. 기업에 관한 정보는 없고요. 오른쪽에 사업가라고 기재된 것은요 이 대표의 남편 김 모 씨……

1분만 부탁드립니다.

관광공사에서 2015년에 근무를 했었고 함께 일했던 동료, 이 계약을 모두 체결해 준 함 모 씨와 연관이 깊은 김 모 씨는 본인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넥스트스텝이라는 사진을 올려 뒀습니다.

이 웹사이트도 가 봤습니다. 남편이 마치 본인이 대표자인 것처럼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본인 프로필을 걸어 놔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나 했더니 황급히 다른 사진으로 변경했습니다.

서 대행님, 제가 지금 즉 설명드린 이 사정을 봤을 때 관광공사가 보기에 이 넥스트스텝 여성 대표가 관광공사와 관련된 답사 여행 운영, 홍보부스, 교육훈련, 창고관리, 모든 홍보 등 이런 분야에 관해서 대단한 전문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데 동의하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그것은 사업 수행하면서……

○**배현진 위원** 1인 기업으로 사실상 체결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 김 모 씨가 관광공사와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본 위원의 의심에 대해서도 동의하실 겁니다.

오후에 제가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할 텐데요. 혹시나 관광공사에서 일했던 짧은 인연만으로도 이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째짜미로 해낼 수 있다면 정말 정당하게 일하고 있는 작은 영세업체들에게는 대단히 통탄할 일이겠지요.

혹시나 관광공사 안에 리베이트를 받거나 이런 검은 커넥션으로 복마전을 벌이고 있는 않은지 전수조사의 필요성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현진 위원** 예, 상급기관에 관광공사 스스로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겠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일단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의혹 제기할 만하다라고 인정이 되고요.

저희가 부서별로 수의계약 총량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는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건은 일단 확인을 해서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지요.

○**위원장 전재수** 예.

○**민형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언론재단에서 자료를 제출받았거든요. 지난번에는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 한국 발간 여부는 국정감사에서 이사장이 직접 구두로 최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왔어요, ‘2024년도 디지털 뉴스 리포트 한국판은 현재 원고가 완성되어 편집 단계에 있으며 10월 31일 자로 발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024년 리포트에서 빠진 내용이 있느냐, 있다면 빠진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국정감사장에서 이사장이 직접 구두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왔어요, 오늘 지금 온 것이 ‘누락되는 내용 없이 한국 현황이 그대로 수록됩니다’.

아니, 재단이 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알길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 국회를 우롱해도 유분수지, 도대체 이사장이 여기 와서 직접 답하겠다고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고 또 이렇게 금세 다 준비돼 있는 것을 얘기하니 이걸 또 금방 내놓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이고……

저는 김효재 이사장님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국회에 대한 이 태도에 몹시 못마땅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지 위원장님이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언론재단 이사장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제 생각에는요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게 자료라기보다는 정책 결정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서요 국회에 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하루면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감추거나 숨겨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 위원님께서서는 국회를 경시한다 하시는데 저희들은 국회를 경시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국회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늘……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위원장 전재수**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정책 결정에 관한 자료든 또는 단순 데이터든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리고 국회라는 곳은 국민들이 직접 구성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국회 말고 주권자, 국민들이 직접 구성한 기관이 있습니까? 없지요?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신 분들이고 이분들로 구성된 곳이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피감기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념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김준희 원장님,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세종도서 선정에서 제외된 것 맞지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예.

○**민형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그 이유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상적 편향성이 그 이유지요? 맞지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그다음 기사를 보면 다 편중된 시각, 정치적 성향, 사상적 편향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탈락 현황을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보니까 한강 작가의 작품은 다 탈락했어요.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시집, ‘소년이 온다’ 소설, ‘흰’ 소설,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문화 관련한 행정 업무를 하는 이런 곳에서 노벨상 수상작가의 작품을 저렇게 모조리 다 탈락시켰다 이건 무슨 의미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과의 말씀을 정말 정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짧게 해 보세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2014년에 발생한 일이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은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기관은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작품의 탈락에 대해서도 사과하고요, 잘못됐다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아주 짧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심사에 제가 직접 관여하거나 저희 기관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책임자로서 해 보세요. 왜 복잡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하세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잘못되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세계적인 웃음거리 아닙니까? 세상에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작품을 국민들에게 추천하는 교양도서에서 모조리 다 탈락시킨 나라, 쪽팔리지 않으세요? 세계에 내놓고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정중하게 국민들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사과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사과 이유가 뭐예요? 왜 사과하시는 겁니까? 빨리빨리 말씀해 주세요. 왜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어떤 이유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어떤 작품이 훌륭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선정되지 못한 점은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잘못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형배 위원 문화행정의 사상적·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돼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 사실을 지금 아셨잖아요, 책임자로서.

그래요, 나중에 장관께 다시 하도록 하지요.

이은우 원장님,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청와대에서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제가……

○민형배 위원 이때 KTV에서 영상 제작해 주셨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제작해 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제작한 것을 갖다가 썼지요.

○민형배 위원 어떻게 20일 날 행사를 하는데 21일에 방송될 걸 갖다 씁니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갖다 씁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지요.

○민형배 위원 방송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그걸 갖다 써요, 홍보영상으로?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다른 유튜브 전용, 저희 프로그램 ‘프레지던트 다이어리’라는 데서 쓰려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갖다 쓴 거지요.

○민형배 위원 그런데 누가 이걸 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왜?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KTV 방송에서 내일 방송할 것을 오늘 미리 갖다가 홍보영상으로 썼어요. 누가 달라고 했냐고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저는 그 사실을, 누가 달라고 했냐는 사실은 모르고……

○민형배 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그게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중요하단니까요.

대통령실에서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럴 수도 있지요.

○민형배 위원 KTV는 대통령실 겁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지만 KTV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정부나 공공단체에 영상을 지원하는 겁니다.

○민형배 위원 김건희 여사 영상 뒷받침해 주는 게 국정입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하

세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전에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영상……

○민형배 위원 김정숙 여사 얘기하지 말고,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요, KTV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도.

○민형배 위원 내가 그것 만들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러면 뭐……

○민형배 위원 누가 왜 그걸 만들어서 방송 하루 앞두고 홍보용으로 먼저 썼느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묻고 있는 거지.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것은 원 소스 멀티 유스, 잘한 것 아닙니까?

○민형배 위원 방송을 한 다음에 그걸 쓴 것하고, 방송 나가기 전에 왜 그런 작품에 들어갔는지 한번 따져 볼게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좋아요, 좋아요.

35회 ‘프레지던트 다이어리’ 5월에 방영하셨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방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제가 구체적으로 세 보지 않았습니다.

○민형배 위원 대통령은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구체적으로 세 보지 않았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서른여섯 번 등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른 번밖에 등장 안 해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회별로 약간 다를 수도 있지요.

○민형배 위원 ‘프레지던트 다이어리’라면서요, 이게 김건희 다이어리가 아니고.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프레지던트 다이어리’에 영부인에 관련된 소식도 간간히 소개를 합니다.

○민형배 위원 영부인의 법적 지위가 있어요, 대통령이 국정하는 것 홍보하는 영상에다 담아야 될?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영부인도 국정홍보의 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김정숙 여사도 저희가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국정홍보의 수단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KTV가 김건희 여사를 홍보하는 데 도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저는 지금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하나하나 해 볼게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 영상을 갖다가 쓴 게 왜 문제가 되지요?

○민형배 위원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게 지금 원장님의 문제예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러니까 저를 이해시켜 달라는 얘기지요, 왜 문제인지.

○민형배 위원 여보세요. 여기가 원장님한테 그 사유를 이해시켜야 될 자리예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 그 사유를 이해하고 저를……

○민형배 위원 대통령이 아닌데……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 저한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민형배 위원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 이상현상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왜……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다른 회차에도 대통령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다른 회차 얘기하지 말고, 35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아동 미술전 얘기하는 여기에 동원된 영상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거기에 그렇게 많이, 언급은 몇 번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그렇게 크게 많이 할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 그게 문제라니까요. 온통 미술계, 문화예술계, 우리 국감장에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뜨면 행정이 따라오고 예산이 뒷받침되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탄소리를 하세요?

봐 보세요. 갑자기 캄보디아의 로타 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해요.

양주 회암사의 사리 반환 엇그제 우리가 다룬 것 있잖아요, 여기도 또 김건희 여사가 공헌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국가유산청 국정감사 때 최웅천 청장이 그래요, 김건희 여사 보스턴 미술관 방문하기 전부터 우리가 사리 반환을 준비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KTV 말이 맞는 거예요, 최웅천 청장 말이 맞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공을 들인 거예요? 기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민형배 위원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판단이 뭡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 ‘프레지던트 다이어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민형배 위원 여기에 무려 30분 동안 김건희 여사가 등장해요, 이 절반이. 그러면 이게 김건희 다이어리지 무슨 프레지던트 다이어리예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다른 회차에서는 대통령 혼자만 등장하는 회차가 많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왜 다른 회차에는 대통령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김건희 여사가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 그 주에 김건희 여사 이슈가 있으면 다룰 수도 있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KTV가 국민방송이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민형배 위원 국정홍보방송이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민형배 위원 김건희 여사 홍보대행사 아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 김건희 여사 홍보대행사는 아니지만 김건희 여사로 그러지 마시고요. 영부인의 동정도 중요한 국정의 한 순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자꾸,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이 아까 무관중 황제관람 얘기할 때 제작한 팸플릿, 대통령실에서 하는 행사 아니면 그런 팸플릿 제작하지 않아요. 왜 자꾸 그런 것……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민형배 위원 여기 대통령실에 근무해 보신 분 많아요. 지난번에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로.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일반적인 팸플릿입니다.

○민형배 위원 다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행사들을 그렇게 동원하면서 그걸 중간에 잠깐 들렀다고 거짓말치고.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김재원 위원 무관중에 팸플릿 제작은 왜 합니까, 무관중인데?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민형배 위원 대통령실에서 하는 행사를 문화재청에서 주관했다고 거짓말치고.

○김재원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무관중 아닙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 프로그램의 중간에, 여러 가지 중에 그 기획안이 있었던 거지요.

○민형배 위원 원장님,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그런 안내 팸플릿 만들고 식탁에, 책상에 뿌리는 이런 행사 대통령실 행사 아니면 안 한다니까요. 무슨 무관중 행사에서 그런 팸플릿 누가 만들어요? 그런 사례가 어디 있어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위원님, 제가 방송계에 35년을 몸담았습니다. 그런 현장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KTV라는 회사가……

○민형배 위원 이것 조회 수가 710회예요. 지금 거의 다섯 달 지났는데 35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것은 결론론적인 얘기지요. 프로그램 기획이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지요.

○민형배 위원 35년간 방송 일 하셨는데 이러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민형배 위원 국정홍보해야 되는 것 갖다가 김건희 여사 홍보하는 데 쓰셨냐고요? 그런 것에 쓰셨냐고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지요, 저희는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서비스를 했지요. 그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심플한 공연이라면……

○민형배 위원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얼마나 국민들의 분노를 살지 전혀 짐작이 안 되세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민형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민형배 위원 김건희 대통령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 그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저희는……

○위원장 전재수 민형배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장님, 이 자리는 국정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되묻는 자리는 아닙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리고 하실 말씀은 충분히 하시되,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시 되 조금 절제된 자세와 태도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국민의힘의 박정하입니다.

심오택 사감위원장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요 지금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님 포함해서 15명 이내에 있고 당 연직으로 계신 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의 업무 협조를 받아서 사감위원회가 운영 이 되는 구조인 거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전체 정원, 현원이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한 오십여 분 정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인력이나 예산이나 되게 한정돼 있겠네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그렇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엄격하게 직제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마음대로 규모를 늘리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이 잘돼야 되는데 그나마도 굉장히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 보겠어요.

사행산업 해 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요. 경마도 있고 경륜, 경정, 스포츠토도 등 이 있는데 현재 각각의 구매 상한한도가 10만 원 이하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운영이 제대로 되나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아무래도 구매가 현금이랄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현장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저희들이 감시, 현장 지도 감독도 하고 사업자가, 건 전구매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지금 한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현장 점검이랄지 건전 구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지금 위원장님 답변을 열심히 주셨는데요, 현장을 한번 볼게요, 현장.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경륜·경정 장외지점에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체 한 열 분 정도 되는 분들이 전국의 한 1만 5000개소를 현장 점검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어려움은 있는데, 저기 PPT 한번 봐요. 우리 보좌진들이 나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정 경주권을 무인발매기에서 무인발매를 받습니다. 한 장소예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 가서 무인 말고 유인으로 발매할 수 있는 것을 신청했더니



또 하나 줘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무인으로 10만 원, 유인으로 10만 원 받아요.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만약에 저 우리 보좌진 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이게 걸려져서 일주일에 10만 원밖에 못 산다라는 시스템만 만들어도 저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실명 구매가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자카드랄지 온라인 구매를 권장하고 있고 또 평가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많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어떤 식의 개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구매 한도도 굉장히 오래전에 설정된 그러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현실화하도록……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산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조금만 고민하면, 저거 한 장소에서 일주일에 아니면 여러 구매 장소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쳐도 신분증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만 그 안에 넣어 구매가 안 될 거예요. 그런 고민 왜 그 안에서 안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었어요.

또 하나 여쭙게요.

이진식 사무처장님 계시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이진식** 예.

○**박정하 위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비슷한 유 여쭙보겠습니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 요즘 많이 나오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이진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얼마나 파악하고 계세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이진식** 그것은 저희 직접 관리감독의 손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하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10만 원 이상 아무 데서나 막 더 살 수 있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일주일에 살 수 있는 시스템도 그냥 방치, 지금 이렇게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 단속하는 것도 손이 안 돼서 못 하고 있고, 이게 실정이에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이진식**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현장에 가서……

○**박정하 위원**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이진식** 가능하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관계부처와 지금 매출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좀 고민하면서, 계속 위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박정하 위원** 아니,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 하는데 무슨 매출액과 관련이 있어요, 해당 업체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이진식** 아니, 앞서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민간에서 지금 예측번호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정확한 행정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정하 위원 파악이나 이렇게 되면……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해서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가 막 있는 것은 방심위에 업무 협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이진식 예,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던져 놓고 나면 한 달 두 달 지나야 뭔가 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이진식 예, 방심위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는 거고.

또 하나 더 할게요.

해외복권에 대해서는, 해외복권 자체를 구매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적법해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이진식 해외복권은 불법입니다.

○박정하 위원 불법이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이진식 예, 저희가 대법원에 가서 이겼습니다.

○박정하 위원 대법원 가서 이겨…… 법원 판결은 그렇게 됐는데 사감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체크하고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이진식 저희 사감위에서도 현장 방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위반되는 사례는 경찰과 또 우리 유관기관들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가 문제를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샘플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복권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방식, 두 번째는 해외복권, 세 번째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관련해서 사감위가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냥 방임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 동의하세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이진식 위원님, 방임은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계약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지금 인력이나 예산이나 또는 사업자의 경영 상태나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저희도 제4차 종합계획에서 엄청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질의 정리하면서 위원장님하고 처장님께 다 말씀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여쭙았던 것처럼 4개 부처에서 합동해서 사감위를 지원해 줘야 돼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이진식 예,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이 관련부처가 해태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시스템을 정비해서 충분히 지금 단속이나 정비를 할 수 있는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건지 좀 따져 보셔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4차 말고 그 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하셔서 종감 전이라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위원장님, 같이 말씀드려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알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이진식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이러한 문제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멎들어 가지 않게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이진식 예, 고맙습니다.

○박정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질의에 앞서 이은우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제가 오후에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공연의 기획 의도가 뭐였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어떤 공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오경 위원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것은 엑스포 유치 기원이라는 타이틀이 있듯이 엑스포 유치 기원과 그다음에 청와대 개방에 대한 의미 부여 그리고 국악의 진흥과 발전 이런 것들을 기획 의도로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KTV, 한국정책방송원 예산이 넘쳐나나 봅니다.

역대 이런 공연은 처음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알고 계셨어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요, 그게 약간 사실과 다르고요.

○임오경 위원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역대 처음입니다. 제가 들어와서도 KTV는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예산 타령만 했었던 피감기관인데 예산이 넘쳐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영상이 1분 50초가량 나오는데 중간에 뜬금 없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해서 청와대 개방 소개 영상에 이보다 더 긴 시간을 활용하지요. 그리고……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김건희 여사가 5초 나왔습니다.

○임오경 위원 영상 다시 보시고 말씀하세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제가 보고 왔습니다.

○임오경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고 했는데 왜 자꾸 끼어드십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 주목적이 부산엑스포 유치인데 이게 지금 절차대로 했다,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8600만 원으로 4개의 업체를 쪼개서 수의계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쪼개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오경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수의계약은 했지만 쪼개서는 안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쪼개서 한 자료 다 받아서 있는데 원장님은 모르세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위원님, 쪼개기라는 것은……

○임오경 위원 다시 그것도 확인하고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쪼개기의 의미가 다르지요.

○임오경 위원 무관중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원형 테이블 어떻게 준비되었고 공연 리플릿 어떻게 준비되었고 의전인력 15명, 앰블런스까지 포함되어서. 또 뭐까지 준비되었지요? 무관중이었는데 꽃장식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관중에서 이렇게 원형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앰블런스, 의전 15명까지 다 지원 요청을 해서 하나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일반적인 행사에서 그런 정도를 갖추고……

○임오경 위원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라 무관중 행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무관중 행사에서 이렇게 원형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앰블런스, 의전 15명, 꽃장식, 준비하나요 안 하나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앰블런스는 안 왔고요.

○임오경 위원 하나요, 안 하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10월 29일이 무슨 날입니까? 올 10월 29일이 무슨 날입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바로 기억이 안 납니다.

○임오경 위원 바로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기억이 안 납니다.

○임오경 위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길거리 가다가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2주년을 맞이합니다. 아직도 유가족은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많은 인구가, 인파가 몰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정부, 무관중으로 공연하는데 앰블런스까지 불러 놓고…… 159명이 압사당하는 상황에서 앰블런스 하나 없이……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당일 날 앰블런스는 취소됐습니다.

○임오경 위원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뭘 잘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당당하게 답변하십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니깐 제가 정정……

○임오경 위원 제가 이것은 주질의가 아니었는데 화가 나서 지금 지르는 겁니다. 10월 29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말조심하시고 답변 조심하세요.

들어가십시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재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몇 %나 나와 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대통령 지지율요?

○임오경 위원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것은 제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지금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표에 나오고 있지요. 대통령 지지율을 왜 관심 있게 안 보십니까? 언론진흥재단이 대통령 지지율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할 때 신뢰도가 떨어지면 이번 기회에 싹 갈아엎어야지요. 아닙니

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대통령 지지율과 언론진흥재단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언론사의 신뢰도는 문제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 마셔야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신뢰도와……

○임오경 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대통령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역대 대통령들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47%, 박근혜 대통령은 3년째에 접어들어서 34%, 이명박 대통령도 44%였습니다. 그런데 집권 3년 차의 지지율이 20%대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한 분이세요. 이거 믿겨지십니까?

저는 이거 신뢰도가, 여론조사가 믿기지 않아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저는……

○임오경 위원 아니, 제 개인적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믿기지가 않아서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위원님 질의에 저는 답변해야 될 어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 3년째에 지지율이 20%대인 조사 결과 이것을 신뢰하시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것은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하는 것이고 그 신뢰에 관해서는 신뢰도 척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상식에 준해서 신뢰하는 것이지요.

○임오경 위원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진흥재단에서 대통령 지지율 조사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할 일이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희들이 정치적인 지지율 조사를 왜 해야 되겠습니까?

○임오경 위원 가짜뉴스 센터는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들 답변 들어 보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임오경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가짜뉴스 센터는 그렇게 앞장서서 만드시고 또 호지부지 만드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으시고, 참 일을 잘하십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사장님, 언론진흥재단에서 자꾸 감추니까 직접 한번 저희 의원실에서 떼 봤어요. 22년도에, 23년도에도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매체는 어디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임오경 위원 아니 이사장님,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2023, 2024년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매체는 어디였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MBC였지요.

○임오경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기 싫지만 MBC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런데 그 조사에서요 가장 신뢰하지 않는 부분의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해요.

김효재 이사장님, 디지털 뉴스 리포트가 비확률 표집을 사용하므로 신뢰성이 낮다고 발언하셨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임오경 위원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제가 언론·방송사 대변인도 아니고 왜 이사장님하고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됩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도 화가 납니다. 발간하면 됐고 누락시키지 않았으면 간단한 일을 갖다가 왜 작년에 누락시키고 올해는 발간을 안 하는 거냐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올해 발간한다고……

○임오경 위원 예, 국감 끝나면요. 국감 전에 왜 안 하시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발행하는 기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국감하고는……

○임오경 위원 작년에는 국감 전에 그 책자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또 이어 갈게요.

김효재 이사장님,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서는 조사할 때 비확률 표집 방법 안 씁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사용하고 있지요, 일부.

○임오경 위원 사용하고 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임오경 위원 5월에 진행한 국민의 뉴스 이용과 뉴스 회피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비확률형 표집 방법 사용하셨지요, 유사한 것?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 33%였고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서는 31%였어요. 2% 정도 오차가 날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임오경 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디지털 뉴스 리포트는……

○임오경 위원 아니, 문제가 있냐고요. 조사하셨으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희는 디지털 뉴스 리포트의 조사 방법 그 자체가……

○임오경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다 또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표본 채집에 대해서만 의문을 제기하는 건지 답답해서 제가 직접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2년 전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들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워크숍에도 참석했어요. 참석한 사람들의 결과보고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임오경 위원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지금 위원님이 띄우시지 않았습니까.

○임오경 위원 그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는 부분은 국가별, 언론사 브랜드별 신뢰도라고 말한 내용이 분명히 결과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거 확인 안 하셨어요? 확인하고 싶은 것만 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확인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거 직원들한테 빼라고 하시지요, 결과보고서에서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지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브랜드별 신뢰도를 문제 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자꾸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신뢰도를 문제 삼아서 제가 직접 이메일로, 저희 의원실 할 일 너무 많은데 직접 의원실에서 문의를 좀 했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로이터저널리즘 소장 접촉해서 ‘표본 채집 방법과 신뢰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랬더니 화면 한번 보시지요.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측에서는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사용된 비확률형 표본 채집 방법이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답변이 왔고요. 언론매체에 대한 국제적 비교 연구를 사용하는데 이 조사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연구의 신뢰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질문 답변에는 일반적으로 인식이 좋고 신뢰도도 높다고 답변했고요. 그런데 이사장님만 이 조사가 문제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임오경 위원 저희가 직접 문의했습니다. 이메일로 답변을 직접 받아서 지금 제가 여기다 띄웠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의 생각 말고요. 저의 생각은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독일에서 발행되는 미디어 전문지가 있는데요, 그 독일에서 발행되는 미디어 전문지가 바로 이 로이터저널리즘 조사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시장의 크기 이것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나타낸다, 그러니 그 기관들의 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시장 보고에 보니까요 한국의 카카오톡 이용률을 저희들 시장조사기관에서는 약 한 86%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서는 한국의 카카오톡 이용률이 62%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 이십몇 % 차이가 나는데요. 그 차이의 원인이 뭐냐 하면 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포커스 그룹의 표집단, 그 표집단이 일부 왜곡되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임오경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30초만 주십시오.

제가 이사장님의 답변을 계속 들으면 그게 이사장님의 객관적인 답변이라서 제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인식이 좋고 신뢰도도 높다고 나오는데 유독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실도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의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이사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장님이 한상혁 위원장 내쫓고 방통위에서 직무대행하시면서 2인 체제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저는 이사장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신뢰도 운운하면서 포상을 받아야 될 MBC가 이렇게, MBC 언론인 길들이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 큰일 아니에요. 발간하면 됐고 누락하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이것 하나를 가지고 2년 동안 왜 이렇게 힘들게 실갱이를 해야 되는지 논쟁을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일로 저는 이사장님과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 일로 다시 한번 이사장님께 질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스트레스 받습니다. 힘듭니다. 저는 다른 것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고 싶으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결단하시고 재계약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증인은 이재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정진섭 GKL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최지우 변호사, 하종대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등 총 네 분으로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중 최재혁 전 KTV 방송기획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인은 김규섭 건진사이다 유튜브 채널 대표,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 등 총 세 분입니다. 참고인 중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이사는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출석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원 위원께서 신청하신 이재진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재진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계원 위원께서 신청하신 정진섭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정진섭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문석 위원께서 신청하신 최지우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최지우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문석 위원과 이기현 위원께서 신청하신 하종대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하종대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문석 위원께서 신청하신 김규섭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김규섭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계원 위원께서 신청하신 전대식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전대식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께서 신청하신 조호연 참고인은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진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재진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증인 이재진

증인 정진섭

증인 최지우

증인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

방송보도부 조대익

○위원장 전재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기현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이기현 위원 아침 오전 회의 때 저희가 동행명령장을 두 분에게 발부를 했고요. 한 분은 지금 오신 것 같고, 최재혁 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은 본인이 어제 입원했다고 하는 병원 측에 저희 행정실 직원들이 도착을 해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병원 측에 입원호실도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지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행명령장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병원 측에 최재혁 방송기획관, 현 홍보기획비서관이 본인이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그리고 어느 호실에 있는지를 알리면 자기가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할 때에는 국회증·감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최재혁 비서관의 이런 태도는, 최재혁 비서관은 더욱더 국법의 중요성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핵심 비서관입니다. 국회를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국회증·감법을 위반한 최재혁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이름으로 반드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야 사이에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서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엄중하게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러면 김재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이기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최재혁 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도록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은우 원장이 아까 오전에 민형배 위원 질의 시 말했던 발언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35년간 방송업계 근무 중 무관중임에도 리플릿을 비롯한 의전물품을 구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종합감사 전까지 이은우 원장이 방송업계 근무 35년 중에 자기가 경험했던 사례와 KTV 개국 이후에 동일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찾아서 본 위원에게 증빙을 해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증으로 위원회에 고발 조치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한국정책방송원장님,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김재원 위원님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위원장 전재수 다음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오전에 관광공사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 5000억을 쓰는 관광공사에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위원장께서 오전까지 자료를 보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 왔습니다. 관광공사 직원이 우리 방에 와 가지고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예산 5000억을 사용하는 관광공사 그리고 각종 비리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관광공사의 사장을 뽑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의 10개월 동안 비워져 있던 사장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 자료들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줄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공사가 이미 9월 12일에 상급기관에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게 말 그대로 언론에 새면서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내정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자료냐 하면 조선일보 전 주필 김대중 씨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강훈 그리고 김건희로 이어지는 KKK 라인에 의해서 아리랑TV 사장이 임명되는 과정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훑어봐야 되겠지만 5000억을 사용하는 관광공사 사장의 임명 과정, 선임 과정이 아주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아는데 국회에서 모른다?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시간 안에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내 줘야, 이후 증인 질의가 끝난 이후에 관광공사 할 때 다시 제대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강력하게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관광공사 사장직무대리인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위원장 전재수 9월 12일 날 상급기관에 최종 후보자 명단을 추천한 것은 사실입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강훈 전 비서관이 내정된 것도 사실입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양문석 위원님 말씀을 양보를 해서 최종 후보자 추천, 누가 한 명이면 단수면 단수 아니면 3배수면 3배수 이것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그 숫자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아니아니, 어떤 분들이 됐는지.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위원장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절차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위원장 전재수 좋습니다.

그러면 직무대리님, 단수로 추천이 됐습니까, 3배수로 됐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단수는 아닙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복수네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가 공사에서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모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9월 12일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중순입니다. 9월 12일에 상급기관에 복수의 명단이 전달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저는 신뢰하기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는 단수의 명단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12일입니다, 한 달 전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발표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연기되고 또 연기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정감사 끝나고 사장을 발표하겠다, 다른 표현을 쓰면 국정감사 피하고 발표하겠다 그리고 현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집중적인 언론 보도, 폭로 보도들의 소나기를 피하고 발표하겠다, 지금 이러한 정치적 의도와 시기적 의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모 절차가 진행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이미 공모 절차는 다 진행됐어요. 그리고 확정됐어요.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이걸 왜 관광공사 사장직무대리가 판단을 하지요?

○위원장 전재수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사장직무대리님, 단수 추천은 아닌 거지요? 확인된 겁니까? 복수 추천인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배수 추천을 했고요. 단수 추천이 된 게 확인되면 제가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요, 국정감사 증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장직무대리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공모 절차 중에 있고, 3배수가 추천이 됐으면 1명만 되고 나머지 두 분은 떨어지게 되는데 이분들 자료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이게 개인의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석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국정감사 끝났다 그래서 국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체위 상임위도 열리고 또 현안이 있을 때는 현안질의를 여야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이 조금 중재를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모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끝나고 상임위도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공모 절차 전반을 우리 문체위가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보고 지켜보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일반증인과 참고인분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양문석 위원님 보충질의시간에 해 주시고 출석해 계신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이재진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이 속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12년 출범해서 서약사 848개 매체 대상으로 인터넷 기사 광고를 심의합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재진**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의를 통해서 적발하는 기사형 광고 개수가 평균 1362개입니다. 26% 수준입니다. 매체당 연간 1.6건의 기사형 광고가 적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치는 현실을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PPT 화면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증인, 이 기사가 광고처럼 보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칼럼 기사로 보이지요? 하지만 광고입니다. 중앙일보는 기사 게재 대가로 광고료 3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아일보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광고처럼 보이시나요? 3300만 원, 같은 가격의 기사형 광고입니다. 기자 이름을 달아서 버젓이 기사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부산시 내부 보고자료입니다. 기획기사 명목으로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각 3300만 원, 한국경제에 2200만 원을 집행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다음 PPT 또 한번 보시지요.

부산시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총 1억 3200만 원 광고비를 집행했습니다.

증인, 언론광고자율심의기구의 위원장으로서 이런 행태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증인 이재진**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고요.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든 기사형 광고는 독자의 권익 보호나 저널리즘의 윤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제재나 또는 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제재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증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국언론재단 김효재 이사장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기사, 광고처럼 보이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기사처럼 보입니다.

○**김재원 위원** 기사처럼 보이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본 위원은 언론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이런 기사형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인 국민을 기만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재단과 문체부는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부산시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하면 확인을 못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할 수 없다고 말만 하지 말고 관련 법령 개정해서라도 받으십시오. 명세서는 받는데 다른 자료는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 기사형 광고를 집행하고도 허위로 제출하면 그 행위는 재단에 대한 업무 방해이자 정부광고 집행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사장, 종감 전까지 이런 문제 발생 원인 포함해서 재발방지방안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울러 문체부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 문체부가 함께 검토해서 방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하종대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KTV 사장 언제 그만뒀지요?

○**증인 하종대** 올해 1월에 그만뒀습니다.

○**양문석 위원** 올 1월에?

○**증인 하종대** 예.

○**양문석 위원** 그리고 영등포갑에서 준비하다가 부천병에서 총선 출마하셨지요?

○**증인 하종대** 예.

○**양문석 위원**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증인이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KTV의 개방적 콘텐츠 정책과는 달리 김건희 여사에 비판적인 유튜브 영상을 신고 및 고소한 사실이 있지요?

○**증인 하종대** 예.

○**양문석 위원** 내용을 아십니까, 가장 먼저 고소했던 내용을, 삭제했던 내용을?

○**증인 하종대**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합니다.

○**양문석 위원** 최초에 삭제한 영상 제목이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유지를 영어로 썼지요, 유지(Yuji). ‘유지 삼창의 논란 김건희, 유지 삼창 윤석열 캐나다 교민 간담회’ 이러한 내용들을 다수 삭제하셨지요?

○**증인 하종대** 예.

○**양문석 위원** 이 영상들은 누구의 심기를 건드리는 영상들입니까?

○**증인 하종대** 누구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라기보다는요 그것은 우리의, 한국정책방송원 홍보의 기본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문석 위원** 한국정책방송원, 아리랑TV의 기본 방향과 다르다?

○**증인 하종대** 아리랑TV가 아니고요. KTV입니다.

○**양문석 위원** 예, KTV. 제가 아리랑TV에 오늘 꽃혀 가지고, 죄송합니다.

KTV의 정책 방향과 다르다…… 정책 방향과 다르다고 저작권을 가지고 시비 걸 수 있나요?

○**증인 하종대** 만약에 우리가 단독으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의 정책 방향하고 일관성 있게 같은 방향으로 썼을 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삼자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이 있을 때는 그것을 허락 없이 사용할 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저작권은, 공공저작물은 제작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저작권법이, 그렇지요?

○**증인 하종대** 아니, 그런데요……

○**양문석 위원** 아니요, 그렇지요?

○증인 하종대 예.

○양문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정책 방향과 다르다고 삭제 요청을 하고 고소를 한다고요?

○증인 하종대 당연하지요. 해야지요.

○양문석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됩니까?

○증인 하종대 아니,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기관인데 그것을 왜곡해 가지고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요.

○양문석 위원 정말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이해가 없는 태도고요.

○증인 하종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다음에 저작권과 그다음에 KTV와 관련된 영상은 법에 정한 대로 제작진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국가재산입니다. KTV 사장이 정책 방향과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하종대 그런데 다릅니다.

○양문석 위원 KTV 내부에서도 이런 삭제와 고소 주도 과정에 있어서 불만이 컸고 해당 업무를 막 터뜨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하종대 불만이 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양문석 위원 예?

○증인 하종대 내부에서 불만이 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양문석 위원 내부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했었어요.

○증인 하종대 저에게 그런 불편을 어느 직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원장한테 그렇게 이야기 못 했겠지요. 위에서 내리찍는데 당연히 원장한테는 말을 못 했겠지요.

○증인 하종대 그건 위원님의 추측입니다.

○양문석 위원 추측해 볼까요? 명단 한번 해 볼까요?

○증인 하종대 저한테 어떤 분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언제.

○양문석 위원 좀 이따가 그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고소 문제를 계속해서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고소 어떻게 시작했지요?

○증인 하종대 대통령 부부를 우리의 영상을 가지고 우리의 홍보 방향과 다르게 희화화하거나 비방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양문석 위원 누구한테 확인을 요청했어요?

○증인 하종대 우리 담당 실무 간부들한테……

○양문석 위원 실무 간부 누구예요?

○증인 하종대 거기 온라인을 담당하는 곳이 있으니까……

○양문석 위원 정확하게 어떤 부서예요? 온라인을 담당하는 어떤 부서요?

○증인 하종대 방송영상부가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방송영상국? 방송영상국이에요?

○증인 하종대 지금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그 담당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 가지고 또 위증했다고 그런 얘기 할까 봐 확인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양문석 위원 아무 문제가 안 되나요?

○증인 하종대 예.

○양문석 위원 아무 문제가 되지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저작권을 남용했는데, KTV 개설 이래 최초의 국민을 고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셨어요.

○증인 하종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문석 위원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지시에……

○증인 하종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양문석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 조금 들어 주실래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지시에 따른 KTV 직원들 또한 공선법 위반 문제에 직면합니다. 공무원의 공선법 시효는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증인이 그 지시를 해서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한 거예요.

○증인 하종대 그것은 위원님의 개인 생각입니다.

○양문석 위원 개인 생각이 아니고 저희들이 증언과 증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서로가 입장이 다른 차이예요. 그렇지요?

10월 25일 날 최지우 변호사가 KTV에 오지요?

○증인 하종대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온 건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날 고소 이야기하지요?

○증인 하종대 고소 이야기요?

○양문석 위원 예.

○증인 하종대 인사차 왔습니다.

○양문석 위원 인사차 왔어요? 그날……

○증인 하종대 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차 온 거지요.

○양문석 위원 그래요,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증언하고 크게, 호되게 당할 수 있어요.

그날 아카이브팀 3명을 최지우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증인 있는 데서 불렀지요?

○증인 하종대 아카이브 3명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자리에 아마 동석했을 겁니다.

○양문석 위원 인사차 최지우 변호사가 왔는데 왜 직원을 불렀지요?

○증인 하종대 예?

○양문석 위원 인사차 최지우 변호사가 왔는데, 변호사 2명이 있는데 왜 직원을 불렀어요?

○증인 하종대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문석 위원 관련된 이야기가 뭐예요?

○증인 하종대 이러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러이런 이야기는 아까 방송영상국에다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방송영상국 이야기가 아니고 최지우 변호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나요?



○증인 하종대 제가 방송영상국, 지금 아카이브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아카이브팀이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아카이브팀한테 듣지 않고 최지우 변호사한테 듣고 그 사람들을 불렀나요?

○증인 하종대 아니지요.

○양문석 위원 그러면요? 갑자기 최지우 변호사하고 증인하고 이야기하다가 아카이브팀 3명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의 내용이 뭐예요?

○증인 하종대 그 구체적인 이런저런 얘기까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게 김건희 관련 건진사이다 고소 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소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요? 아카이브팀에서 먼저 건진사이다 관련 동영상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최지우 변호사와 전지현 변호사가 와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깐 그 소리를 듣고 아카이브팀을 불러서 고소 준비를 시킨 거예요.

○증인 하종대 어디의 누가 얘기하더라도요 저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그러면 그것 확인하는 작업은 원장이 원래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연하지요.

○양문석 위원 그동안 KTV 원장이 그런 직무 없었어요. 그런데……

○증인 하종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상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는 의무는 KTV 원장한테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우리의 영상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아카이브팀한테 시켰는데 아카이브팀으로부터 보고받지 않고 최지우 변호사한테 보고를 받나요?

○증인 하종대 아니, 무슨…… 누구한테라도 얘기를 들으면 체크를 지시하는 거지요, 그거야.

○양문석 위원 그렇군요. 분명히……

○증인 하종대 그럼요. 위원님도 여러 제보받을 때 누구라고 그걸 딱, 누구한테만 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양문석 위원 원장님, 최초에 누구한테 지시를 했냐 했더니 방송영상국 그리고 아카이브팀이라고 하니까 아카이브팀에 지시를 했는데 아카이브팀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최지우 변호사가 와 가지고, 인사차 왔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카이브팀을 불러서 확인시키고 그리고 고소 준비를 시켜요.

○증인 하종대 단서는 있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양문석 위원 그래요?

○증인 하종대 예.

○양문석 위원 조금 관점 차이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증인 하종대 마찬가지로입니다, 위원님도.

○양문석 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그분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증인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증인 하종대 알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분이 증인이고 그분이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와 포지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답하세요.

여기에서 건진사이다를 고소하는 지시를 했어요. 그렇지요? 했지요?

○증인 하종대 건진사이다요?

○양문석 위원 예.

○증인 하종대 여러 가지, 건진사이다뿐만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우리의 영상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왜곡되고 있는 곳을 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찾아보라고 했어요?

○증인 하종대 예.

○양문석 위원 아하, 찾아보라고 하셨구나.

○위원장 전재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양문석 위원님, 이제 5분이 다 지나고 1분을 더 드렸는데 계속 진행을 하시려면 추가질의시간 3분을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양문석 위원 예, 그렇게……

참 너무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추가질의시간 3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10월 25일 날 최지우, 전지현 두 사람이 오고요 그다음에 증인이 아카이브팀 3명을 불러요. 누구나 하면 아카이브팀장, 촬영팀장, 운영지원부장을 불러요. 운영지원부장은 아카이브팀 아니지요? 방송영상국 아니지요? 촬영팀장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5일 뒤에 아카이브팀에서 저작권 침해 대응 변호사 수임계획보고서를 써요. 원장님이 두루 많은, 정책 방향, 홍보 방향과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딱 짚어서 건진사이다 고소에 대한 부분을 지시했고요. 그리고 5일 뒤에 저작권 침해 대응 변호사 수임계획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이틀 뒤에 기안자 아카이브팀장, 촬영팀장, 운영지원부장 그리고 하종대 원장까지의 최종 결재가 29분 만에 완료가 돼요, 29분. 엄청나지요, KTV? 얼마나 행정이 빨랐는지……

그리고요 그다음 날, 11월 3일 날 KTV는 최지우와 변호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 7일에 건진사이다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합니다. KTV 창사 이래 최초의 사건입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타임라인입니다.

그다음 PPT.

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카이브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최지우가 온 10월 25일 여기에, 김건희 팬카페 건사랑에서 ‘동영상 건진사이다 고소 안 합니까?’ 하는 글이 떠요. 그리고 최지우가 옵니다. 그리고 증인이 지시했던 아카이브팀에서 모니터보고서가 올라온 게 아니고 그 모니터팀을 향해서 고소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증인 하종대 누가 고소 준비를 시킨다고요?

○양문석 위원 원장이 고소 준비를 시켰다고요.

○증인 하종대 지금 보여 주신 그것 저 처음 봅니다. 그런 게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최지우한테 들었겠지요.

○증인 하종대 예?

○양문석 위원 최지우한테 들었겠지요.

○증인 하종대 아니요, 저런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카이브팀을 불렀지요?

○증인 하종대 그것은요……

○양문석 위원 대답만 해 보세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최지우가……

○증인 하종대 인터넷상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확인차 불렀습니다.

○양문석 위원 원장님,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아하고 품격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최지우가 와서, 최지우가 인사를 하러 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카이브팀을 불렀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하종대 예.

○양문석 위원 그리고 홍보 방향과 다른 데 대해서 다양하게 점검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증인 하종대 예.

○양문석 위원 그런데 증인들은, 저희들에게 제보해 주신 분들은 건진사이다를 딱 찍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 하종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보세요. 하늘에 맹세를 하든 땅에 맹세를 하든 어디에 맹세를 하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취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증인 하종대 그러나……

○양문석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그날에 건사랑에서 저게 뒀고 그리고 바로 최지우가 왔고 그리고 고소를 하고 최지우한테 그 내용을 변호사비를 주면서 위임을 합니다. 이게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증인 들어가세요.

○증인 하종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문석 위원 열 마디 해도 돼요.

○증인 하종대 위원님, 거기에 뜬, 팬카페에 뜬 것하고 저희하고 마치 연관성을 지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지시가 이루어지고 뭐가 이렇게 한 것처럼 위원님이 생각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인터넷상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라 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것을 저희는 고소 대상으로 삼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상당히 곤란한데요. 처음에 유튜브에 삭제할 때도, 그게 8월 달에 최초의 삭제거든요. 그때도 건사랑에서 그 글이 올라온 직후에 증인께서 동영상 삭제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유지 삼창 이런 것들을요. 건사랑에서 올라온 직후에

삭제를 요청해요. 그다음에 백자TV도 마찬가지로요. 건사랑에서 올라온 이후에 백자TV를 고소해요.

그런데 뭔가 증인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닌 것처럼,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하늘에 우러러 맹세를 하고 땅바닥을 향해서 맹세를 하든 내놓고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증인 하종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럼요, 거짓말 안 하셨겠지요.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신은향 예술정책관님, 좀 일어서 주세요.

지금 신은향 예술정책관이 뒤에 앉아서 껌을 씹고 있네요. 참 보기 드문 현상이네요. 위원장님, 이것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껌 씹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지금 뻗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아마 점심 드시고 졸릴 수도 있는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사과를 받아야지요. 저희도 껌 씹고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도 졸립니다. 그래도 다 참고 있고,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뒤에서 앉으셔서 껌을 씹고 있어요?

○위원장 전재수 정책관님, 제가 직접 사과하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졸릴 수 있고 장시간 앉아 계시는 게 힘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예의는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제가 이런 걸 가지고 발언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오전에서 지금까지 죽 보니까 일부 증인의 답변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오늘 특이하게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목소리를 높여서 질의를 잘하시는 우리 양문석 위원님께서도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질의를 하시는데 일부 증인께서 오히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고 또 그런 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국회에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나오셨는데 마치 질문하는 위원님들과 언쟁을 하고 말싸움을 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답변을 하는 것은 위원장님,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증인들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수고는 수고대로 격려를 하되 그러나 지적할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남은 감사시간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증인들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잘 한번 정리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조대익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작년 10월 31일 국악공연 행사 담당 PD지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행사를 담당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행사 날짜 또 행사의 장소 또 형식 그리고 참석 대상, 다 위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거지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저는 행정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에서 짚습니다.

○이기현 위원 누가 정해 줬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회의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회의 자리에는 원장님이나 기획관 다 가서 가지고 같이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원장과 기획관이 정해 준 거지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이기현 위원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참석 여부 지난달까지도 저희 의원실에 와서 계속 몰랐다고 하셨는데 그 입장 맞지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영상 하나 틀어 주실래요.

(영상자료 상영)

최재혁 기획관이 업체에게 얘기를 해 줬다고 그러는데 조대익 PD 그때 같이 들어가셨지요, 용산에?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저게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용산에 보고 들어간 적 없으세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한 번 정도, 거기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한 번 갔던 적은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 오지 않는 행사에, KTV 자체 조그마한 행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직접 가서 보고하셨다고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그때 최재혁 기획관께서 문체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에게, 이런이런 행사가 된다는 말을 들어서 와서 설명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저보고 대신 용역업체 관계자들과 가서 같이 설명하라고 그래서 한 번 갔던 적은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최재혁 비서관 같이 안 들어갔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같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기현 위원 혼자 들어가셨어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아닙니다.

○이기현 위원 업체하고?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저하고 공연업체 몇 분들과 같이 갔습니다.

○이기현 위원 직접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 오지 않는 행사에 KTV의 담당 PD가 보고를 하러 들어가셨다?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아니, 보고하는 게 아니라 공연을 설명하라는 자리

였습니다, 공연 설명을. 대통령 내외를 제가 알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위치도 아니고요. 단지 이런이런 공연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어떤 공연이 되는지 한번 와서 설명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기현 위원 KTV에서는 모든 공연을 다 용산에 보고하고 합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하위직 주무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래서 왜 들어갔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한 이런이런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와서 설명 한번 해 보라 해 가지고, 최재혁 비서관이 가서 설명하라고 해 가지고 제가 대신 갔었습니다.

○이기현 위원 대통령실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그때 정용석 행정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정용석 행정관이었어요? 보고 내용은 뭐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말 그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10월 31일 날 공연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대통령실 보고 끝나고 회사에 들어와서 누구에게 보고하셨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회사는 아무래도 제가 그때 좀 늦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다음 날 원장님이라든지, 기억은 자세히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원장께 보고했고, 최재혁 방송기획관에게 보고했지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아니요,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기현 위원 기억이 안 나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이기현 위원 원장님 보고하셨고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아니요, 그 당시에 제가 대신 갔던 게 늦게 끝나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누구한테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들어가세요.

하종대 증인 나와 주실래요.

황제관람 공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증인 하종대 KTV의 아이디어입니다. 아니, 진짜입니다. 제가 뭐……

○이기현 위원 KTV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증인 하종대 굳이 누구라고 하면요 저하고 최재혁 기획관의 아이디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대익 PD의 증언도 그렇고 KTV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서류에도 이렇게 그 당시 원장님과 기획관이 이 행사의 기획, 섭외 모든 걸 다 결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증인 하종대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기획 의도가 뭐예요?

○증인 하종대 사실 지난해 초부터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각 부처가 어떤 일

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범부처 홍보지원 TF 실무단이 있었습니다. 최재혁 비서관이 문체부에서 하는 그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어떤 걸 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아이디어 내는 차원에서 우리도 뭐 하나 해야 된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짜냈던 겁니다.

○이기현 위원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황제관람이라고 하는 건, 원장님은 그 뒤로 바로 그만두시고 경기 부천시병에 전락공천 받으셨고요. 방송기획관은 한 달 뒤에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대통령실로 갔습니다. 아까도 나오는 정용석 선임행정관, 보고를 받았다는 분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가셨고 그 행사에 있었던 신수진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으로 다음에 영전해서 갑니다.

○증인 하종대 위원님, 저기 부천시병이 어떤 지역구인지 아십니까?

○이기현 위원 잘 알지요.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다음이요.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대익 PD는 왜 대통령실에 가서 보고를 했을까요? 처음서부터 김 여사 참석은 항상 상수였어요. 10월 11일 원장에 대한 내부 보고, KTV 내부 공문인 10월 20일 보고, 마지막으로 문체부에 장소 섭외를 요청한 10월 26일 보고에도 대통령 내외는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첫 번째 보고에는 주한대사,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한다니까 말이 되겠지요. 두 번째 보고는 주한대사는 못 온다고 하니 부인, 마지막에는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로 바뀝니다.

○증인 하종대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주한대사 어떤 방식으로 초청했습니까?

○증인 하종대 초청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이기현 위원 국제박람회기구, BIE라고 하지요, 182개국이 들어가서 선정을 합니다. 여기서 엑스포 장소를 선정하는데 30명, 그중에 반을 외교대사로 선정한다는 그 기획 의도 자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하종대 저희는요 이게…… 여기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께서 국악진흥법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박보균 장관께서는 K-콘텐츠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기현 위원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설명하시면 설명이 안 되고요.

○증인 하종대 아니, 설명을 좀……

○이기현 위원 182개국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십여 개국 대사를 초청한다는 게, 제가 십여 개 대사관의 대사로 초청이 되면 저야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초청받지 못하는 대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국에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이게 엑스포 유치와 관련된 제대로 된 행사 기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증인 하종대 당연히 행사라고 할 수 있지요. 엑스포라고 하는 게 외국에 있는 여러 대사들이 협력을 해야만 저희가 충분히 유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K-콘텐츠 국악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기현 위원 왜 동문서답하세요? 182개국이 투표권을 갖고 182개국 공관이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대사들이. 다 불러서 대공원이나 아니면 녹지원에서 큰 행사를 했어야 그

의도가 맞지요. 십몇 개국을 초청하면 나머지 초청받지 못한 대사들이 과연 한국을 찍어줄까요?

○증인 하종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개방 1주년 맞춰 가지고 뭔가 KTV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기현 위원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기획 의도하고 초청 대상이 전혀 맞지 않는다니까요.

○증인 하종대 왜 맞지 않습니까?

○이기현 위원 이 의도라면 부산엑스포를 방해한 게 KTV예요. 초청을 받은 대사관들은 받고 초청받지 못한 대사관들은 뭐가 됩니까?

○증인 하종대 그것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30여 명뿐이 안 들어갑니다. 장소가 협소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초청을 하는 거지.

○이기현 위원 제가 청와대 5년 근무했습니다. 대정원, 녹지원 쓰면 300명도 들어갑시다. 왜 그 좁은 공간으로 갔어요?

○증인 하종대 그거는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장소가 좁은데, 그러면 180명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기현 위원 엑스포 유치를 KTV의 당신 하종대 원장께서 방해하셨다니까요, 유치를.

○증인 하종대 방해하지 않았습시다.

○이기현 위원 182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십여 명을 초청한 게 방해한 거지 방해 안 한 겁니까?

○증인 하종대 그게 왜 방해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거기에서 지지자를 만들어 내면 그게 더 도와드린 거지.

○이기현 위원 잠깐만요, 시간 잡아 주십시오.

자, 김건희 여사 중간에 왔다고 하는데 하종대 사장님, 늦게 오신 거 누구한테 연락받았어요?

○증인 하종대 늦게 오시는 것은 마지막까지도 저는 몰랐습시다.

○이기현 위원 끝까지 위증하실 겁니까?

○증인 하종대 위증 아닙니다.

○이기현 위원 첫날 황성운 비서관이 이 자리에 와서, 그 당시 문화체육비서관인데 하종대 원장님으로부터 그날도 계속 독촉을 받았다, 독촉을 받고 독촉을 받고 꼭 와야 된다고 해서 본인이 왔다는 거예요. 하종대 원장이 위증이거나 황성운 비서관이 위증이거나.

○증인 하종대 황성운 비서관을 오라고 하는 거하고……

○이기현 위원 황성운 비서관이 현장에 간 것이 사장님의 독촉 때문에 그날 갔다는 거예요, 꼭 오셔야 된다고 해서.

○증인 하종대 비서관을 오라고 한 거하고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기현 위원 3분 좀 추가로 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부산엑스포 영망으로 만든 KTV의 하종대 원장님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 하종대 저는 많은 부분들이……

○이기현 위원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국가의 대사를 하종대 원장님처럼 본인의 정치적 진출에 욕심이 많은 KTV의 간부들과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간부들이 망쳐 버린 행사란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증인 하종대 저의 정치적 진출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기현 위원 증거가 다 있는데, 저 위에 다 가셨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가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증인 하종대 저의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신 거요.

○이기현 위원 그래서 하종대 원장님이 전략공천을 안 받으셨어요? 최재혁 비서관이 용산에 비서관으로 안 갔습니까? 다 증거가 나와 있고. 이후에 가셨잖아요, 몇 달 안 돼서.

○증인 하종대 저는 저의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신 이기현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기현 위원 동의는 국민들이 하는 거고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셨다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증인 하종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하종대 그 자리가…… 그 지역구를 보시면 알 겁니다.

○양문석 위원 아니, 영등포갑에서 안 됐으니까 그쪽으로 밀려 간 거지요. 우리가 다 몰라요? 영등포갑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기현 위원 영등포갑에 있다가 부천병으로 가셨어요. 부천병, 소사 플러스알파인데 4개 선거구가 3개 선거구로 조정됐지요. 김문수, 차명진 거기에서 네 번 국회의원 당선되신, 수도권에서 그나마 국민의힘이 힘쓸 수 있는 곳이에요.

○증인 하종대 위원님……

○이기현 위원 하종대 원장님,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민주당 조직국장 출신이예요. 그 바닥 가서 선거 많이 해 봤어요. 며칠이나 됐어요, 그 지역 가신 지? 전략공천 받아서 바로 가신 거 아닙니까? 부천에 주소지나 있으셨어요?

○증인 하종대 위원님, 영등포갑도요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라고 불리고요. 그다음에 부천병은 사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거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이기현 위원 수도권에 국민의힘 전략공천이 그렇게 사지입니까? 부천병에서 네 번 연속 국민의힘이 당선됐던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증인 하종대 최근 세 번은 계속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됐습니다.

○이기현 위원 수도권에 안 그런 곳이 있나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황제관람 공연은 KTV가 엑스포 유치도 망치고 관련된 분들의 정치적 진출, 앞으로 자기 취업을 위해서 KTV와 용산 대통령비서실에 있는 몇몇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상납한 범죄행위입니다. 최재혁 방송기획관은 적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하종대 원장도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증인 하종대 위원님, 황제가 없는 황제관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기현 위원 그러면 황후입니까?

○증인 하종대 이것은 김건희 여사께서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전부터 오시기를 바랐지만 결국은 안 오신 거고 중간에 잠시 격려하고 가신 겁니다. 국악 진흥 발전을 위해서 여사께서 격려하신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이기현 위원 제가 벽에다 대고 얘기합니까, 지금? 제가 벽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PPT 봅시다.

하종대 증인,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민 순방 갔었지요? 최재혁 방송기획관 갔습니다. 본인이 승인하신 거지요?

○증인 하종대 예.

○이기현 위원 저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1호기 여러 번 타 봤고 안보실에도 근무해 봤는데 한 언론사에서 두 명 이상의 기자가 아닌 분들이 1호기를 탑승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최재혁 방송기획관이 기자입니까?

○증인 하종대 제가 특별히 요청해서 타게 되었습니다.

○이기현 위원 하종대 원장이 그렇게 세신 분이예요? KTV 원장이 ‘우리 한 명 더 태울 테니까 대통령실은 비행기 자리 하나 비워’ 하면 1호기 비워 주는 그런 자리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하종대 저도 제가 그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제가 좀 요청을 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누구에게 요청했습니까?

○증인 하종대 대실에 요청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예?

○증인 하종대 대실예요.

○이기현 위원 대실 어디?

○증인 하종대 대실의 홍보담당 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누구요?

○증인 하종대 예?

○이기현 위원 요청하셨다면서요. 누구에게 요청하셨냐고요?

○증인 하종대 누구에게요? 문체 쪽입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니까 누구라고 하는데 자꾸 문체 얘기하지 마시고요. 문체가 문체비서관입니까, 문체부입니까?

○증인 하종대 제가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이런 얘기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것은 거기에 여쭙 봐야 됩니다, 공개를 누구 이름까지 할지는.

○이기현 위원 여기 국감장입니다. 공직자들끼리 업무에 대해서 서로 상의했는데 그걸 보고할 수 없다고요?

○증인 하종대 제가 물어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종감 때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지 이름 알려 주십시오.

○증인 하종대 예.

○이기현 위원 갔다 와서 출장보고서 두 줄짜리 냅니다.

한번 띄워 보실래요?

‘시사점,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 필요하다. 방문국의 접대 방식에 대한 사전 정보 입수가 중요하다’ 이 두 줄을 쓰기 위해서 기자도 아닌 방송기획관이 하종대 원장의 지시로 대통령실 허가해서 1호기를, 그것도 의전 자리를 하나 빼서 보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하종대 저희가요?

○이기현 위원 KTV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증인 하종대 예산이 많아서 보낸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해서 보낸 겁니다.

○이기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관람 그리고 하종대 원장이 승인한 최재혁 방송기획관의 비행기 1호기 탑승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두 분께서 한 분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한 분은 청와대로 대통령비서실로 가기 위해서 로비하기 위해서 두 분이 짜고 기획해서 만든, 섭외도 하고 장소도 지정하고 날짜도 변경해 가면서까지 만든 기획된 황제관람이었고 그리고 상납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국민의 혈세 8600만 원을 썼고 KTV 그 알량한 예산 200억 중에 1억에 가까운 돈이 쓰여진 겁니다. KTV 예산을 낭비하셨고 혈세를 낭비하신 분이 바로 원장 당선이에요. 지금 이제 와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비껴가고……

국악 진흥을 위해서요? 엑스포를 위해서요?

○증인 하종대 위원님……

○이기현 위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엑스포를 방해하셨다니까요.

○증인 하종대 위원님……

○이기현 위원 제 시간이에요.

반성하세요. 책임지세요, 법적으로.

○증인 하종대 위원님, 저도 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재수 증인, 짧게 말씀하십시오.

○증인 하종대 위원님 지금까지 쪽 질의하신 것하고 마지막 결론하고 너무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결론을 내릴지 저는 궁금합니다.

○양문석 위원 증인이 평가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시비 걸러 오셨어요?

○위원장 전재수 증인, 하실 말씀 다 했습니까?

양문석 위원님……

○증인 하종대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도 된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 하셨습니까?

○증인 하종대 예.

○위원장 전재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정진섭 증인 나와 주시지요.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사회공헌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했는데 그랜드코리아레저는 GKL사회공헌재단으로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증인 정진섭 예.

○조계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해서 680억 정도가 출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정진섭 예.

○조계원 위원 그러면 GKL사회공헌재단은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사실상?

○증인 정진섭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단의 운영기준인 정관의 사업 목적은 화면의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정진섭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중국의 사막화 방지와 미세먼지 억제를 위한 중국 쿠부치 사막의 식재 사업은 이 정관의 사업 목적 중 어떤 목적에 부합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증인 정진섭 당시 저희 재단에 계셨던 분들은 판단하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사막화를 방지하고 또 기후에 대응하고 또 황사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이것이 사회공헌사업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저희 재단은 사회공헌사업을 위해서 만든 재단이고 그래서 저희 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근거로는 구체적으로는 아마 4조 사업에 대한 규정 중에서 5호에 있는 것,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도 목적사업으로 보는 그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고 보여집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PPT 또 한번 띄워 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식재 사업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식재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재단 직원과 GKL 직원들이 매년 3박 4일 중국 현지방문을 통해서 진행했지요?

○증인 정진섭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실제 나무 식재 시간은 4~5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저 화면을 보면 4~5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사막 트레킹, 나무 심기 했는데 사막 트레킹도 하고 나무 심기도 하는데 3시간 그리고 오후에 나무 심기 하는 데 2시간, 사막 트레킹하는 시간은 나무 심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까지 포함한다 해도 나무 식재 시간은 4~5시간입니다, 그 3박 4일의 일정 동안에. 나머지 시간은 전부 관광성 일정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진섭 저기가 북경까지는 빨리 가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지까지 가는 데, 내륙을 육로로 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날에 나무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 사막 등을 둘러보고 또 과거에 나무 심은 것을 둘러보고 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막에 식재한 시간이 위원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했다 하는 점도 저도 지금 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더운데 사막에서 그 정도 시간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치르면서 중국의 수행기관에 3200여만 원의 수행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더라고요. 중국의 그 단체는 사업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왜 그런 성격의 사업을 국외에서까지 수행해야 합니까?

○증인 정진섭 구조가 저희하고 미래숲이라고 하는 데하고…… 저희가 발주를 하는 것이고 미래숲이 저희 사업을 수행해 주는 기관인데 미래숲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에 있는 기관과 연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중국의 기관이 광화과기금회입니까?

○증인 정진섭 예, 그렇습니다. 거기와 연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화과기금회하고 미래숲하고 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미래숲과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비용들을 저희가 지불해 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에서 해도 될 사업을 그것도 별로 효과도 없는 사업을, 또 지금은 하고 있지도 않지요?

○증인 정진섭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연말에 보면 재단이 다음 연도 사업을 이사회에서 확정을 할 때 나무 식재 사업을 수년째 수행하고 있던 미래숲에서 제안한 사업을, 그 전에 사업이 없었어요. 2020년 사업에는 없었는데 굳이 다시 재단에서 차년도 사업 계획까지 변경하면서 이 사업을 또다시 받아줍니다.

재단과 미래숲은 어떻게,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겁니까? 나무 심는 것도 아니고 산림 관련 단체가 아닌데 그 행사까지 참석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증인 정진섭 미래숲이라고 하는 단체는 저희가 중국에 가서 이 나무 식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미래숲과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점적인 사업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국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미래숲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관계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계원 위원 나무를 심으면 나무 심기 행사를 하면 되는데 2022년 사업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세계산림총회 거기에 참석을 해요. GKL이 거기서 왜 산림총회 회의까지 참석하냐 이거지요. 다 미래숲에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증인 정진섭 미래숲이 저희한테 산림총회가 5년마다 열리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니까 참여를 하자, 자기네가 하는 부스에 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제도가 연말, 11월 달 정도에 대개 다 확정이 되고, 문체부에 보고하고 이렇게 되면 확정이 되는데요. 그때 저희한테 이것을 같이 하자고 제안한 것이 12월 달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저희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과 이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하려고 했던 21년도에 이 산림총회가 무산이 되고 다시 1년 연기가 돼서 22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사업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 5년간에 걸쳐서 심은 노력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홍보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재단에서 판단을 했고 그러면 그 사업이 연기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업 계획을 잡아서 이것을 해 보자 이렇게 뜻을 모아서 다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보면 미래숲과의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나요?

**○증인 정진섭**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장으로 와 가지고 중국과의 사업을 계속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의 취지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하고의 왕래가 어렵고 협조가 잘 안 되는 속에서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중단, 그러니까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못 하는 것으로 해서 중단 형식으로 미래숲에 통보를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미래숲과의 사업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증인 정진섭**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은 없고, 그러나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왜 미래숲과의 사업을…… 지금은 국내 나무 심기를 하나요?

**○증인 정진섭** 그것은 강릉 산불이 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에서도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해 봐야 된다는 판단을 갖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런 사업들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미래숲과 함께한 것은 사실이고요. 미래숲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과 또 우리 봉사단이 가서……

**○조계원 위원** 중국의 나무 심기를 위해서 불가피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시행된 사업을 유지 및 확장하기 위해서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 제6조 5항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 선정된 단체 외의 단체가 추진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저해되거나 목적과 전문성이 달라지는 경우 이걸 계속해서 기존의 업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신설했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특혜 시비를 부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미래숲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계속하기 위한 꼼수까지 부리는 겁니까?

**○증인 정진섭** 지정기탁이라고 하는 계약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조계원 위원** 조항이 없었는데 조항까지 신설하면서 미래숲하고 계속해서 지원하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증인 정진섭** 제가 증인으로 이 자리에 오기는 왔는데 위원님, 제가 22년 말에 이사장으로 왔고 그 전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해서 이 규정이 왜 그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들어가서 이 사정을 직원들과 잘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부에서 감사를 해 보거나 감사를 받아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운영에 대한……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인가요, 혹시 나오셨나요?

전혀 지금까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진행해 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증인 정진섭** 회계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요. 또 저희 안에 감사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조계원 위원** 그러면 감사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증인 정진섭** 예, 알겠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저희가 저희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을 받는 자리는 그동안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있는 기간 중에는 저희 주무부처나 이런 데서 감사를 나왔던 기억은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받을 용의는 있으시다 이거지요?

○**증인 정진섭** 저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기관입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체부의 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냐 이거지요.

○**증인 정진섭** 저희가 용의가 있고 그러지는……

○**조계원 위원** 지금 미래숲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특혜 시비가 있고 조항의 변경을 통해서까지 끝까지 미래숲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감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증인 정진섭** 예, 감사 결정은 하시는 분 쪽에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저희가 수용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계원 위원** 문체부 담당자님, 아직 자리에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조계원 위원** 좀 감사해 보시고 감독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인, 전국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님.

○**위원장 전재수** 조계원 위원님, 시간이……

○**조계원 위원** 1분 쓰고 나서 3분 또 쓰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렇게 하시렵니까?

○**조계원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조계원 위원님, 보충질의시간 3분을 추가해서 쓰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앞으로 나오시지요.

○**참고인 전대식** 예.

○**조계원 위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로서 자율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언론진흥기금을 사용해서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 신문윤리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보조금이 연간 8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신문윤리위원회의 경우에는 2021년에 ABC 부수 조작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부

광고의 사회적 책임 지표에 신문윤리위의 주의, 경고 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언론 자율규제 기구로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제재의 실효성이 없고 관성적인 윤리심의를 해 가지고 심지어는 신문윤리위원회가 언론사주들의 면피용 단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보조금을 받는 대표적인 언론 자율규제 기구입니다. 신문윤리위가 자율규제 기구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신문윤리위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전대식 신문윤리위원회에 일단 회원사가 한 130개 정도 되는데 실제 신문 보도나 일반 기사에 관련된 제재를 통해서 신문윤리를, 시장질서를 잡아 가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밑의 제재가 주의 그리고 경고 그다음에 경고가 누적이 되게 되면 과징금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주의 처분에 대해서 과연 현장에 있는 신문사업자들이 그 주의를 통해서 얼마나 신문윤리를 자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자정노력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아울러 경고나 또 최고 금전적인 처분인 과징금 처분 역시 저희들이 알기로도 수년째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사업자도 이런 제재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못 느끼고 현업에 계시는 기자분들도 신문윤리위원회 제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제재를 가하더라도 솜방망이 아니고 그냥 솜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해서 문제인 정부 시절에 신문지표 관련해서, 아까 ABC 부수 말씀하셨지만 그 ABC 지표가 실제 신문시장의 정량적인 지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오랫동안 문제 때문에 신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윤리 점수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신문윤리위에서 말했던 방금 말한 제재나 그런 경고들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원래 제재에 대해서 그다지 실효성이 없었고 실제 또 이것을 행사하는 윤리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솜방망이가 아니라 솜처럼 행사하다 보니까 사실상 현장에서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2023년 기준으로 보면 445건의 제재 중 442건이 주의 조치더라고요. 주의 조치는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이고 아무런 제재가 안 되는 조치다 이거지요?

○참고인 전대식 예.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면피용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맞겠지요?

○참고인 전대식 예.

○조계원 위원 그러면 신문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이런 것들에 대한 언론계의 평가, 그리고 언론재단으로부터 매년 8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신문윤리위가 과연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전대식 그런 문제 제기에 앞서 가지고 신문윤리위원회에는 이사장이 계시는데, 지금 서창훈 전북일보 대표시고요. 3년 전에 이분이 초임으로 이사장에 선임되었을 때, 실제 언론인 대표로서 언론인 시절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이 되게 많았습니다.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서창훈 이사장의 퇴진을 걸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방금 말씀처럼 제재의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문위를 대표하는 이사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그냥



문제가 많고 또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여러 차례 자신이 가진 권한을 행사하면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윤리위원회 제재에 대한 실효성도 없다뿐만 아니라 이사장에 대한 기본적인, 한국 신문에 대한 윤리를 책임지는 기구의 대표께서 실제로 전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인사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신문윤리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조속히 사퇴를 촉구했으나 또다시 연임이 되는 바람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물 건너간 거고요.

결과적으로 신문윤리위원회의 예산이 지금 지난해까지는 7억 5000에서 8억 갔다가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내년에 13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계원 위원 답변을 간결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전대식 예.

○조계원 위원 서창훈 지금 현재 신문윤리위원장이 재선이 됐다 이거지요?

○참고인 전대식 예, 연임됐습니다.

○조계원 위원 누가 재선을 시켰을까요?

○참고인 전대식 일단 이사회에서 호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사회에서요?

제가 확인하기로도 전북일보 사장 시절에 신문사 별관 매각대금의 임의 사용,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교 우석대의 등록금 유용 및 횡령·탈세 혐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억 원 그다음에 신문사 최대주주의 부동산 개발사업 옹호 보도 그리고 활동가 고소, 현직 언론사 회장 신분으로 유력 정치인의 대선캠프 상임대표를 맡는 등 윤리와는 부적절한 인물이다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전대식 언론계 현업 종사자들에게 그 평판이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안을 좀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특히 지금 지역언론들이, 부산이시지요? 지역언론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참고인 전대식 신문윤리 관련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조계원 위원 아니요, 지금 신문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나 지역언론의 발전 문제에 대해서.

○참고인 전대식 일단 지금 내년 예산이 13억 정도로 아마 5억이 증액된 상태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장에 신문윤리위원회 제재가 전혀 어떠한 신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 혈세인 8억가량의 돈들이 실제 지금 실효적인, 정책적인 시그널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줄거나 분명히 수정될 요소가 있는데 언론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지역신문법이 올해 20주년이 되는 해인데 지역신문이 나날이 지금 힘듭니다. 특히 코로나 정국 때 지역의 수익 악화에 따른 기자 인력들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조건의

감소 그리고 지역인재, 지역 기자들의 어떤 역량들이 막 줄면서 지역신문 전체가 지금 악순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나 지역신문 종사자들은 꽃이 피는 순서대로 아마 지역신문이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역신문법이 20주년이 되었지만, 20주년 전만 해도 매년 예산이 250억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이 80에서 9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지금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법이 상시법이 되었지만 예산 증액에 대한 문제가 많고요.

아울러 지역신문법 관련된 기금 상당수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지금 유입이 되다 보니까 관리받고 있는데 조속하게, 지발위가 20주년이 된 만큼 지역신문 안에 독립적인 사무국 설치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이고 와닿는 지역신문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조선중앙, 동아나 이쪽으로 가는 직접 지원금은 연간 4억 원 정도로 평가가 되는데 지역에 비해서는 과도하게 지원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참고인 전대식** 그게 직접 지원이라 해 가지고 신문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노년 계층들에게 실제적인 신문을 제공하는 사업들인데 오히려 지발위 예산들은 매년 그게 직접 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금이 줄고 있고요. 오히려 방금 말씀하셨던 전국 일간지의, 특히 보수지 쪽의 구독료 부분들은 거의 현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언론재단의 김효재 이사장님, 지금 얘기를 들으셨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조계원 위원** 지금 지역신문에, 지금 지방도 소멸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지역언론까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을 좀 지원해야 될 것 같고 이미 제도적으로 확보된 지역신문발전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 문제는 조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신문협회 쪽에서도 지역신문 살리기에 좀 나서 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제 생각도 같습니다.

사실은 지역신문이 소멸하면 그 지역의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하고요. 지역신문은 이를테면 풀뿌리민주주의와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 지역신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사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머리를 맞대고 있고요. 그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저희 재단의 힘이 미치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지역발전기금에, 지역언론발전기금 있지요. 이것의 언론재단 위탁이 아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독립 사무국 설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문제는 조금 따져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문제는 기구가 생길수록 그 기구가 생기면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자면 이상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기구가 운영되는 쪽에서 보면 과연 효율적이나 하는 것은 조금 더 따져 봐야 되겠고요. 20주년이기 때문에 지역신문 발행인들 그리고 사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외계층 구독자 서명을 일일이 받으러 다녀야 되고, 1년

단위가 아니라 9개월 단위로만 신문을 보내 주면 나머지 3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의 행정의 비효율적인 문제나,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히려 언론재단의 직접적인 관여 보다는 독립적인 사무국 설치를 통해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문제는 지역신문 대표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게 더 최선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계원 위원 마지막으로 참고인,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고 가시지요.

○참고인 전대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신문이 꽃피는 순서대로 폐업을 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지금 지역신문법 만든 지 20주년입니다. 이 법을 만들 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 하나 그리고 옥석을 가려서, 신문사를 폐간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신문을 진흥해서 흔히 말하는 나쁜 신문이나 잘못된 지역지가 무너지는 그런 식의 원칙적인 법취지를 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사실 예산 지원 자체가…… 지금 그 사이에 환율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20년인데. 오히려 예산 자체가 줄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예산 증액에 대한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 지역신문의 가장 큰 위기는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신문을 보지 않으면 신문 자체 콘텐츠가 유통이 돼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지역지가 가 있는 것은 정말로 1% 정도밖에 안 되는,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광주에서, 전남에서, 강원에서 뉴스를 만들어 봐야 이게 포털에 유통 안 되는 순간에 강원 지역뉴스가 사라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역신문법의, 다른 정책적 지원의 증액이 필요하지만 하나는 지역신문 유통구조에 대한, 유통플랫폼에 대한 생태계 구축들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언론재단에서 연구와 검토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전대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오늘 KTV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김건희 여사와 엮어 가지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야당의 그런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질의를 보면 말 그대로 진짜 내로남불이고 선택적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 정부 시절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KTV의 홍보영상들을 보면 정말 이게 국정홍보를

위한 채널인지 김정숙 여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지 구분이 안 갈 지경입니다. 5년 재임 기간 동안 김정숙 여사 영상만 한 93건이 게시가 됐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고요. 특정 달에는 한 달에 무려 8건, 6건씩 이렇게 건수가 많이 제작돼서 게시가 된 겁니다.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한 시기인데 도대체 국빈 방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건지 김정숙 여사가 한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홍보를 보면. 또 여러 가지 홍보 내용들도 보면 이걸 꼭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발리우드 영화 관람, 후마운 묘지 방문, 후마운 묘지는 타지마할 다음으로 인도의 관광 명소입니다. 케이팝 콘서트 현장 또 인도 영화 ‘당갈’ 주인공 만난 것.

그리고 싱가포르에 보면 이네이블링 빌리지 방문해서, 이것은 참……. 굉장히 내용도 보면 정말 미사여구 잘 써 봤습니다. 카피나 섭내일이 보면 기가 막힌데 여기 이네이블링 빌리지 방문해서는 카피가 ‘이것도요. 저것도요. 다 주세요. 김정숙, 싱가포르에서 쇼 핑 본능 폭발’, 아마 무의식 중에 김정숙 여사의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 같습니다.

2018년 11월 달에도 보면 어르신들 요양병원을 방문하는데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방문합니다. 11월 15일 날은 싱가포르 요양병원 방문했다가 불과 며칠 뒤에는 프라하까지 가서 노인복지요양원 찾아가서 방문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KTV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화면들 이런 것들 보면 워낙 이게 찬양 일변도라서 진짜 이게 조선중앙TV의 김정은 찬양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런 KTV의 동영상들이 문재인 정부 때 남발하고 있었는데도 한 번의 비판도 없다가 지금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비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제 참고인으로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먼저 도박없는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조호연 청소년 도박 근절을 목표로 아이들 한 40명이랑 회원 600명이랑 해 가지고 저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학부모들이랑 운영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김승수 위원 오늘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박시장 규모가 한 10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200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규모도 갈수록 커질 뿐만 아니고 특히 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 또 그렇게 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청소년 숫자가 몇 배씩 급증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학생들까지도 보면 최근 2~3년 사이에 2배, 3배씩 도박을 접하거나 아니면 치유까지 받아야 되는 또 그리고 범죄로 검거되는 숫자가 늘고 있는데 청소년 도박이 특히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조호연 정부 대책이 아이들의 치유, 예방에만 집중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이트를 없애야지 도박중독된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도박 배우는 아이들은 매년 증가하는데 그러려면 치유랑 예방하는 비용이 또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계속 늘어나고 아이들도 계속 늘어나고. 언제까지 이럴 게 아니라 중간에서, 지금은 이제 근절이나 박멸을 얘기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법 사이트를 없애고 박멸시

킬지…… 박멸은 안 하고 매년 예방, 치유만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승수 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박, 특히 온라인도박에 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고인 조호연** 불법 OTT랑 불법 웹툰이 가장 많습니다.

○**김승수 위원** 불법 OTT 또 불법 웹툰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하고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어떻게 이런 사이트가 주된 요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참고인 조호연** 보통 지금 불법 OTT가 메이저급이 한 10개 되는데 그 1개당 동접자수가 30만에서 50만씩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중에는 청소년도 많겠지요. 많이 모인 애들 중에서 다시 또 도박으로 유입되는 수가 상당합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이 대표적인 불법 OTT 사이트인데 대부분 불법 도박광고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너 하나당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 3억~5억을 여기 OTT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을, 돈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OTT 사이트 운영자의 연간 수익이 한 1000억~1500억 정도 발생한다고 그러지요?

○**참고인 조호연**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도 한 3억~5억 광고비를 주고 나면 1년에 도박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 한 700억이 넘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60억 정도?

○**참고인 조호연**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차단할 안 하면 계속 청소년의 도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참고인 조호연**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인 조호연**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저 안에 있는 충전계좌를 보여 줍니다. 입금하라고 보여 주는데 그 충전계좌를 은행에 제보를 해서 지급정지를 시키면 됩니다.

○**김승수 위원** 이렇게 지급정지를 제때제때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협조해서 시켜 주면 굉장히 증가 속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참고인 조호연** 예.

○**김승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조호연**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좌를 수백 개, 수천 개를 수집해 가지고 고발장을 통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카오나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고발장이 필요 없이 저희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잠글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전향적으로 하는 은행들이 한 두 개씩 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도박없는학교에서 그동안 노력해서 가지고, 특히 카카오뱅크라든지 가상계좌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정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반은행들은 좀 미흡하다는 거지요?

○**참고인 조호연**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일반은행이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금융감독원 같은 그런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면 훨씬 더 차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정부기관에서 어떤 쪽에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참고인 조호연 은행권에서만 협조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1년 정도만 신경 쓴다고 그러면 불법도박 한 95%는 없앨 수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사감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금융기관,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 내 대응팀을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정지랄지 그다음에 신속하게 사이트를 차단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대응팀 구성을 했는데 운영이 영 적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지금 세 번밖에 안 한 것 아닙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회의를 했고 실무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법이 지금 제정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일단 계좌 동결하는 방안이 있고 불법 사이트 차단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불법 사이트 차단도 방심위에서 심의를 하고 차단하는 데까지 보통 한 2주일 가까이 걸린단 말이지요, 보면.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방송법 개정안 낸 것 아닙니까, 서면심의 해서 바로바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해서 저희들도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신속한 차단이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저도 10월 10일 날, 며칠 전에 방심위 위원장하고 직접 만나 가지고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 증원이랄지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예방을 위한 학생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도박예방 콘텐츠 제작해서 올리는 것들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부분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지을 수 없습니다. 도박예방 콘텐츠영상 같은 경우에도 조회수가 2~3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저도 3분 당겨쓰겠습니다.

2~3년 전과 비교해서 예방 영상 콘텐츠 조회 수를 보면 거의 한 97% 정도는 조회수가 급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게 있습니다만, 콘텐츠 제작 예산도, 늘지는 못할 망정 영상 조회 수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것 자체가 너무 소극적이고 또 뭔가 체계적이거나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영상이랄지 콘텐츠랄지 활용방안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범정부 대책으로 여러 가지 마련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 좀 속도를 내 주시고 또 실효성, 효과성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가지고 제대로 좀 가

성비 있는 대책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조호연 교장님, 마지막으로 정부기관이나 또 우리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조호연** 제가 한 4년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부기관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 주는 부처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4년 동안 뛰어와서 성과도 많이 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좀 실망스러운 것은 지금도 IP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IP는 얘기할 때가 아니고, IP는 잠긴다고 잠기는 게 아니고 지금 구글 플레이에 VPN만 쳐도 공짜 IP 많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그것 깔고 불법도박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10년 전 얘기를, 지금 정부에서 계속 IP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그냥 모여 가지고 옛날 하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IP가 아무 효과 없다고 제가 어디 가서 계속,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하는데도 지금도 IP를 얘기하는데 IP는 초등학생들도 다 들어가서 볼 것 다 보고 불법도박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금 전문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IP 차단해 봐야 바로 하루도 안 돼 가지고 우회경로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계좌를 그대로 중단시켜서 돈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여튼 그게 제일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인 조호연** 감사합니다.

○**김승수 위원** 관광공사 직무대리님, 지금 내년도에 경주에서 APEC 행사 열리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한 20년 만에 열리는데 사실은 이게 경주로 결정된 게 굉장히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부산의 그것 할 때보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년의 잼버리 사태처럼 제대로 준비를 못 한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주가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관광으로서 명소 아니겠습니까, 보면? 보문단지 K-관광의 어떻게 보면 원조격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범부처적으로도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체부, 특히 관광공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내년에 메인 이벤트 중의 하나로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전담기관에는 저희 직원 파견 요청이 와서 파견 예정으로 있습니다. 곧 파견될 예정이고요. 전담기관에 파견하고 나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할 부분들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21개국 정상들 비롯해서 기업인, 언론인 등 한 6000여 명, 정말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어떻게 보면 한국관광의 경쟁력이 크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고 반대로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망한 모습을 보이면 관광대국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막힐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만큼

중요하단 인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유적은 물론이고 또 최근의 관광 트렌드에 맞게 보문단지에 있는 고급호텔들이라든지 또 그런 관광코스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관광공사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말씀 주신 부분 유념해서 저희 계획이 수립되면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현재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관광공사에서만 관광 프로그램을 한 3개 코스 정도 개발하는 뭐 그 정도밖에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지난번 챔버리처럼 굉장히 많은 손님들 초대해 놓고 나서 어떻게 보면 플러스는커녕 마이너스되는 우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오히려 보문단지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주뿐만 아니고 경북권,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조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찾아서 저희 주무부처 문체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신동욱 위원** 더 할 수 있지요?

○**위원장 전재수** 예, 그럼요. 잠시만요.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이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 요청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KTV의 절차 무시, 거짓 증언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 정황 속에서 여당 위원님들의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발언과 상대 위원을 깎아내리는 발언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14조(위증 등의 죄)인데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오늘 KTV 측은 의원실에 김 여사 초청 관련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고 VIP 참석을 요청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KTV 이은우 원장은 계속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 고발 조치돼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 JTBC 단독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당일 현장에 깜짝 방문한 것으로 당초부터 무관중 행사로 기획했다는 기존 KTV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은우 원장과 KTV 쪽은 초청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발언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정황에서 사전에, 지금 하종대 증인 나왔고 그다음에 최재혁 증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방금 전에 하종대 증인도 답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하종대 원장



과 최재혁 기획관 두 사람의 작품이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하는 데 있어서 조대익 PD 또한 위에서, 이 두 사람의 지시가 있어서 용산에 방문을 했다, 용역업체도 방문을 했다고 정확하게 증거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KTV 쪽 그리고 이은우 원장은 계속해서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형을 감명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저는 야당 간사로서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발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은우 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국정감사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도 많이 남았고요. KTV 원장님도 여전히 기관증인으로 앉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국정감사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응답을 하시고 만약에 국감장에서 기관증인이든 일반증인이든 위증을 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증인, 참고인들 와 계신데요. 채택하지 않은 분들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양문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 조정에 실패해 가지고 최지우 증인하고 김규섭 증인에게 질문을 못 해서 나중에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고.

김승수 위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야당의 질의’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동영상에 대해서 수없이 KTV가 올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 관련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든 부정적으로 이용하든 비판적으로 이용하더라도 당시 KTV는 일절 삭제 요구 조치나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KTV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역대 KTV 창사 이후에 국민을 대상으로 동영상 삭제 요청 조치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고소고발까지 한 이 사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야당은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질의하고 있다라는, 야당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대놓고 폄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김승수 위원 들어오시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표현인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지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입장에서는 양문석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이 부분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위원장이 확신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증인·참고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신동욱 위원님 손을 들어 주셨는데 신동욱 위원님 하시고……

김재원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원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김재원 위원님 하시고요.

많으시네요. 잠시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김재원 위원님 하시고요. 민형배 위원님……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러면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하종대 증인 잠깐 좀 나와 주시지요.

이게 사실 너무, 이번 국감이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저희가 논란을 벌여야 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연하고 몇 분 뒤에 왔습니까?

○증인 하종대 정확히 지금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연이 대략 십여 분 전후 지났을까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이미 공연이 시작된 다음에 온 것은 분명합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오신다는 걸 몰랐습니까?

○증인 하종대 예, 제가 만약에 미리 오신다는 걸 알았다면 공연을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께서 오신다고 한 공연을 제가 허락도 없이 그냥 시작하겠습니까?

○신동욱 위원 그러면 그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문체비서관도 그 자리에 와 있었고 여러 분이 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와 계신 거예요?

○증인 하종대 그분들이 처음부터 와 계셨는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께서 오실 때 왔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왜냐하면 공연 중간에 김건희 여사께서 조용히 오시고 오셨다는 어떤 소개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도 그래서, 격려를 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중간에 녹화 장면을 방해하지 않고, 끊지 않고 아마 격려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욱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황제관람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은데요, JTBC 보도를 보면 팩트는 이겁니다. 공연을 무관중으로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오셨다더라, 그리고 사진 2장인가를 제시하시잖아요. 그러면 황제관람이라는 말이 맞으려면 김건희 여사가 국악을 매우 좋아하셔서 KTV에게 지시를 해서 내가 이런 공연을 보고 싶으니 KTV에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래야지 이게 황제관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획을 KTV에서 엑스포 유치 때문에 한 건 분명합니까?

○증인 하종대 예.

○신동욱 위원 그러면 대통령 부부께서 오시길 희망한 것도 분명합니까?

○증인 하종대 그렇지요.

○신동욱 위원 그런데 안 된 거지요?

○증인 하종대 예.

○신동욱 위원 그래도 계속 참석은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은 했습니까?

○증인 하종대 요청은 했지만 대통령의 일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셨고, 저희가 할 때까지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걸로 생각을 했고요. 특히 만약에 오신다면 그날 오후에 검색대 설치라든지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안 오실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지난번에 문체부장관도 출석해서 ‘사전에 오신다는 게 공지가 됐다면 내가 갔을 것이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김건희 여사가 국악공연이 매우 보고 싶어서 KTV에 요구를 해서 이 공연이 성사가 됐었어야지, 이게 국악공연인데 그날 벌어진 상황을 보면 10분이든 15분이든 제시간에 맞춰서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분이 좋아하는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공연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증인 하종대 예.

○신동욱 위원 그런데 왜 이게 황제공연이라는 논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KTV에서 좀 뭘 잘못된 게 있습니까?

(전재수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증인 하종대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로서는 국악 진흥 발전과 그리고 엑스포 유치 기원을 위해서 청와대 개방 1주년에 맞춰가지고 기획한 이 행사가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오시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격려 방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을 위한, 개인을 위한 황제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공연 끝나고 나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증인 하종대 공연 끝나고 나서 김건희 여사께서 국악인들 격려하시고 얘기를 좀 나누시다가 가셨습니다.

○신동욱 위원 황제관람으로 기획이 됐다면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었어야지 맞는 거지요?

○증인 하종대 식사는 글썽요, 저희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준비도 하지 않았고 그런 것까지, 그것은 만약에 한다면 요청이 있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신동욱 위원 그런 것들은 일체 없었습니까?

○증인 하종대 없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논란이 됐던 부분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테이블도 설치가 돼 있고 꽃장식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무관중으로 기획했다면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증인 하종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VIP의 참석을 의지 목표로, 희망으로 삼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했었고, 나중에까지 계속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참석 여부에 대해 전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좀 준비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특히 꽃장식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게 있어서 이게 왜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거의 무산이니까 이것 취소해라 했지만 취소하더라도 돈은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가져오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 행사 기획사에 지불된 돈이었고 그게 포함된 것이었기 때문에 꽃을 놓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비용은 다 이미 지불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한 것이다 그 말씀……

○**증인 하종대** 예, 어차피 안 가져오더라도 돈은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져오라고……

○**신동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 아나운서가 그날 행사 진행을 봤었지요?

○**증인 하종대** 예.

○**신동욱 위원** 김건희 여사가 사전에 오기로 돼 있었다면 적어도 MC에게는 온다 이렇게 귀뜸 정도는 해 주는 게 맞지요?

○**증인 하종대** 그렇다고 봐야지요.

○**신동욱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재용 아나운서의 증언을 보면 ‘영부인께서 녹화 중에 들어와서 조용히 앉으셨는데 녹화방송이기 때문에 끊고 가야 하나 생각했지만 조용히 계시다 가실 것이라고 알려 줘서 소개 없이 진행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증인 하종대** 저도 김건희 여사께서 자리에 앉은 다음에 알았기 때문이에요. 조용히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하고 앉은 자리도 달랐기 때문에 제가 뭘 여쭙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아마도 이재용 아나운서는 그 순간에 수행원이나 누구로부터 소개 필요 없이 그냥 진행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대익 증인도 나와 계시지요? 잠깐만 나와 주시고.

들어가고요.

아까 질문이 좀 산만해서 제가 제대로 다 정리가 안 됐는데 조대익 PD께서는 어디까지 알고 그날 녹화에 들어가신 겁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저는 무관중인 줄 알고요, 그래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방송 녹화를 준비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만약에 영부인이 온다는 게 사전에 기획된 거라면 조대익 PD는 모를 수가 없는 지위에 입장에 있는 분이신가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아닙니다. 저는 방송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녹화 총괄PD가 아니신가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녹화입니다. 공연을 총괄하고 있는 감독은 따로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대익 PD가 다 관장을 하시기 때문에 영부인이 오는 행사와 오지 않는 행사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회의하러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그런 논의는 없었고 단지 공연에 대한 설명만 하고 오는 자리였습니다.

○**신동욱 위원** 공연에 대해서 어떤 분이 공연을 하고……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설명만 그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출연자들을 모셔 가지고 세계 엑스포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었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기획 의도가 세계 엑스포라는 부분은 분명했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맞습니다. 세계 엑스포 유치 기원이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지금 하종대 증인과 조대익 증인이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서 영부인을 위한 황제관람이라는 것으로 둔갑했는지 사실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의 증언을 계기로 이 부분은 좀 일단락하고 우리가 정말 국정감사의 큰 취지에 맞는 그런 국정감사로 지금부터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좀 확인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 질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셔서 질의를 했는데 2분 30초가 남아 있는 관계로 김재원 위원님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하종대 전 원장 나오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 신문 때 김건희 여사가 끝까지 오는 것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하종대** 예.

○**김재원 위원** 지금 방금 무관중 공연이라서, 신동욱 위원님 신문이었는데요. 무관중 공연이어서 그런데 대금을 이미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의전물품 다시 그냥 가져와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하종대**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게 들었습니까? 아까는 가져오라고 했다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증인 하종대** 아니, 제가 직접 그런 실무적인 것까지는……

○**김재원 위원** 그만하시고요.

김건희 여사 방문 소식 언제 들었습니까, 그러면? 무관중으로 한다고 했다가?

○**증인 하종대** 방문 소식이요?

○**김재원 위원** 예.

○**증인 하종대** 저는 시작할 때까지도 못 들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요, 정확한 날짜 언제인지 모르지요?

○**증인 하종대** 아니요, 그 프로그램 녹화 날짜 말입니까?

○**김재원 위원** 아니요, 김건희 여사 방문한다는 날짜요. 그걸 알게 된 날짜 언제입니까?

- 증인 하종대 방문한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 김재원 위원 무관중 계획해서 진행한다는 결정 언제 내렸습니까?
- 증인 하종대 그것은 사실은 마지막까지도……
- 김재원 위원 날짜 모르겠지요?
- 증인 하종대 오실지 안 오실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기에 다만……
- 김재원 위원 무관중으로 계획해서 진행한다는 결정 원장이 내리지 않았다면 누가 내렸습니까?
- 증인 하종대 예?
- 김재원 위원 그러한 사실 언제 알게 됐습니까? 무관중 공연하겠다고 원장이 결정 내렸습니까?
- 증인 하종대 아니요, 그런 실무적인 것은……
- 김재원 위원 그것도 아닙니까? 날짜 모르겠지요?
- 그러면 그결 결정 누가 내려서 원장한테 보고했습니까, 무관중으로 하겠다는 것을?
- 증인 하종대 무관중으로 하겠다는…… 그 마지막까지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 김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 제가 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KTV가 무관중으로 하기로 한 게, 문체부에서 10월 7일 날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무관중 공연 추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그리고 KTV가 업체와 맺은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날짜가 10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무관중으로 공연을 한다고 추진을 했는데 그때 이미 물품을 다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10월 24일 날 과업지시서를 의전물품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이미 결정은 무관중으로 하겠다는 게 10월 7일 날 났는데요?
- 증인, 재임 시 평소 녹화 현장 자주 방문했습니까?
- 증인 하종대 녹화 현장, 프로그램 현장에……
- 김재원 위원 아니요, 재임 시 다른 방송에요.
- 증인 하종대 아니, 이런 것을 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 김재원 위원 본원이 세종시에 있고 녹화 현장은 관외에 있기 때문에……
- 증인 하종대 그러나 행사가 크게 있을 때는 제가 방문합니다.
- 김재원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 자주 방문했습니까?
- 증인 하종대 밖에 나가서 행사할 때는 제가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 김재원 위원 그래요? 녹화 현장 방문과 점검을 위해서 숙박도 하시나요?
- 증인 하종대 제가요?
- 김재원 위원 예.
- 증인 하종대 안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 김재원 위원 PPT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하종대 전 원장 1박 2일 동안 출장 내고 행사 참여했습니다. 하 원장 재임기간 출장내역 보면 녹화 현장 1박 2일이나 방문한 사례 아예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 심지어 출장신청을 통상 하루 전이 아닌 10월 27일 날 미리 했습니다.

이런 증거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하종대 원장 적어도 27일 날 출장신청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 방문을 알고 있었습시다. 사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모르셨다고요? 그러면 1초 만에 김건희 여사 왔다 알게 되고 그리고 세종에서부터 날아오실 수 있습니까?

하종대 전 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에도 공연 하루 전날인 10월 30일 날 저녁 청와대 인근 식당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두 차례나 나눠서 사용됐습시다. 공연은 10월 31일입시다. 기관장이 1박 2일 점검하면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황제관람을 준비한 것입시다.

논어에 소인지과야필문(小人之過也必文)이라는 얘기 있습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소인이 잘못하면 반드시 꾸며낸다는 얘기입시다. 언론인 출신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덕분에 전락공천받고 낙선하니까 다시 나타나서 대신 돌 맞고 이번엔 어느 자리 가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시다.

○증인 하종대 위원님, 그것은 저를 모욕하는 말입시다.

○김재원 위원 제가 말할게요.

국악공연 초청자 명단 있고 본인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행사 관계자로부터 유선으로 참석 확인 연락받은 적 있습습니까? 신중히 답변하십시오. 향후 특검 수사 시작되면 책임 질 수 있습시다.

○증인 하종대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김재원 위원 국악공연 초청자 명단이 있고 본인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행사 관계자로부터 유선으로 참석 확인 연락받은 적 있습습니까?

○증인 하종대 유선으로요? 참석하라고요?

○김재원 위원 예, 아까 신문 때 출연자 명단 최재혁 전 선임행정관하고 본인이 직접 찼다고 얘기하셨어요.

○증인 하종대 현장에 가는 것은 제가 결정하는 건데 누구한테 그것을 참석하라고……

○김재원 위원 그래요? 아까 오전 제 질의 때는 모든 사람들 인적사항도 다 보고되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 쪽으로.

됐습시다.

○증인 하종대 제가 증언한 건 아닙니다.

○김재원 위원 잠시 끊고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임오경 꼭 하셔야 되는 겁니까?

○김재원 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어서 하고 하겠습시다.

조대익 증인 나와 주십시오.

청와대 출장 갔다고 했지요? 무슨 목적입니까? 아까 회의 갔다고 하셧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김재원 위원 무관중 행사 현장 점검했던 대통령실 직원 이름과 소속 무엇입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대통령실 직원은 정용석 행정관으로 기억하고 있습시다.

○김재원 위원 문체부 직원 있었습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원 위원 용역사 직원은 있었지요? 그분 소속하고 이름 무엇입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아마 몬스터하고 동북아 콘텐츠……

○김재원 위원 정확한 소속과 이름 얘기해 주십시오.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연출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시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연출하는 감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름 모르겠습니까? 이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이름도 파악 안 하고 왔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김재원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현장실사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들 방문했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실사라는 게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실사한 적이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실사를 안 했다고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설명만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관저 실내 진입해서 행사장 점검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그것은 사전답사라고 그래 가지고요.

○김재원 위원 사전답사할 때 어디어디 갔느냐고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공연했던 관저와 나머지…… 관저를 갔던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관저 어디어디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관저만 갔습니다.

○김재원 위원 의전을 위한 동선과 전동카트 준비 필요에 대해 논의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저는 그런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실내 꽃장식 얘기 논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없었습니까? 진짜로 없었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김재원 위원님, 3분 쓰시겠습니까?

○김재원 위원 써야 되겠습니다.

당일 회의 진행하면서 다수의 사람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전혀 없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언급 없었다고요? 진짜로 없었던 거지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전혀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증인, 해당 내용을 최재혁 당시 기획관한테 보고했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가 너무 늦게 끝나



가지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재혁 비서관한테 한 건지 원장님한테 한 건지 그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재원 위원** 아니면 정용석 행정관한테는 보고했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안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안 했다고요? 아까 했다고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다른 위원님 신문에?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아닙니다. 정용석 행정관한테 제가 보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설명만 하고 왔던 자리였기 때문에.

○**김재원 위원** 본인 발언을 제가 여기서 듣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저는 정용석 행정관한테 제가 보고할 이유도 없고요. 저는 단지 사전설명만 하고 왔습니다.

○**김재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남은 시간은 이따가 쓰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조대익 PD님 좀 제가 잘 보이는 쪽으로 서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무대 및 LED 설치에 950만 원 소요가 됐더라고요. 누구 판단이었어요, LED 설치?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LED 설치하는 거기에……

○**강유정 위원** PD님이 하시고 싶었어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것은 일반방송 제작 같으면 제가 PD이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할 수 있지요. 이건 공연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연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어서 연출가를 따로 뒀습니다.

○**강유정 위원** 녹화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녹화와 관련되는, 보통 우리가 녹화방송일 때는 예산도 줄이고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서트라는 것을 넣습니다. LED는 관중이 있을 때 켜요. 그래서 950이건 1000만 원이건 큰 비용을 들이는 건 관중에게 잘 보이는 시인성을 위해서 LED 설치하는 겁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인서트 쓰시는 것.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맞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인서트를 안 켜는 거지요. 무관중으로 10월 7일 날 결정됐는데 굳이 950만 원씩이나 1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관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쪽에 좀 더 개연성이 가는 거예요. PD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인서트, 제가 지금 LED 화면 보여 드릴게요, 그날 뭐 나왔는지.

이런 화면들 LED 충분히 인서트 켜요. 저 밑의 세 번째, 네 번째는 LED가 가히 낭비라 할 만한 상황들이거든요. PD로서 저것은 인서트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그 조절을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하중대 전 원장 물어보겠습니다.

여사님 오시는 것 전혀 몰랐다고 했는데 저는 이육사의 ‘청포도’나 ‘그날이 오면’을 듣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오시기를 바라면서 저 LED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전용품을 준비하셨나 본데 2023년 10월 한국정책방송원장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봤더니 2023년 10월 30일 자 어떻게 돼 있냐. 축하공연 현장 방문 관련 업무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현장 방문인 겁니까? 현장 방문이란 말은 있는데 주체가 없네요.

○증인 하종대 아마도 공연 현장을 가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강유정 위원 아니요, 이것 PPT 좀 띄워 주세요.

‘2023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축하공연 현장 방문 관련 업무 협의’ 해서 30일 날 청와대 근처에서 이렇게 사용내역이 뜨거든요.

다시 물어볼게요.

누가 현장 방문하기에……

○증인 하종대 띄워 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다른 게 나와 가지고요.

○강유정 위원 다른 것 잘 띄워 주세요.

10월 한국정책방송원장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현장 방문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본인이 현장 방문한다고 표현하지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원장이시니까.

○증인 하종대 제가 지금 그걸 정확히 봐야 되는데 제가 아마 하루 전 정도에 거기 가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강유정 위원 이거예요, 현장 방문.

누가 현장 방문하기에 현장 방문 관련이에요, 관련?

○증인 하종대 제가 간 겁니다.

○강유정 위원 본인 현장 방문 관련?

○증인 하종대 예, 저기 지금 삼청수제비 제가 가 가지고 쓴 겁니다.

○강유정 위원 본인이 쓴 걸 제가 보여 주고 있는 거고, 누가 현장 방문했기에……

그 관련이라면서요, 본인 관련?

○증인 하종대 아마 쓴 사람이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제가 간 겁니다.

○강유정 위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해요, 누가 봐도 이상한데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요.

○증인 하종대 아니요, 위원님……

○강유정 위원 대통령실에 있는 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과 잘 아는 사이였나요, 과거에?

○증인 하종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유정 위원 2022년 윤석열 후보 대선캠프에 같이 있었는데 몰랐나요?

○증인 하종대 저는 상임언론특보였고요.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강유정 위원 하는 일이 다르면 모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원장님이 KTV에 취임하고 나서 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PPT 보여 주세요.

12월 1일에 문체부가 난데없이 소속기관 직제 규정을 개정하지요. 기본운영 규정, 한국정책방송원 예규까지 바꿔 가면서 방송기획관, 2013년 조직개편하면서 없어진 것을 10년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왜 부활시키셨나요? 원장님이 요청하셨나요?

○증인 하종대 예, 제가 문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강유정 위원 왜요?

○증인 하종대 전반적으로 원장을 보좌하는 사람이 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제 밑에……

○강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요청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없던 자리를 만들었어요, 10년 만에. 그리고 나서, 만들고 나서요 나흘 뒤에, 딱 4일 뒤에 채용공고 나옵니다.

좀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주일이나 연기가 됩니다. 이런 경우 공공인데, 공공인재를 뽑는 건데 합격자 발표를 일주일이나 미루는 이런 일이 쉽게 있는 건가요? 아주 황당한데 이유를 채용 일정을 오기했다, 잘못 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사 관련 일정은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데 왜 이런 사고가 있었지요?

○증인 하종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강유정 위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서류합격자 3명 가운데, 오늘 경향신문 보도 보셨지요? 최재혁 기획관이 꼴찌 했어요. 그런데 면접 보면서 이게 뒤집힙니다. 1등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과 일주일이나 서류 결과 발표가 늦춰진 게 전혀 무관합니까?

○증인 하종대 예, 그것은, 그 심사위원들은 저희가 전혀……

○강유정 위원 만약에 특검 들어가면 이 부분에 있는 사유와 왜 이렇게 순서가 뒤집혔는지는 다 수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연봉에 대한 자료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게도 최하 6000만 원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최상이 아니라. 최하 6000만 원대까지는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라고 안 주더니 어젯밤에 드디어 최재혁 비서관에 대한 연봉이 나왔는데 10개월 총액이 8788만 원 선이니까, 우리 보통 연봉은 1년 계산하잖아요, 억대 연봉이에요. 그래서 이걸 최저만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억대로 준 이유는 뭐니까? 공고에는 6000만 원대라고 되어 있는데 억대로 준 이유가 뭘까요, 합리적 근거가?

○증인 하종대 연봉을 제가 정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강유정 위원 자리는 만들어 주지만 연봉은 정해 주지 않습니까?

○증인 하종대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문체부에서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리고 황제관람한 이후에 최 기획관은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영전이 되고요. 증인은 공천을 받습니다.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사실 중의 하나는 굉장히 많은 특집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하필 2023년 마지막 순간에 가면 대부분 200만 원대였던 제작비 규모가 갑자기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대로 뛰어 버리거든요, 마지막 3개의 특집 같은 경우는. 그것은 왜 그랬던 겁니까?

그것도 PPT 찾아봐 주세요.

○증인 하종대 아마도 특집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강유정 위원 그러니까요, 왜 200만 원대면 다 되던 특집이 4000만 원까지 올라가지요, 다큐멘터리인데?

○증인 하종대 특집을 만들 때 정부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그 영상을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토대로 편집을 할 때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의 것은 사람을 불러 가지고 무대를 만들고 설치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지……

○강유정 위원 아니요, 그 특집 다큐멘터리가 2000, 3000, 4000 든다니까요. 이 국빈방문 순방……

○증인 하종대 우리가 특집을 그렇게 협의한……

○강유정 위원 마지막에 보면……

○증인 하종대 무대를 설치하고 한 게 거의 없기 때문예요.

○강유정 위원 그러니까요, 왜 4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증인 하종대 다른 때에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 것은……

○강유정 위원 제가 말로 말씀드릴게요. KTV 특집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가 2023년 12월 31일 날 방송됐는데 4200만 원 그리고 KTV 특집 ‘대한민국 방산, 세계시장을 겨냥하다’ 다큐멘터리 3100만 원인데 그 전에 보면 보통, 비슷한 성격으로 좀 볼게요. ‘미국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 보면 220만 원 정도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뛰게 되는지?

○증인 하종대 위원님, 그것은요 이미……

○강유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저한테 죽 다 뽑아서 주시면 공천과 무관하게, 이것은 충성 경쟁을 벌이면서 일종의 방송을 상납한 게 아닌가보다라고 제 의혹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스스로 버릴 테니까요, 그 자료를 종감 전까지 저한테 보내 주시면 될 듯합니다.

○증인 하종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강유정 위원 모욕당하지 않으시려면 증명하시면 됩니다. 증명하시면 되고, 저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지 단정 짓지 않았습시다. 먼저 찢리시는가 본데 그렇게 답하실 필요……

○증인 하종대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유정 위원 아니요, 저는 자료한테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자료로 입증받고 싶지……

○증인 하종대 알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런 세 치 혀로 설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증인 하종대 예.

○위원장 전재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하종대 증인 좀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걸 계속 듣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해서……

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두 번 일을 해 봤거든요. 10월 11일의 KTV 원장 내부 보고 문서를 보면 주한대사와 대통령 내외,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다고 되어 있지요?

○증인 하종대 어떤 문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형배 위원 지금까지 계속 하신, 말씀하신 그 행사요.

○증인 하종대 한번 보여 주시고, 제가 지금 정확히 보지를 못해 가지고.

○민형배 위원 관저 앞에서 한 행사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관저 앞뜰 행사요. 맞지요?

○증인 하종대 예, 말씀하십시오.

○민형배 위원 10월 20일에는 대통령 내외하고 주한대사 부인, 문화계 저명인사 이렇게 바뀌었어요. 맞지요? 보고받으셨잖아요?

○증인 하종대 예.

○민형배 위원 그리고 10월 26일에는 대통령 내외하고 문화계 저명인사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통령 내외가 오실 걸로 생각하고 준비한 것 맞지요?

○증인 하종대 예.

○민형배 위원 맞지요?

○증인 하종대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주한대사들을 초청하고 대통령까지 오는 행사에, 거기는데요 제가 맨날 거기 가 봐서 아는데 불가능한 장소예요. 그 관저 뜰은 조그마하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하종대 예.

○민형배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결국 결론이 대사 부인들을 모시려고 했어요. 그랬지요?

○증인 하종대 예, 처음에는 대사를 모시려다가 안 돼서……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대사 부인이 오는 건요 이것은 외교 프로토콜의 기본인데 여사가 온다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 온다는 거라고요. 그것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증인 하종대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민형배 위원 모르셨는데 어떻게 초대를 합니까?

○증인 하종대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악 진흥을 위해서 그리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위해서 유치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그냥 이왕이면……

○민형배 위원 그런 조그만 행사에 대통령 내외가 올 수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증인 하종대 그래서 저희가 요청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겁니다.

○민형배 위원 안 되는 것 계속 알고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행사에 대통령 내외가 가지 않아요. 대통령실에서 일해 본 모든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계속 희망, 희망, 희망 그렇게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증인 하종대 위원님, 만약에 그냥 그게 희망만 되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러 대실에 가겠습니까?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증인 하종대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민형배 위원 그런 일은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될 가능성은. 대통령실에서 일해 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증인 하종대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게 조그만 행사에 대통령 내외를 모시고……

하고 싶으셨겠지요.

○증인 하종대 그렇지요.

○민형배 위원 그런데 결국 목표는, 대사 부인들을 부른 걸로 봐서 여사가 온다는 게 전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사가 오는 걸 몰랐다고 얘기하시면 계속 위증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 하종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쭙볼게요.

혹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까?

○증인 하종대 뭐에 대해서……

○민형배 위원 그 행사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증인 하종대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따를 당하신 거네.

○증인 하종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올 걸로 다 되어 있는데 혼자만 모르신 거예요.

○증인 하종대 결정은 제가 했는데요.

○민형배 위원 아니, 안 오신다 했다면서요.

○증인 하종대 결국은 못 오신 거지요. 처음부터 우리가 원했던 것은 못 오신 거지요. 격려 방문만 이루어진 거지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표가 딱 보니까 여사님을 모시려고 애를 쓰셨구만.

○증인 하종대 그것은 맞습니다. 모시려고 애를 쓴 건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것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그런데 대통령실하고 얘기도 안 했는데 여사님 모시려고 하고 노력을 막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오셨다고요? 지금 이것 보고 계신 국민 중에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모르고 계신 거예요, 원장님만, 밑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인 하종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다 아시는 거네요? 그러면 알고 계신 것……

○증인 하종대 아니, 실무적인 건 모른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못 온다고 했다가 온 거네요?

○증인 하종대 그렇지요. 마지막……

○민형배 위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움직이는 일은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못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간다?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증인 하종대 만약에 공연 전에 오신다고 했으면 그와 관련된 의전이 미리 있었을 겁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 의전을 다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증인 하종대 장관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장관하고는 상관없는 문제.

○증인 하종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오늘 가서 가지고 종감 때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혹시 있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짚어 보세요. 안 그러시면 틀림없이 이렇게 증언하신 데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대식 수석부위원장님, 호칭을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늘려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감으로 보셨을 때?

○**참고인 전대식** 일단 2005년부터 예산이 투입됐는데 당시에 매년……

○**민형배 위원** 그렇지요? 제가 당시에 거기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었어요.

○**참고인 전대식** 예, 그때 250억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도 수준으로 복원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민형배 위원** 그게 기본이지요?

○**참고인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김효재 이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사실 지역신문발전기금 문제는 저희들도 늘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신문은 그야말로 풀뿌리민주주의와 같은 지역언론의 꽃이기 때문에 지역신문이 소멸되는 것은 그건 정말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그마한 언론들, 지역언론들이 소멸되어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부지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입법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조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역신문 대표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신문이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제힘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꽤 오랫동안 제가 그 연구를 해 왔는데요. 지금처럼 해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전대식 수석님, 지금 어떤 조치들이 필요합니까? 아까 사무국장 얘기는 빼 놓고요. 예산 늘리는 거면 됩니까? 왜 예산이 지금까지 이렇게 확보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참고인 전대식** 이게 제가 알기로 매 3년마다 중기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애초에 이게 한시법이었지 않습니까? 그 법이 몇 번 연장되면서 상시법으로 됐는데 아마 지역신문 정책에 대한 평가 자체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신문기금에 대한 효능감과 실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예산을 수렴하시는 입법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갭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저희들이 매년 지역신문 우선 지원사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들이 아무리 매년 똑같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실제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신문기금과 무관하게 신문시장의 위기에서 비롯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가이드라인과 실제 시장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받아들이는 효능감들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입법부나 행정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격차가 벌어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김효재 이사장님, 종감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십여 일 남았지 않습니까? 꼭 좀 안을 좀 주시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러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도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가령 작년에 지역신문의 콘텐츠 관련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작년에, 작년 말인지 올 초인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요, 거기를 봤었습니다. 봤었는데 강원 일보와 광주일보가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 만든 걸 보고, 제가 사실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중앙지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언론이 이런 콘텐츠들을 생산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너무 놀랐는데 그때, 아까 조호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콘텐츠가 생산되어 봐야 지금 시대가 달라져서 이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 전체의 위기와 함께 먼저 지역신문이 지금 고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저는 국가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민형배 위원** 연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서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종감 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전대식 수석님, 지금 한강 작가의 세종도서 탈락,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이러한 일들에 대한 언론노조 쪽 언론인들의 평가는 어떤 겁니까?

○**참고인 전대식**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작품 수상한 뒤에 보수지에서 지금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다른 시각들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특정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여전히 지금 보수주의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노벨문학상에 대한 흠집 내기 혹은 폄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언론노조 안에도 출판노동자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이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굉장히 출판 강대국입니다. 반면에 그런 출판 강대국이라는 위상 못지않게 상당 부분의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계기로 출판산업에 대한 부흥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거나 한때 과거 정권에서 리스트에 올랐던 작품이 지금 수년이 지나 가지고 상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문학을 어떤 식으로 난도질했던 부분에 대한 후과가 지금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정치가,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엉뚱한 평가를 해서 이 작품의 사실은 작품의 의도나 작품성을 훼손하고 정치권에서 이것에 또 숟가락 얹어서 자신들의 무슨 성과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작가는 그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전대식** 예.

○**민형배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정리가 돼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참고인 전대식** 일단 제가 놀랐던 게 한강 작가님이 아버님 계시는 장흥인가요, 거기에서 출판 벌이고 잔치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에 대해서 정말 괜찮은 작가님께서, 상을 받을 만한 기본적인 정서를 갖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흔히 정치는 짧고 예술은 길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 문학이나 문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예술작품에 대한 정권 차원의 잘못된 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한번 전 국민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 이게 어떻게 정리될지는 제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고맙습니다. 정치권도 언론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대식 수석이 하신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재진 위원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떡위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기사로 보입니까, 광고로 보입니까?

○증인 이재진 기사로 보입니다.

○민형배 위원 이게 지금 2023년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다섯 차례 69시간 노동개혁 시리즈, 1억 원을 들여서 한 건데, 저것 광고인데 혹시 저기에서 광고나 협찬이라는 표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 동아일보에 나온 건데요.

○증인 이재진 지금으로서는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실제로 없습니다. 정부가 이 광고에다가 6억 7000만 원을 썼습니다. 정부광고법 9조는 유사 정부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희들의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협찬고지 문제는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통보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일이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사후적으로라도 발견이 되면 앞으로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시스템도 개편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민형배 위원 언론사에 혹시 그런 통지를 하거나 원칙을 밝히거나 그런 적 있으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지금 두 가지가 약간 혼재되어 있는데요. 협찬고지 문제는 사실은 반드시 하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문제도 언론사들과 늘 협업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재진 위원장님, 독자가 이 기사를 광고로 인지를 못 하면 이건 여론 조작이겠지요?

○증인 이재진 여론 조작이라기보다는 독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지요.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주입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광고인데 신뢰성 있는 기사처럼. 여론 조작이지요.

김효재 이사장님,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수탁기관이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검수를 하시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런 것은 검수가 안 된 겁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찬고지 문제는 저희들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런 것들을 어겼을 경우에 향후 심각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정부광고로 여론을 조작한다면 그것은 언론으로서나 언론진흥재단으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조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여하튼 기사와 광고, 그러니까 광고주의 입장에서선 광고인데 그것이 기사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추세가 근래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지금 기사처럼……

○민형배 위원 실태조사해 보셨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민형배 위원 실태조사해 보셨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언제 나오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글썽요, 언제 나올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실무자한테 물어봐야……

○민형배 위원 인터넷 쪽에서는 좀 나왔습니까?

○증인 이재진 정부광고는 저희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취급을 안 하시니까.

어쨌든 광고와 기사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증인 이재진 지난 3년 반 정도 되는 동안에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이행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행률이 조금씩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페이퍼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지금 기사형 광고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런 추이라는 거지요?

이사장님, 그렇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아니요,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행률이……

○민형배 위원 아니지요, 맞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지금 뜻이, 의미가 무슨 말씀이셨지요?

○증인 이재진 기사형 광고를 개선하라는 저희의 권고에 대해서 이행률이……

○민형배 위원 이행률이, 권고를 하고 있는 게 많아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권고에 대한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건 양적 확대가 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저 3분 갖다 쓸까요?

○위원장 전재수 예, 그렇게 하시지요.

○민형배 위원 그럴게요. 그러면 3분 주십시오.

○증인 이재진 지난 3년 반 동안의 추세를 보면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1년에 한 1300건 정도 기사형 광고가 저희 심의 대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관련해서 이사장님, 꼭 실태조사하시고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종감 때 꼭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의 신뢰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증가하거나 또는 이런 것은 우리 같은 기관이 그냥……

○민형배 위원 민주주의의 적이지요, 한마디로 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여하튼 저 문제는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관련해서요 이사장님, 언론 관련 단체들이 이런 것과 연관해서 사업들을 하잖아요. 재단이 지금 지원하고 계시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언론 관련 단체……

○민형배 위원 언론 관련 단체 지원 사업이 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주로 이게 공익적 사업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 대상 사업이 죽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PPT 좀 보여 주세요.

2023년에 지원금을 받았는데 2024년에 탈락한 단체가 저기 지금 표시되고 있거든요. 그다음.

저것 보시면 바른지역언론연대, 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 언론인권센터, 언론정보학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바른지역연대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6년간 매년 사업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들어서 다 탈락했어요. 이유가 뭘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건 제가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저것은 심사위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심사위원 명단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줘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민형배 위원 심사위원 명단하고 평가표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심사위원 명단을 드리면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회에 우선 첫째는 잘 안 오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민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 실무자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탈락할 걸 예상했다, 우리가 진보적 성향이라. 현 정권 흐름과 달라서인 걸로 추측된다. 재단 이사진이 교체돼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듯하다. 그걸 따라가는 것 같다. 더 중요한 건 기준이 없다는 거다. 왜 탈락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것은 탈락 업체들의 생각이고요.

○민형배 위원 탈락 단체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러니까 탈락했던 단체들의 생각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단체들의 생각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거나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요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공정미디어연대처럼 계속 고발 사주에 동원되거나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른바 개혁적인 언론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고발을 해대는 단체들은 엄청 늘었어요. 보세요.

언론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들에까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편중되는 게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지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수치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표 한번 보실래요?

저것 보시면, 밑에 보세요.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이런 데는 엄청 늘었어요. 플러스예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인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건 제가 심사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운영하십시오, 저렇게 운영하십시오라고……

○민형배 위원 심사위원은 재단에서 선정하신 것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심사위원 풀이 있습니다. 그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겁니다.

○민형배 위원 풀에 들어 있는 분들을 바꾸신 것 아닙니까. 그대로 있는 게 아니지요, 심사위원이. 심사위원이 그대로 있는데 저 심사가 저렇게 바뀌겠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러니까 가령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있었던 심사위원과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있었던 심사위원이 다르듯이 지금의 심사위원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서약서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심사위원들한테는요,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씁니다. 이게 그런데도 설명이 됩니까,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왜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러냐고요. 이사장님이 가고 나서 왜 그러냐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건 제가 가고 나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민형배 위원 이재진 위원장님, 어쨌든 신문윤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일을 하시니까, 이런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증인 이재진 제가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말씀 안 하고 싶으세요?

○증인 이재진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심지어는 가짜뉴스, 자료 한번 볼까요.

자유언론국민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정한 23년 가짜뉴스 한번 봐 보세요. 이재명 선친 묘소 훼손, 한동훈 딸 이런 게 가짜뉴스래요. 이런 단체들에게 돈을 쏟아붓고 제대로 활동해 온 단체들에게는 지원을 끊는 게 공정한니까, 이사장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민형배 위원 이사장님이 책임자시잖아요. 위원회 운영하는 이사장님인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책임자인 것은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어떻게 되었든 최종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이고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장님께 이렇게 특정 정치성향의 단체들만 지원을 늘리고 특정 정치 성향의 단체들은 줄이고 이게 공정하냐고 여쭙는 겁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자료를 다 보여 드렸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꼭 아까 김건희 여사 필요한 그런 관람 준비해 놓고 안 했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요 문화예술관이 난리도 아니에요, 심지어 관광 영역까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면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면 예산이 따라오고 사람이 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가 움직여서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김건희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중단하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하종대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하종대 증인께서는 밖에 나가면 얼굴 들고 다니시기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오늘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세요.

○증인 하종대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희 국회의원들도 긴급상황이 생기게 되면 행사에 참여한다고 했다가 못 할 때도 있고요, 못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참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좌관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아십니까? 그 행사 주체에 연락을 취해 놓습니다. 그래서 좀 늦지만 참석하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오늘 하종대 증인께서 앉아 있는데 몰랐다, 오신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김 여사가 못 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비서관을 통해서 김 여사가 출발해서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오히려 거짓말을 했으면 참 썩잖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답변하시지 앉아 있는데도 몰랐다…… 김건희 여사가 동네아줌마도 아니고 대한민국 영순위 여사가 움직이는데 행사장에 좀 늦게 방문한다고 했을 시 연락체계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좀 거짓말다운 거짓말을 해 주세요. 듣고 있는데 가슴 아프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증인이 ‘늦게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습시다. 처음에는 못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실랑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아서서 답변에 있어서 분명히 후회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가시면 진짜

국민들에게 얼굴 들고 다니는 데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증인 하종대 답변드릴까요?

○임오경 위원 아니요, 본격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제 희망사항이었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참 좋았겠다.

○증인 하종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어떻게 영부인이 오시는데, 행사장에 앉아 있는데 영부인이 들어오는데도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증인 하종대 제가 만약에 알았다면 영접하러 나갔을 겁니다.

○임오경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말 같은 말 좀 합시다. 아, 진짜 에너지 소모시켜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증인 하종대 위원님, 제가 만약에 영부인께서 오신다고 했는데도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계속 돌려서 돌려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어떠한 혐의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혐의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용산까지 가서 브리핑까지 하고 보고까지 했던 결과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업체까지 데리고 가서, 관계자까지 데리고 가서 보고했다라고 다 답이 있어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런 설계를 하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냐고요.

○증인 하종대 설계를 하지 않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계속해서 몰랐다, 그냥 개인적인 요청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증인 하종대 제가요?

○임오경 위원 예, 오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서 설명하셨다고 했고, 오늘 오전에 KTV 사장께서는 우리는 요청한 적 없다, KTV에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락가락 말도 안 되는 말들 가지고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것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하종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제가 국악진흥법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증인 하종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 국악진흥법을 17년 만에 대표발의해서 통과했을 때 우리 국악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고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증인 하종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국악인들 격려 차원에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냥 사실대로 요청을 했는데 못 오신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또 늦게라도 오신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간단한 걸 갖다가 왜 KTV에서는 그렇게 거짓말로 해명하고 우리 국회를 기망하고 국민을 기망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왜 여기 증인까지 나와 계신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증인 하종대 아니, KTV에서 얘기한 것은 저하고 상의하지 않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임오경 위원 보고를 그렇게 받았답니다. 보고를 참 잘하셨어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최재혁 증인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하고, 증인에 대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누가 봐도 출석 회피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도망가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렇게 당당하면 나와서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또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다니다가 승진하면 되니까. 김건희 여사 등에 업고 용산에 있으면 방패막이 될 줄 알고 있었지요. 증인의 국민과 국회에 대한 기망 행위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종대 증인에게 제가 질의할게요.

‘얼썬! 신명나는 우리 소리’ 공연의 기획 총괄을 누가 했습니까?

○증인 하종대 총괄이요?

○임오경 위원 예, 기획과 총괄.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증인 하종대 기획은 사실…… 처음에 아이디어는요 저하고 기획관하고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임오경 위원 최재혁 당시 기획관이 했지요?

○증인 하종대 예.

○임오경 위원 여기 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증인 하종대 예, 부인 안 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오늘 나오셔서 두 사람의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것은 처음에 최재혁 당시 기획관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KTV 기획관 자리는 2013년 폐지됐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하종대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최재혁 증인 임용 직전에 다시 신설된 자리입니다.

하종대 증인, 그 자리는 왜 다시 만든 겁니까?

○증인 하종대 사실 KTV가요 7개 부서가 있는데, 부서들은 다 자기 일을 하는데……

○임오경 위원 13년 만에 폐지됐는데 갑작스럽게 최재혁 증인 임용 직전에 신설했어요. 이거 다 계획적이었지요?

○증인 하종대 제가 좀 답변해도 될까요?

○임오경 위원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 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최재혁 증인이 지원 과정에서 서류심사 통과자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지요? 알고 계시지요?

○증인 하종대 예, 그건 서류전형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서류심사라고 말했어요. 서류전형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석연치 않은 물표를 받아 합격하게 됩니다. 알고 계셨지요, 이것도?

○증인 하종대 면접에서 1등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또한 심사위원 3인 가운데는 문체부 공무원도 포함돼 있었고 이 공무원은 최재혁 증인에게 가장 유리한 점수를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 나와 있네요, 여기.

○증인 하종대 자세하게 누가 어떻게까지 줬는지는 제가……

○임오경 위원 점수가 다 나와 있어요.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 보여 드리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받은 자료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증인 하종대 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누가 얼마를 줬는지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임오경 위원 문체부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임오경 위원 당시 문체부 공무원이 면접관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제가 그때 거기 없어서 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최재혁 방송기획관이 공모를 할 때 저는 교육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행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저도 3분 추가해서 쓰겠습니다.

문체부가 김건희 여사 지시받아서 점수 몰아주려고 들어간 것 아닐까요? 이건 심각한 채용비리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디어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러한 중대 인사권에 문체부 국장이 들어가서 완전히 점수를 몰아줍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임오경 위원 아니, 문체부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피감기관들한테 지적사항으로 장관님도 큰소리 잘 치시더라고요. 점수를 몰아주려고 들어가서 이거 채용비리로 나는 의심되는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당사자한테 종감 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보게 되면 방송기획관은 전문임기제 가급 자리로 문체부 과장급 자리입니다. 아시지요?

○증인 하종대 4급입니다.

○임오경 위원 5급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주MBC 사장까지 지낸 증인의 격에 전혀 맞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종대 증인님? 그렇게 스스로 급을 낮춰 가면서 KTV 기획관을 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인 하종대 그런데 급은 그렇지만 급여는 아까 말씀하듯이 1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MBC 사장까지 지낸 분이 갑자기 5급으로 낮춰서……

○증인 하종대 아니요, 그게 4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방송기획관 전문임기제 가급, 나와 있지요? 그렇게 스스로 낮춰 가면서 꼭 들어갔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합의해서 한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KTV 가서 국민 혈세로 김비어천가 만들라고 지시했습니까?

○증인 하종대 아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임오경 위원 ‘예, 아니요’라고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하종대 증인님, 최재혁 증인은 작년 4월 윤 대통령 미국 순방에 전용기까지 타고 동행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하종대 예.

○임오경 위원 그거 승인하셨지요?

○증인 하종대 예.

○임오경 위원 왜 직접 안 가셨어요?

○증인 하종대 저는 KTV 전체를 총괄해야 되는데요, 그것까지 직접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임오경 위원 그래서 못 갔다?

○증인 하종대 예.

○임오경 위원 KTV 직원이 대통령 순방에 따라나서는 것은 전례 없던 일인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용산 요청인가요, 아니면 셀프 요청일까요?

○증인 하종대 아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용산에서 바로바로 수락해 주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역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증인 하종대 KTV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최재혁 기획관 출장 목적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효율적인 국정홍보방안을 모색, 효율적인 국정홍보방안 모색한 것이 고작 김 여사 여흥 공연이네요. 돌발 일정 대응, 바이든-날리면 같은 일 또 생길까 봐 대응하러 간 것 아닐까요?

당시 동행했던 대통령실 직원의 말에 따르면 최재혁 증인이 고프로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며 대체 왜 따라온 것인지 의아했다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증인 하종대 그 증언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홍보를 하려면 대실에서 풀단으로 제공하는 영상만 가지고 너무 부족해서 다른 것 좀 더 찍어올 수 있느냐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대통령실 직원의 말에 따르면 왜 왔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재혁 증인의 KTV 응시원서를 보면 증인이 KTV가 국민방송임을 망각하고 용산 집무실 전담 TF 구성, 용산 분원 설립, 용산 유튜브 생방송 등 오로지 용산만을 위한 방송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10억 원을 들여 짓겠다는 KTV 방송체험관도 용산 분원의 일환이었던 것 아닐까요? 이거 다 내용 알고 있었어요?

○증인 하종대 아니요, 제가 있을 때 일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질의 끝난 다음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2012년 MBC 아나운서 국장으로 있으면서 김재철 구체제에 저항하는 수많은 후배들을 내치고 좌천시키면서 그 공로로 제주MBC 사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정확히 10년이 지난 2022년 증인은 국민 TV인 KTV 방송기획관이 아닌 김건희 TV 여흥기획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용산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영전했습니다. 국민의 자산인 KTV를 윤석열 정권의

홍보도구로 전락시킨 최재혁 전 방송기획관의 말도 안 되는 계획과 결과물들을 보면 예산 전액 삭감이든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로 KTV의 추락을 막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최재혁 증인은 우리 운영위 국감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이 방송을 분명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하종대 증인과 두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 안 하시겠지요?

○증인 하종대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임오경 위원 실수든 결과든 인정 안 하시겠지요?

○증인 하종대 위원님께서도 국악 진흥을 위해서 법안까지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임오경 위원 국악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여서 승진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국악을 이용합니까? 왜 국악인들을 이용하냐고요. 17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계신 분들이에요.

○증인 하종대 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오경 위원 답변하십시오.

○증인 하종대 우리 국악인들이 다른 데 가서는 제대로 대접 못 받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국악진흥법을 만든 것도 그런 이유에서 국악의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왕이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하면서 다른 나라 대사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국악을 소개하고자 했고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V1, V2 이런 분들이 오신다면 더욱더 국악 진흥과 발전이 되겠다, 그분들이 격려를 하신다면 더욱 좋겠다 해서 했는데 결국은 안 된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무슨 황제관람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결국은 됐잖아요. 국악을 위해서 격려차 오는 것 저 찬성이란니까요. 그런데 왜 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한 답변, 오락가락한 절차, 제대로 된 절차 밟지 않고 왜 국회를 기망하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 하종대 제가 드린 건 일관성 있는데 그 전 것……

○임오경 위원 그 당시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고 나갔으면 이런 일 없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위임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전대식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여쭙게요.

우리 상임위에서 모두 다 박수 치고 환영했던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보수언론 일부가—제가 속기록을 확인 못 해서 그러는데—그 의미를 훼손

손해 왔다, 훼손했다 내지는 폄하했다 이런 표현 하셨는데, 혹시 특별히 이 며칠 기억나는 기사 제목이나 이런 게 있나요?

○참고인 전대식 제목은 아니고 칼럼이었는데……

○박정하 위원 칼럼? 어떤 거지요?

○참고인 전대식 일단 보수 쪽 언론사였습니다.

○박정하 위원 제목이 어떤 거고요?

○참고인 전대식 제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오늘 갑자기 이 답변을 제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박정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축하해야 될 일인데 일부 혹여나 저희 스스로 그렇게 좋은 일을 진영논리에 빠져서 훼손시키고 있는 경우는 없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싶어서 여쭙봤습니다.

다음은 조대익 PD님 계시지요?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불출석사유 보니까 최근에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오래 고생하시는데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되고 나와서 답변을 해 보시니까, 이 불출석사유서에 보면 이미 이전에 질의를 하신 의원실에 두어 차례 정도 가서 다 말씀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 질의 중에서 혹시 이것 말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 게 있나요?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어서 증인께서 답변을 새롭게 해야 되는 질문들이 좀 있었는지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딱히……

○박정하 위원 딱히 없었다고 느끼시는 거지요? 제가 쪽 들어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하나만 더.

그러면 왜 굳이, 오늘 오랜 시간 앉아 계시고 불편할 텐데, 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안 나오셨어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제가 몸이 너무……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20일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몸과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정하 위원 앞으로는, 여기 와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때로는 꼭 필요할 때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 답변을 주셔야 되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알았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은우 원장님, 오전 답변을 들어보니까 오랜 방송생활 하시면서 국악의 녹화방송에 관련해서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기회드릴 테니까 말씀 좀 주셔 보세요. 아까 제가 좀 답변에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고 한 면이 좀 있었어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고맙습니다.

먼저 KTV가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제가 있었던 때의 일은 아니지만……

○박정하 위원 KTV 논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제관람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황제관람이라고……

○박정하 위원 제가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국악방송, 국악을 녹화해서 방송해야 되는 특성만 말씀 주세요. 나머지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 주셨던 황제관람이니 이런 논란에 대해서 원장님이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원래의 기획대로 녹화가 잘 돼서 이미 방송을 했고, 우리가 방송을 한다는 것은 결국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중이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녹화해서 편집해서 방송한 그것은 결국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8600만 원의 돈이라는 것은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쓰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인을 위한 황제관람이다 이런 논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박정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종대 원장님 좀 나와 주세요.

제가 가끔 엉뚱한 데가 있어 가지고요, 하종대 원장님 쪽 앞서 위원님들과 질의답변하시는 과정에 어떤 가설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 건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그냥 말씀 주세요.

대통령 일정을 잡게 되면 각 부처에서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요구들이 옵니다. 그래서 일정이 잡힐 때는 그 요구를 대통령실에서 걸러서 대통령이 가실 일, 총리가 가실 일, 장관실에 미뤄야 될 일 쪽 정리합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을 꼭 모시고 싶어서 어디선가 기획이 온 그런 것도 거기서 판단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볼게요. KTV에서 부산엑스포를 위해서 정말 이 국악공연 필요해 가지고 대통령 내외분을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안 오신대요. 일정에서 잘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다음에는 그러면 여사가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마저도 잘렸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진행을 하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제 국회에 오셨던 국악 관련 명인들께서 일부 여사께 직접 연락을 했을 수도 있고 해서 여사가 갑자기 왔어요, 하종대 원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가설이 성립될 수도 있나요?

○증인 하종대 제가 국악인들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원래 목표로 했던 그런 VIP나 아니면 V2의 참석 이런 것들이 저희가 원래 목표한 것하고 달리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모시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지 국악인의 황제관람이라고 소위 명칭하는, 여사를 위한 공연을 일부러 만든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증인 하종대 당연한 겁니다. 황제라고 하면 사실은 아마도 대통령을 말씀하실 건데 설령 V2 김건희 여사를 황제로 비유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김건희 여사 개인을 위한 공연으로 기획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도 맞지 않고 국민을 호도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하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에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답변 중에. 그리고 앞서 있었던 상임위에서도 이해 안 되는 답변들이 있어서 이런 논란이 커졌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세웠던 가설과 같이 쫓아간다면 해프닝성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면도 있는 거지요?

○증인 하종대 예.

○박정하 위원 마지막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모두 다 공천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선거라는 과정 거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꼭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어찌면 아직 밝혀지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고, 충분히 국민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모든 것은 덮어두고 마지막 부분에 원장님께서 모멸감이라고 표현했던 그 부분만 좀 확인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천에 가서 공천을 받으셨어요, 그게 전략공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면 하 원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황제공연을 만들고 황제출장을 해서, 그 지역의 선거를 나갈 수 있었던 게 시혜를 받은 그런 듯한 느낌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생각했던 국회의원직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색을 하다가 당이 그렇게 가서라도 해 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을 누비면서 활동하고 계시지요?

○증인 하종대 예.

○박정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좀 주세요.

○증인 하종대 지금 말씀하신 그 후자고요.

저는 이 공연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지역구에 출마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로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그렇게 개인적인 사심을 위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갔던 영등포구는 우리 당에서 험지라고 부르는, 잘 당선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곳이 험지입니다. 그리고 부천병 두 번째 갔던 곳은요 사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사지는 누가 가도 잘 당선 안 된다 그런 자리를 말씀드리는데 겹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이번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천을 받았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 사실과도 맞지 않고 국민들이 들을 때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 공연은 우리가 기왕이면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해 보자고 외국인 대사들 또는 부인들까지 모셔서 한번 해 보고 싶었고 그리고……

○박정하 위원 줄여서 말씀 주세요. 앞 부분만 듣고 싶었어요.

공천과 관련한 부분 다 말씀 주신 거지요?

○증인 하종대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하종대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지금 쓰시는 증인 신문시간은 재추가질의 3분이라는 참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빨리 할게요.

국민 혈세를 사심을 위해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방금 이야기하셨지요?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사심을 위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증인 하종대 무슨 말씀입니까?

○양문석 위원 부평을 전략공천받았지요?

○증인 하종대 예.

○양문석 위원 그 당시에 국힘당 네 명이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짝 없애 버리고 혼자 들어가서 전략공천받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증인 하종대 위원님, 저도 답변 좀 하게……

○양문석 위원 최지우 변호사 들어오세요.

○증인 하종대 국민들을 좀……

○양문석 위원 나중에 하세요, 나와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게 무슨 모멸감입니까?

○위원장 전재수 참고로 증인, 참고인분들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들의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10월 25일 KTV 왜 갔어요?

○증인 최지우 인사드리러 가는 것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저희가 법적으로 조언을 해 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저작권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언해 준 게 있어서 법적으로도 설명을……

○양문석 위원 하종대 증인 거짓말했네요?

○증인 최지우 아니, 실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양문석 위원 인사하러 갔다고 그랬잖아, 그렇지요?

○증인 최지우 그러니까요, 겸사겸사 간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잠깐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이게 공공저작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공공저작물이 아닙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서 공표한 저작물이 공공저작물이고요. 이 영상은 풀단에서 순번을 정해서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에 공공저작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이용이 허락되어 있는 저작물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다른 변호사들하고도 충분히 의논하고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몇 시에 갔어요?

○증인 최지우 저 한 12시쯤 도착하게끔 해서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12시쯤 갔다?

○증인 최지우 아마……

○양문석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증인 최지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12시쯤……

○양문석 위원 점심시간에 거기를 갔다고요?

○증인 최지우 예, 점심시간 때쯤 도착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랑 식사도 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아카이브 직원 3명을 갖다가 불러올린 것은……

○증인 최지우 그건 끝나고. 끝나고 원장실에서, 와 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니까 하종대 증인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인사하러 왔는데 점심 먹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업무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담당 직원을 부른 거잖아요?

○증인 최지우 그러니까 실무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경위를 아셔야지만 이해가 가능할 텐데요.

○양문석 위원 경위 잘 알고 있어요. 계속 설명해 보세요.

○증인 최지우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양문석 위원 예.

○증인 최지우 이게 공공저작물이 아니고 풀단 영상이라 해서 2023년 7월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서 이 풀단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니까 이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대외협력비서관실에. 그래서 그 대외협력비서관실에서 검토를 했더니 이것은 저작권자가 조치를 해야 되고 풀단의 일원인 KTV가 조치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KTV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끼리 소통을 했었고요.

여기에는 홍보기획비서관실로 되어 있는데 저는 법률비서관실 소속이었고, 저는 그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고 그냥 법률적인 조언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KTV 실무자들이 저한테도 좀 묻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아마 하종대 원장님은 그 실무를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하종대 증인이 또 거짓말을 했네요. KTV의 홍보 방향과 달랐기 때문에 삭제 요청과 고소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최 증인은 저작권 자체를 KTV가 가지고 있지 않고 풀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 완전히 증언이 달라요. 여기까지 또 하나 짚고 갑시다. 그건 최 증인 이야기고.

10월 25일 날 11시 29분에 ‘동영상 건진사이다 고소 안 합니까’라고 하는 건사랑 카페의 글이 뜹니다. 그리고 정말 오비이락으로 12시쯤 KTV를 갑니다. 그리고 인사만 한 게 아니고 하종대는 홍보 방향이라고, 최지우는 풀단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의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를 부릅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증인 최지우 거짓말이라기보다는요……

○양문석 위원 거짓말이잖아요.

○증인 최지우 저작권에 대한 법률적 판단 문제기 때문이에요……

○양문석 위원 이보세요, 그것은……

○증인 최지우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어떻게 법률적 판단을 합니까.

○양문석 위원 여보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본인이 수임을 합니다. 뭐 영업하러 갔었어  
요?

○증인 최지우 아닙니다. 제가 그 돈 받으려고 영업하러 갈 정도는 아니고요.

○양문석 위원 그 바쁜 시기에, 방심위 어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요, 그때 갔었  
을 때가. 그리고 곧 총선 출마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김건희의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  
이 정도만 이야기합시다.

들어가세요.

○증인 최지우 아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양문석 위원 잠깐만, 나 지금 할 이야기 많아요.

○증인 최지우 예, 알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건진사이다 대표님 좀 나와 주시지요.

김규섭 대표님, 듣다 보니까 기가 차지요?

○참고인 김규섭 어이가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어이없는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참고인 김규섭 일단 아까 무슨 공공저작물 운운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어쨌  
든 저작물을 제가 도용은 했다, 갖다 쓴 건 맞지 않느냐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요. 일단 그 건은 고소인들이 얘기하는 피의사실이고요. 저는 경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만 피의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작년 8월에 발생했던 유튜브상에서 신고, 유튜브상의 신고와 형사고소가 있는  
데 유튜브상의 신고 자체가 여러 건들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하고 결국 채널을 폐쇄되게  
끔 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저는 허위 신고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고의 세부내  
역들이 굉장히 틀립니다. 가령 제가 20초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것 보면 대통령 배우  
자가 한 2초 정도밖에 등장을 안 하는데 마치 20초 전체에서 도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신고 내용이기 때문에 허위 신고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허위 신고, 그리고 저작권은 핑계일 뿐이고 결  
국 대통령 배우자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것들에 대한 신고와 고소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  
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공공저작물이라고 표현한 것하고 KTV 저작물하고 표시가 납니까?

○참고인 김규섭 전혀 몰랐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처음 유튜브상에서 신고  
가 이루어졌을 때 무슨 풀이니 어찌고 이런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양문석 위원 고소뿐만 아니고 동영상 삭제 48건을 해요. 그리고 김건희 관련 39건을  
해요. 이것도 공공저작물입니까?

○참고인 김규섭 공공저작물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작  
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공공저작물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최지우 변호사 이야기해 보세요.

○증인 최지우 공공저작물이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고발장 한번 보셨나요? 고발장을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고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참고인 김규섭 고발장 아니고 고소장이요.

○증인 최지우 고소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중계 KBS 영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참고인 김규섭 자기가 고소하고도 모르네.

○증인 최지우 풀단 채널A 영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참고인 김규섭 그런 것은 정보공개 청구 안 됐어요.

○증인 최지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해하고 계신데 저작권법 위반임은 명백하니까 수사기관에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잖아요. 그렇지요?

○참고인 김규섭 그쪽 피의사실을 주장하시는 거고요, 그것은 그냥.

○증인 최지우 그런데 수사기관……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증인들끼리는 토론이 안 됩니다.

○참고인 김규섭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한 분 말씀하시고 한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지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진짜로 주장하시는 대로 공공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경찰도 검찰도 바보가 아닌데 이걸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겠습니까?

○참고인 김규섭 기소의견 아닙니다. 일반 송치했어요. 뭘 알고 말씀하셔야지, 본인이 고소인인데 아무것도 몰라.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양문석 위원 앉아 주세요.

하종대 증인, 위증하셨지요?

○증인 하종대 뭘 위증해요?

○양문석 위원 뭘 위증해요?

○증인 하종대 예. 위증 안 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홍보 방향과 달라서 고소했다면서요.

○증인 하종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지우……

○양문석 위원 일어나서 이야기하세요.

○증인 하종대 예, 최지우 변호사께서 얘기한 것은요 법률적인 부분을 말한 거고요. 저는 그 동영상의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서로 다른 측면을 얘기한 건데요.

○양문석 위원 서로 다른 측면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증인 하종대 아니지요. 거기에……

○양문석 위원 홍보 방향하고 저작권의 소유주하고 누가, 하늘과 땅 차이지.

○증인 하종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왜 고소를 했느냐 했을 때 그 내용이 우리의 홍보 방향과 서로 다르게 동영상을 왜곡 편집해서 썼기 때문에 고소했다는데 그 내용하고 법률 형식적 내용하고 서로 뭐가 상치된다는 겁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양문석 위원 변호사는 저작권의 주인이 KTV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고소했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하종대** 저는, 제가 말한 것은 내용과 관련된 거라니까요.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작권이 전체 있으면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양문석 위원** 앓으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따집시다.

건진사이다 대표께서는 저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규섭** 기본적으로 유튜브 신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사실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고 결국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풍자, 비방이라고 느꼈나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구실로, 그런데 사실 제가 근본적으로 뭐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저작권법으로 이렇게 구실을 삼아서 고소를 한 모양이고 그리고 그 결과 사실 채널이 한 번 폐쇄 조치가 됐습니다, 삭제가 여러 번 되면서.

그런 것들이 문건도 밝혀진 이상 저는 그 행위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형사 조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지금 형사 조치도 진행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문석 위원** 가장 억울했던 게 채널 폐쇄와 관련해서 KTV가 계속해서 진행을 했지요?

○**참고인 김규섭**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참고인 김규섭** 작년 한 8월 25일경에 제가 처음에 경고를 받게 되는데요. 처음에 영상 3건, 3개입니다. 이 3개가 신고가 돼서 저는 그냥 대통령 배우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닷새 후에 총 15건의 신고와 삭제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유튜브에서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서 통상 세 번의 어떤 경고를 받게 되면 채널 폐쇄 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3건, 아마 3회를 3개로 착각해서, 아마 실무자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다음에는 알뜰하게 5건씩 해서 3회 3×5=15로 해서 15건을 신고하고 삭제 조치가 되면서 폐쇄 조치가 된 거였습니다.

○**양문석 위원** 최지우 변호사, 김건희 팬카페 건사랑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삼삼오오 아시지요?

○**증인 최지우** 저는 모릅니다.

○**양문석 위원** 몰라요?

○**증인 최지우** 예, 진짜 모릅니다.

○**양문석 위원** 삼삼오오는 그런 동영상들을 계속해서 활용했는데 왜 고소를 안 했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안 했지요?

○**증인 최지우**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그러니까 풀단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유튜브들도 영상기자단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토리서치라는 데는 아예 원본이 유출됐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그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어쨌아재, 이 선생 칼럼 그다음에 건진사이다까지 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소를 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는 아무도 이의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KTV를 고소하셨어요. 저작권 주장을 하니까 자기가 역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KTV에서도 당연히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

습니다.

○양문석 위원 대표님.

○참고인 김규섭 제가 고소한 건 맞고요. 그것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허위 신고로 저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유튜브상에서 이루어졌던 신고들이 제가 위반하지도 않은 것들 그다음에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 시간들 이런 것들이 다 허위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유튜브 운영하는 데 피해를 봤기 때문에 고소를 한 거고요. 그리고 고소를 하니깐 그쪽도, 우리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 KTV 직원들 상당히 곤혹스러워했지요?

○참고인 김규섭 예, 제가 처음부터 무슨 고소고발 이런 식으로 안 가고 좀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거기 실무자들, 방송영상부의 실무자들이랑 통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심지어 내용증명까지 발송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그냥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양문석 위원 위에서 하라고 하니깐 우리는 해야 된다?

○참고인 김규섭 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양문석 위원 하종대 증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하종대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못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륜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니까 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양문석 위원 앓아 주세요.

KTV 직원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직접 들려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 PD, 대통령 부인 김건희 못 봤다고 그랬지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못 봤습니다.

○양문석 위원 언제 봤어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방송 녹화 당시에 중계차에 있었기 때문에……

○양문석 위원 예?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중계차에 있었습니다, 중계 녹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양문석 위원 중계차에서 현장이 안 보여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현장이 500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지금 장난치십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아닙니다. 현실은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사진 나오고 나서 입장 바뀐 거잖아요. 사진 나오기 전까지 KTV는 김건희 안 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그것에 대해서는 전임 원장님께 들었다는 것을 들었지 저는 이 당시에 몰랐습니다.

○양문석 위원 책임져야 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알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심각하게 책임져야 됩니다, 위중.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알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저는 못 봤습니다.

○양문석 위원 전현직 청와대 문화비서관들, 행정관들이 먼저 와 있었고, 그럼에도 못 봤어요? 현장 총괄 PD가 현장을 안 봐요? 총괄 PD가 중계차 타고 있어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조금 오해하시는데 총괄 PD라서 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PD지 공연 PD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문석 위원 그렇게 말을 맞췄어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맞춘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총무비서관이 누구인지 얼굴도 잘 모르고요.

○양문석 위원 앉으세요.

김규섭 증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해 주세요.

○참고인 김규섭 알겠습니다.

작년 이후로 유튜브에서 신고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저도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에 연락을 여러 번 했고 내용증명까지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저의 관리·운영의 미흡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고소대리인, 지금 증인이라고 와서 앉아 있는 저 고소대리인의 존재를 알고 대통령 배우자의 세력에 의한 고소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대통령 배우자와 그를 둘러싼 기생하는 세력들이 파멸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끝까지 버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방금 건진법사, 사장님이 참고인이신데 제가 듣다 듣다가, 위원장님도 이것 이렇게 진행하시면…… 저분의 논리는 내가 물건을 훔쳤는데 저놈이 밍기 때문에 내가 물건 훔친 실정법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답변입니다, 저 답변이. 본인도 그게 저작권법에, 물론 처음에는 공공저작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다음 상황을 보면, 얘기를 들어 보면 본인도 저게 잘못된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실정법에 대한…… 이 국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법 만드는 곳 아닙니까? 우리 실정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과 전제로 해서 답변을 해야지.

나는 이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무슨 일당들이 나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겁니다? 아니, 내가 물건 훔쳤으면 훔친 걸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본인이 법정에 가서 싸워야 될 문제를 국회에서 하면…… 그것을

질문하시는 위원님도 다 그냥 듣고 계시고 위원장님도 가만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뭘 준거로 해서 토론을 해야 되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참고인들 두 분을요 실질적으로 논쟁을 시키는 이런 방식의 질의에 대해서 이걸 계속 위원장님이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세 분을 번갈아 가면서, 답변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전체 시간에. 세 분을 번갈아 가면서 단문으로 ‘하종대 원장님, 최지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세 명을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하시는 이런 질의도 저는 위원장님이 좀 주의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답변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요. 법이 잘못돼서, 잘못된 건 잘못했다라는 전제에서 답을 해야지 나는 이 정부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법이라도 나는 어겨도 관계없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주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위원장의 생각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던 증인들은 선서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서는 양심에 따라서 보탬과 빠짐없이 이렇게 소신에 따라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증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선서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 발언에 대해서 제가 주관적으로 위증이구나, 진실되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증인들의 발언은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 것이고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 위증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양문석 위원** 예.

제가 신청한 증인을 향해서 도둑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만약에 저분이 도둑놈이 되려고 하면 그동안에 공공저작물과 풀단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KTV가 고소고발을 해 왔었어야 돼요. 그런데 KTV가 창사 이래 한 번도 그런 문제 제기에 직면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KTV가 이런 부분에서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최초로 KTV가 국민을 고소한 사건이 바로 건진사이다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최지우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저작권 문제가 풀단에 저작권이 있냐 그렇지 않으면 공공저작물이나 이런 논쟁에 대해서 저도 처음 듣는 문제 제기고, 소위 말해서 방송 전문가, 방송정책 전문가였다고 하는 저도 처음 듣는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반대로 하종대 증인은 자신의 홍보 방향, KTV의 홍보 방향과 달라서 고소를 했다고 하면서 진술이 엇갈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증인을 향해서 도둑놈이니 도둑질을 했니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저는 신동욱 위원님께서 비유적 표현을 쓰시지 않았는가, 비유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이런 것까지 위원장이 나서서 제지를 하기 시작하면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이런 생각으로 우선 받아들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박정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우리 보통 위원장님이 감사를 하거나 청문회를 하거나 현안질의를 할 때 보면 주질의 있고 보충질의 있고 재보충질의가 진행이 됩니다. 7분, 5분, 3분, 필요에 의해서 재재보충질의도 들어가고 하는데 위원장님 늘 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위원님들 준비한 것 질의 다 하게 시간 배려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그게 때로는 보다 보면 발언 시간이 지나치게 너무 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 보충질의 5분, 3분 보충질의하면서 한두 번 정도 1분씩 더 배려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어찌 보면 그게 주질의보다도 더 많은 분량이 가고 이후에 재재보충질의, 재재재보충질을 당겨서 쓰다가 또 추가질의하고 이런 경우는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박정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저도 우리 위원님들 발언시간이 좀 길어지거나 아니면 증인·참고인분들의 발언시간이 좀 길어지면 제가 시간을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요. 너무 긴데, 너무 긴데 그러면서도 발언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증인·참고인분들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늘 우리 의원들을 향해서 증인·참고인 또는 기관에서 나오신 분들 발언, 답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너무 길어지거나 또는 국정감사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운영에 좀 지장을 미칠 것 같으면 위원장이 앞으로 조금 제지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마음이 급해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임오경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처음부터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서 저희가 증인과 참고인을 요청했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10월 10일 국감이 시작되면서 질의시간은 포함이 되되 답변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21대에서 느껴 보지 못한 위원장님의 포괄적인 운영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쳤더라면 저희 위원들이 위원장님에게 계속해서 요청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여야 위원님들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있어서 기회를 똑같이 줬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남은 국감 저희가 증인과 참고인 요청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마음껏 질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오신 분들에게도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발언들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한 답변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남은 국감 기간까지 위원장님이 중립을 잡으셔서 마지막까지 똑같은 방향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여야 두 분 간사 위원님 말씀 제가 명심해서 위원회를 원활하게 잘 운영하도록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참고인 신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재원 위원님께서 아까 추가질의 잔여시간이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김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하종대 증인, 강유정 위원님 신문 내용 중에 위증 또 하셨습니다.

강유정 위원님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띄우시면서 이것 이 공연 녹화랑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출장내역서, 출장신청서, 제가 아까 제시했던 증거물입니다. 10월 27일 날 신청이 되었고요. 기안자가 누구냐 하면 조대익 방송무대주사 그다음에 전결을 문체부 장미란 차관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까는 내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출장신청서의 출장 목적에는 정확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국악공연(청와대)’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는 상관없는 걸로 간담회 하셨다면서요?

○**증인 하종대** 아니요, 제가 아까도 저게 정확히……

○**김재원 위원** 강유정 위원님한테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증인 하종대** 띄워 달라고 했었는데 띄워 주지 않았습니다. 띄워 주지 않았는데 그 전 날, 10월 30일 날……

○**김재원 위원** 그만하시고요.

두 번째, 업무추진비 내역 다시 보겠습니다.

카드전표 2개가 나옵니다. 같은 카드지요? 5628인가요 5528인가요, 이걸로 시작되는 같은 카드입니다. 농협카드고요. 원장, 주무관 등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두 군데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19시 55분과 20시 21분.

무슨 업무간담회를 이렇게 늦게, 더군다나 롯데리아 같은 곳은 후불이 안 되잖아요. 무슨 간담회 하셨습니까? 주무관 10명 누구입니까? 원장은 두 군데 동시에 존재했습니까?

○**증인 하종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준비상황이 끝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수제비를 먹으러 같이 갔고요. 그리고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햄버거라도 사다 갖다 드려라 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아까는 다른 내용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증인 하종대** 아니요, 잘못,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재원 위원** 저기 업무추진비 내역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으셨잖아요. 이것 공문서잖아요?

○**증인 하종대** 제가 아까 삼청동 수제비집에 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갔다고 얘기까지 말씀……

○**김재원 위원** 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내역을 함부로 써서 내십니까? 이게 간담회를 실시한 거예요?

○**증인 하종대** 뭐가, 어떤 게 함부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원 위원** 원장, 주무관 등 10명으로 돼 있는데 두 군데 장소에 원장, 주무관 등

10명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증인 하종대 제 지시를 받고 햄버거를 샀기 때문에 그렇게……

○김재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용이 업무 협의 간담회가 아니지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내역에 왜 이렇게 쓰십니까, 식대라고 안 쓰고?

문체부 알고 있었습시다. 문체부 장미란 차관이 전걸했고 조대익 방송무대주사, 이 출장 건 기안했잖아요? 한 것 맞지요? 그렇습시다.

계속해서 이렇게 위증을 해대고 있습시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과 제 증거자료만 가지고도…… 이게 내용이 기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내용이 지나면서 잊어 버려서 그런데 잊어 버리는 것 제가 기록하고 있다가 보면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있습시다.

하종대 증인 언론인이시잖아요?

○증인 하종대 언론인을 했습시다.

○김재원 위원 언론인은 논리에 따라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증인 하종대 그렇지요.

○김재원 위원 그런데 지금 논리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증인 하종대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원 위원 위증의 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양심 선언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받으시겠습니까?

○증인 하종대 제가 위증한 게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아야지요.

○김재원 위원 이번에 부천에 나가셨던 걸 보면 그래도 정치인에는 욕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하고 싶으신 거지요?

○증인 하종대 정치인의 욕심이라기보다는요……

○김재원 위원 정치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어쨌든 공천에 나가신 거니까?

○증인 하종대 국민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시다.

○김재원 위원 어쨌든, 보수 진영에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증인 하종대 보수 진영은 어떤 내용을 말……

○김재원 위원 이런 내역들이랑 시간 내역들도 다 나와 있는데, 이게 공문서인데…… 이것 KTV 내부에서 나온 거예요, 업무추진비.

○증인 하종대 어떤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전재수 하종대 증인,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증인 하종대 예.

○위원장 전재수 짧게……

○증인 하종대 제가 위증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쓴 그 내역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하루 전에 그 현장 가까이 가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가서 둘러봤고 저녁시간이 돼서 수제비집에 같이 가서 먹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햄버거라도 먹으라고 사다 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위증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오랜 시간 앉아 계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지금 증인 신문을 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계시고 보충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신동욱 위원** 3분을 당겨서 쓰신 분이 있고 안 당겨 쓰신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금 자리를 지키고 계신 진종오 위원님 계십니다.

진종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저는 관광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광공사가 지역 특화를 위해서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야간관광, 전통시장 활성화, 레저관광 등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해외여행을 부추기는 듯한 방송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텐트 밖은 유럽’, ‘지락실’, ‘지구마블’ 이런 것 혹시 보셨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진종오 위원** 보면 누가 봐도 그곳에 가고 싶고 아주 쉽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런 걸 보면 관광공사가 국내여행에 대한 활성화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전략이 좀 부족한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2023년도에는 외래관광객 수가 2020년에 비해서 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수지가 9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광공사는 어떤 구체적인 대책 마련하는 게 있으면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관광공사 직원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말씀처럼 해외여행에 관한 프로그램은 정말 쏟아지듯이 많은데 국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그것도 조금 재밌는 포맷으로 이렇게 오락성을 가미한 프로그램은……

○**진종오 위원** 많이 없어졌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가장 오래된 ‘1박 2일’ 정도가 있고 ‘동네 한 바퀴’는 예능프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골목골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크게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진종오 위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들과고는 종종 협업을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적자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씀처럼 올해 코로나가 오기 전인 19년도하고 비교하면 인바우드가 93%까지 회복률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아웃바운드도 아직 19년도를 초과한 것은 아니고 94% 정도입니다. 1% 정도 차이인데, 그러니까 19년도에도 수지 적자가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어쨌든 조금 이제는……

○**진종오 위원** 구체적인 대책이 좀 많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관광서비스 상생지원단이라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요, 보통?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그것은 주요 관광지점의 안내 체계나 교통이나 음식이나 관광객들이 가장 접하는 그 접점에 대한 수용 태세가 어떤지……

○진종오 위원 그렇지요? 불만을 좀 점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현장 점검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관광객들의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관광객 자체에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현장에서 문제를 개선해야 될 것도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기도 하고 관광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서도 좀 실질적인 방안이 혹시 계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현장에서 발굴되는 서비스 개선 필요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단이 일반 국민들도 포함돼 있고……

○진종오 위원 지원단이 일반 국민들이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대학생이 30명 있고 일반 소비자가 삼십 분 계시고 그다음에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사십 분 이렇게 해서 백 분으로 일반인의 시각과 업계 종사자의 시각을 다 같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처 또 주무부처를 통해서 관련된 지자체 또 관련된 기관에 통보를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진종오 위원 제가 듣기에는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국내관광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거나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국내관광은 바가지다부터 시작해서 안내도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해외로 나갈 것 같아서 국내 관광산업의 발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숙박세일 페스타 아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진종오 위원 이 숙박세일 페스타라는 게 국민들에게 숙박 할인권을 배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잔여 물량 없이 모두 소진하는 게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가 한 오륙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굉장히 그 사업 효과를 인정받아서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셨던 취소 물량은 이게 매년 물량이 적지 않다 보니까 미리 쿠폰을 받으셨다가 취소를 하시는 국민들도 계시고요. 또 실제로 쿠폰을 받으시고 나서 미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들은 차기 숙박 페스타를 진행할 때 같이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기존 배포 방식을 보면 관광공사가 정한 상한선 10%에 도달하면 그 채널은 더 이상 판매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채널들도 판매를 계속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잔여 물량이 남아도 행사는 바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싶은 게, 제가 제안드리고 싶다면 이 상한선 10%는 그대로 유지하되 약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잔여 물량이 남았을 경우 상한선에 도달해서 판매할 수 없는 채널일지라도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의 영향력에 따라서 조금 되고 안 되고 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은 물량은 다시 모아서 재분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관광공사의 서 대행님, 증인 신문 오래 기다리셨지요? 혹시 오전에 제가 질의한 거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그럼요.

○**배현진 위원** 어떻게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제 있었던 점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제가 아직 회신은 못 받았고요. 그건 제가 아까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현진 위원** 제가 질의 시작할 때 투명, 공정 이게 다 담보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오전에 제가 두 가지 지적했던 것,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두 번째 여성기업이라는 수혜, 제도적 특혜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내부에 어떤 커백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것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배현진 위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현장실사를 나갑니다, 수의계약을 나갈 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넥스트스텝이라는 기업의 등록 주소가 찾아보니 빵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띄워 드린 주소 보세요.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운길 하고 주소 나와 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배현진 위원** 그다음에 이 넥스트스텝이라는 회사가 등록한 주소지입니다. 같은 주소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배현진 위원** 같은 건물에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집 2층에 있다는 말씀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 넥스트스텝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를 봤더니 역시 빵집

주소와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정보라면 이 기업은, 이 업체는 빵집 2층에 사무실을 자리하고 있어야 정상이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배현진 위원 그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2023년 4월 28일 자 현장실사한 내용을 보면요 사무실이 1층에 있어요. 저 도로번호 찍혀 있는 현관문 있는 데부터 안의 사무실을 다 포함해서 찍은 사진 보이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배현진 위원 그다음에 보여 드리는 사진은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3월 13일 사진. 이 또한 다른 수의계약 건으로 현장실사를 나간 사진인데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있습니다. 안의 공간은 밖에서 확인할 바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2층짜리 건물이, 빵집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4층짜리 건물로 바뀌었어요. 대체 이 공간은 뭘까요?

다음 보여 주세요.

그런데 문체부의 현장실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주소도 일치하고 대표자 일치하고 소재지, 현장 영업 여부 다 일치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같은 주소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태연히 해 났습니다.

또 다른 현장실사 사진들을 좀 보면요, 이게 다 계속해서 각각의 다른 수의계약 건마다 나간 관광공사가 현장실사 보고서라고 결과보고서를 첨부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5월 3일, 7월 17일, 9월 13일, 올해 다 벌써 3건의 수의계약 건을 위해서 현장실사를 나간 사진인데 사진 어떻게 보이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똑같아 보입니다.

○배현진 위원 매번 실사를 나가서 찍은 사진 같습니까, 아니면 있었던 사진을 어디서 복사-붙여넣기 해서 한 사진 같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같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배현진 위원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배현진 위원 관광공사가 지금 현장실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1년에 1500여 건, 지금 공사의 한 해 5000억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업체들이 이 기관의 수의계약을 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잠깐 일했던 어떤 경력을 통해서, 혹시나 거기 있던 인맥을 통해서 그들과 찐짜미를 해서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하고 정말 속 편하게 돈을 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국민적인 정서상으로 공정합니까, 안 합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물론 공정하지 않습니다.

○배현진 위원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배현진 위원 문체부 담당 국장님, 관광정책국장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관광정책국장입니다.

○배현진 위원 제가 오전부터 지목해 드린 이 세 가지 지적사항들 보시면서 한국관광공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같이 좀 공감을 하셨을 텐데 문제가 있습

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위원 문제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문체부의 철저한 감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반드시 수의계약을 통한 내부 거래자들 복마전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일벌백계하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저녁 8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감사중지)

(2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한말씀도 못 하신 것 같아서, 김대진 총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예.

○신동욱 위원 지금 한예종은 우리나라 예술전문학교로 자리를 잡았는데 석사나 박사 과정은 없으신 거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저희는 석사 과정을 운영은 하고 있는데 학위 인정을 지금 현재 못 받고 있고요.

○신동욱 위원 학위를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교육법에 의해서 상급 학위로 진학할 때만 대학원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타 대학의 박사 과정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 대학원 학위가 인정을 받고요.

○신동욱 위원 그거 굉장히 기형적인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저희가 각종학교로 묶여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원 과정을 타 대학이랑 똑같이 이수하고 그 대신에 학력 인정을 못 받으니까 학생들의 요구는 굉장히, 개교 이래로 있어 오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계속 요구는 하시는 거고요? 학생들은 여기서 계속 박사까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학생들은 어차피 여기는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대학원을 아예 안 오고 타 대학 대학원으로 가게 되고요. 그럴 때 자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 가지고 타 대학으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그렇게 떠나보내야 되는 교수님들의 마음이 저를 포함하여 굉장히 참 안쓰럽기도 한 상황입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한예종의 교수진이라든지 또 국제적인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외국의 유학생들도 석사·박사과정에 많이 유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시는 거지요, 사실상?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이제 학부로밖에 올 수가 없는 거지요, 외국 유학생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가 있는데 대개 학부에 속해 있고, 대학원 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본인들이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우고 싶어서 학교를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욱 위원** 법률적으로는 각종학교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조금 기형적인 형태로 시작을 해서 각종학교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만의 설치법이 제정돼서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은데, 사실은 한예종 역사상 지금까지 세 번 추진을 했었고요. 마지막에 추진한 경우에는 저도 사실 총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추진을 했었다가 타 대학의 반대가 있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도 기록을 보니까 99년, 2006년, 202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 부분을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워낙에 타 대학의 반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사이에 타 대학과 협업도 하고 타 대학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만 많은 것을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상생하기 위한 그런 방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데 다른 대학과의 상생을 전제로 한 그리고 한예종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예술인들을 키워 내는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일단은 해외 유학생, 사실은 해외에서 한예종으로 유학을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을 받으려면 유학생의 경우는 대학원으로 오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서 활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외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오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놓는 게 지금 제도적으로 가장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결국은 법안을 바꿔 줘야지 가능한 거네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박수현입니다.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서영총 관광공사 사장직무대리께 여쭙겠습니다.

사장님, 1년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장애인이 혹시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70~80% 이상 되는 것으로……

○박수현 위원 그렇지요? 2021년 기준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장애인이 무려 약한 84% 정도에 이르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기간 15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국내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국민은 6%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여행에서 장애인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관광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주로는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 이동에 대한 불편, 턱을 없애든지 아니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그런 시설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축지 안내판이나……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깐 대부분이 시설 개선에만 치중돼 있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보고서를 보니까 주로 말씀하신 대로 점자 팸플릿이나 축지음성 관광안내판 그리고 장애인주차장, 보행로 정비 등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빈약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시설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일부 프로그램들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모형이나 아니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안내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아직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다. 더욱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늘려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열린 관광지를 만드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시설에 집중하시지만 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노후가 되는데 관광공사에서 선정 후 3년이 지난 열린 관광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로 실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에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들에 대해서 개선권고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지요? 더구나 유지·관리 우수 관광지를 선정해서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제도 역시 2023년에 폐지되었고 그럼으로써 지자체가 후속 보수작업에 대한 의지를 가질 만한 유인책도 사라져 보인다고 이렇게 저는 보이는데, 사업을 통해서

시설개선 예산은 지원하면서 그 시설이 계속해서 적절히 유지되도록 독려하거나 강제할 수단이 없는 이런 현실은 근본적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테니까 공사에서 이 문제를 함께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다음에 전국에 약 3600명 정도의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는데 그중에 수어가 가능한 해설사가 한 24명 정도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중에 열린 관광지에 배치된 수어 가능 해설사는 겨우 9명뿐이던데, 162개 열린 관광지 모두에 해설사가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설사가 있는 곳이라면 최소한 수어가 가능한 해설사 한 명은 있어야 진정한 열린 관광지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선택의 문제인데 시설물도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아직 충족스럽지 않은 곳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확충시키다 보니까, 지금 한 132개의 열린 관광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는 중간점검을 해서 방향을 어떻게 좀 더 완벽하게, 말씀하신 프로그램도 확충하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상급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이것이 어려운 자료일지 모르겠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강의 계획이라도, 아주 간단하게도 좋으니까 앞으로의 노력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박수현 위원** 짧게 그것 하나 여쭙봅시다.

지금 의료대란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대란 속에 대책이……

1분만 하겠습니다.

대책이 그렇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관광공사에 자료를 여쭙어 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대란 대책 논의 등 협의 내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함’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일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의료대란을 보건복지부만의 문제로 남겨 두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수현 위원** 어차피 외국인 관광객의 문제는 관광공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외국인…… 제가 구체적으로 좀 걱정되는 수치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보건복지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 환자 현황에 대한 대책을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부실하게 낸 것 같은데 올해 저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제의료협의회에 참가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의료관광비자 간담회에도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작년, 주로는 몽골 지역이었는데 저희가 환자들을 유치하는 게 미션이다 보니까 병의원 수십 개를 대



거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행사로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도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신 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도 종합감사 전에 세밀하게 좀 보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사감위원장님,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바다이야기 아시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진종오 위원 바다이야기가 정말로 많은 국민들을 도박에 빠트리고 합법을 가장한 아주 매우 도박성이 강한 사행성 게임이었지요, 결국에는 패가망신한 사람들도 많았었고.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홀덤뽑이라고 아시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홀덤뽑 또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홀덤뽑에 대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제2의 바다,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홀덤뽑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관계부처 간에 협업이 돼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강원랜드에서는 저위험 카지노게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대 15일 출입 가능하고 또 이게 초과했을 경우에는 아예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데 홀덤뽑은 일반음식점 그리고 자유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대로 간다면 바다이야기처럼 또 심해질 게 분명히 뻥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가능할 것 같은데, 정부 측 규제도 당연히 규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신속한 대응이 없으면 견잡을 수가 없어질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TF를 구성하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홀덤뽑 관련해서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자체 내에……

○진종오 위원 현재 감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지금 3명으로……

○진종오 위원 3명이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진종오 위원 총 15명입니다, 위원장님. 15명이고 그중에 경찰 인력이 3명, 문체부 1명, 전문감시원 1명, 나머지 10명은 현장감시원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3명은 전담하는……

○진종오 위원 전담 팀이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진종오 위원 예, 맞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아까 말하는 열다섯……

○진종오 위원 15명이 있고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또 앞으로 증원도 될 거고……

○진종오 위원 증원이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3명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경찰 1명 현장 감시원 2명인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 정도로 충원돼서는 저는 도저히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홀덤펍 내 불법도박 관련해서 월별로 457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중에 106건은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도 있고. 감시 인력이 업무 과중된 것으로 보여서 약간 감시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걱정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경찰청 특별단속 보면 2023년도에는 한 1000명 정도가 검거되었는데 24년도에는 1000명이 아니라 3800명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범죄수익 또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범죄수익 또한 100억이 늘어났고요. 이런 걸 봤을 때 홀덤펍이 점점 불법화되어 간다는 게 수치상으로도 검증이 되고 있고, 이게 더 많은 범죄로 이어질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아까 말씀, 인력 문제도 있는데……

○진종오 위원 인력 문제 있고요, 분명히 있고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계부처하고 협업을 해서, 더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의 새로운 불법 유흥이 나오는 건지 한번 제대로 진단을 해 보면서 적극적으로 좀 사전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제2의 바다이야기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겠다는 마음에 간절히 말씀드리고요. 당구 같은 종목은 예전에도 약간 불법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스포츠로 자리 잡은 것처럼 이렇게 개선된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정집 근처에도 홀덤펍 경기장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 부분 또한 위원장님께서 철저히 감시해 주셔서 관리감독 부탁드리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유념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해졌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경찰청 자료를 받아 봤더니 최근 10년 동안 도박범죄 소년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10년 전 60명이었는데 지금은 올해 8월까지 집계했는데 328명, 5배 넘게 증가한 거지요. 입건된 기준으로 통계를 잡는데 이 입건이라는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초범에 판돈이 50만 원 미만이면 훈방하고요 500만 원 미만이면 즉결심판, 500만 원 이상일 때 형사 입건이니까 지금 입건된 게 328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꽤나 엄청나게 심각하다라는 의미를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촉법소년, 도박 촉법소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이런 통계도 없었어요, 개념도 없었고. 그런데 21년부터 한 3명 이렇게 등장하더니 올해 8월 몇 명인지 아시나요? 45명. 고작 한 3년 사이에 15배라고까지 말할 수 있지요. 아직 이게 아마 눈에 띄지 않은 경우도 많을 텐데 문제는 이게 웹툰이나 웹소설 이런 걸 공짜로 보려다가 불법 OTT 광고 이런 것들과 접근해서 만들어지는데……

또 다른 방식 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유튜브 바카라라는 겁니다. 바카라라고 그냥 검색어에 넣기만 하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영상들이 뜹니다. 애들이 먹방 보듯이 보다 보면 빠지게 되는데 심각한 건 이 밑에 URL이 다 달려 있어서 클릭만 하면 도박 사이트에 들어간다는 건데요. 바카라는 누가 들어도, 할 줄 몰라도 이것 도박이라고 인식을 해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다음 화면 보시면 이걸 조금 더 심각한데요. 달팽이 레이싱 게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아주 저연령대 도박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달팽이 중에 누가 이길지 마치 경마나 경륜처럼 거기에 등수를 걸고 말 그대로 도박성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이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게 문제인데……

이런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중독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위원장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지금 말씀하신 중독 문제도 크고 자주 거론이 되지만 2차 범죄 이런……

○**강유정 위원** 맞습니다. 2차 범죄 때문에,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학교폭력의 주요한 원인이 돼서, 아시겠지만 TV 드라마로도 이미 만들어진, 소재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달팽이 게임 보시다시피 성인 도박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노리고 만들어 놔는데 왜 사감위, 이 문제 지금 첫 번째 아니잖아요,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해결책을 못 만드는 겁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청소년 도박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강유정 위원** 11월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강유정 위원**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대응팀도 만들었고……

○**강유정 위원** 만든 건 알아요. 그런데 왜 제대로 된 대응이 없이, 작년 11월이면 벌써

1년 다 되어 가지 않습니다. 이게 TF만 만들었지 실제로 문제 해결에, 정말 어떠한 실질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경찰청과 강력 대응을 논의하겠다. 강원랜드와 합동 캠페인한다. 마사회와 건전 사행산업 발전에 협력하겠다’, 너무 하나 하나 소리처럼, 이게 제가 처음 하는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핑계밖에 되지 않는 듯해서…… 이 유튜브 도박 방송 관련해서 타 부처와 당연히 협의해야 되지요. 협의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 계획을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종감 때도 어떤 계획들이 마련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하나까요 이 계획과 방안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관광공사 서영총 사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주라는 도시가 규모가 크지 않아서 정주여건도 여러 가지 부족할 텐데 더 잡고 같이 일해 주셔서 원주시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감사합니다.

○**박정하 위원** 원주로 간 게 한 10년 됐나요? 2015년 이전하셨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14년에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14년도, 10년 정도 됐네요. 균특법에 의해서 갔는데 목표가 보니까 수도권 집중 해소, 자립적 지역발전 토대 구축 이런 거예요.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박정하 위원** 원주에 계셔서 감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광공사가 지난해 보니까 지역 우선 계약 건수를 보면 약 한 전체 15% 정도 되고 금액 대비 비율로 보면 1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계약 건수로 치면 애초에는, 19년도에는 2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고 금액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용역·물품·공사 다 포함해서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을 보니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78%선, 한전KDN 같은 경우도 35%선 이렇게 되는데 관광공사는 한 11%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지역민 입장으로서 이 법률 취지, 지역발전 토대 구축이라는 법률 취지와는 다소 미흡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도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사장님도 같이 고민하셔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체화시켜서 같이 상의하고 같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의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재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신동욱 위원님 재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주셨고 저 또한 이게 한국 문화계의 대단한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블랙리스트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점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강의 쾌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쾌거가 되어야지 특정 진영에서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준희 원장님 자리에 아직 계시는 거지요? 오전에 답변……

잠깐만 좀 세워 주십시오, 잠깐만요.

저쪽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김준희 원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직도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 과거의 시점과 현재의 시점을 조금 착각하게 만드는 듯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원장님이시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정확한 팩트 체크에 근거해서, 공직에 계시니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한강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배제되는 이런 역사가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리고 세종도서 문제는 제가 찾아본 기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2014년도 ‘소년이 온다’ 그것도 관련돼서 배제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질의는 보면 총체적으로 한강의 작품이 전부 다 배제되어서 이분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본 것처럼 하는 것은, 물론 어느 특정 시점의 것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한강 작가님을 위해서도 그건 좀 정확히 밝혀주시고 이분이, 시점의 문제도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블랙리스트랑 관련된 것은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일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은 시기가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는 일인데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드린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블랙리스트는 전혀 저희와 관계없는 일이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욱 위원**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대응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한강 작가가 대중적으로 유명해지고 국제적인 성과가 높아지기 시작한 뒤부터는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한강 작가를 배제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는 아주 열정적으로 한강 작가의 해외판 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지원한 결과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정치권도 한강을 우리 모두의 한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한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출판문화원에서도 팩트 체크해 주실 것은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첫 노벨문학상 수상의 쾌거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자면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는 데는 번역이라고 하는 작업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기관이 한 일은 아니고 문학번역원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해외로 번역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좋은 일에 저희들이 괜히 손가락 얹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학번역원에서 굉장히 많이 번역을 지원했다는 것 이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순서상 박수현 위원님입니다.

○**박수현 위원** 저지요?

○**위원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김효재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전국지와 지역지, 편중된 정부광고 이 문제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까만 좀 개선이 필요하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문제는 사실은 광고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수현 위원** 글썄, 저도 그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진흥재단에서 또 하셔야 되는 것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미디어믹스에 저희들이 충고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선택은 그야말로 광고주가 하는 것이고, 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광고주들은 광고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 재단이 광고를 어디다가 해라, 할 것을 권한다든가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당연히 정부광고 매체 선정을 하는 것은 광고주의 재량에 속하는 것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각 지역의 특성과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지역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우선 제가 표 2개를 한번, PPT를 보여 드릴 텐데요.

최근에 3년 동안 전국지, 지역지 상위 20곳 정부광고 집행현황을 한번 표로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까? 어쨌든 이 자료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지역지 상위 20곳 정부광고 집행현황을 보면 아무리 지금 그렇게 광고주의 선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역 편중이 너무 심하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창간 이후에 20년 동안 우선 사업 대상사로 신청을 해 왔던 충청권 지역신문사가 올해부터는 우선 사업 대상사 선정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기사까지 내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역할과 사업 실효성을 꼬집어 지적하는 이런 일도 있었거

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의 답변의 취지나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적절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시면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박수현 위원 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광고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마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배당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사실은 지금 지역언론이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비롯해서 지역신문이 어떻게 하면 고사하지 않겠는지라는 것을 저희 언론진흥재단은 광고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역신문 대표님들과 하고 한번 만나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광고의 문제 두 가지가 저는 다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좀 더, 어차피 지금 그 일을 맡으신 이상 분명 이름에 맞도록, 업무 영역을 정확하게 딱 끊어서 광고면 광고 또 다른 대책은 대책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연결을 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생각해 오신 게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험하신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지 말고 제출을 한번 해 주시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또 질의할 게 있으면 하고 논의할 게 있으면 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이은우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원장님, 김건희 여사가 작년 10월 31일 그 행사에 오셨다는 것 언제 아셨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10월 31일 행사에 오셨다는 것은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을 초기에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기현 위원 짧게 말해 주세요. 그래서 언제 아셨어요, 최근에? 그러면 9월 말, 10월 초?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이기현 위원 9월 말이겠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위원님들이……

○이기현 위원 9월 말 JTBC 취재가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서 계시고요.

이성구 방송기획관님 일어나 주실래요.

다시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신 것 기획관님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기획관 이성구 여사님 오신 것을 인지한 시점요?

○이기현 위원 예.

○한국정책방송원방송기획관 이성구 의원님실에서 저희한테 문의를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임자들에게 확인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면 9월 20일 이후네요.

잠깐만 서 계십시오.

그리고 조대익 PD님, 본인도 그 행사장에 가 계셨는데 중계차에 타고 계셔서 몰랐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작년 10월 31일 날 행사에 오신 것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원장님하고 기획관님 말씀하신 그 시점에 같이……

○이기현 위원 그러면 9월 말이네요?

화면 하나 띄워 주실래요.

서서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날 14명의 KTV 직원들이 현장에 파견을 갔습니다. 어떤 분은 이틀, 어떤 분은 3일 파견을 나갔어요. 무려 14명입니다. 하종대 원장, 최재혁 기획관 두 분 나가셨지만 조대익 PD, 최용석 PD 이하의 직원 14명이 파견을 나갔습니다. 여사가 안 오기로 했던 행사에 갑자기 여사가 나타났는데 저 14명이 와서 ‘김건희 여사 왔다 갔어’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직원들끼리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조대익 PD님, 저는 조대익 PD님께서 위증의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 행사장에 김건희 여사가 왔어요. 그리고 14명의 직원이, 본인은 안 보셨다고 하지만 적어도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사 끝나고 나서 막걸리도 못 드시고 서울에서 주무시고 내려가셨을 텐데 김건희 여사 온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던가요, PD님한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제가 올라갔을 때는 현장이 정리하는 분위기여 가지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기현 위원 회사에 복귀해서도 30명도 안 온 행사에 여사가 왔는데 PD님한테 김건희 여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열댓 명의 부하 직원들이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저희들은 다 정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리고 원장님과 방송기획관님, 저희 방에서 9월 초에 취재를 시작했을 때는 제보만 있었어요. 사진이 없이 물었을 때는 김건희 안 왔다, 없었다 그리고 관중은 무관중으로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진이 나왔어요. 9월 20일경입니다. 그때 JTBC가 그 사진 들고 취재하기 시작했고 저희 방에서 질의를 넣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우리는 몰랐는데 전임 하종대 원장이, 확인해 보니까 하종대 원장이 왔다 갔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하셨어요.

세 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저희 방의 취재와 그리고 JTBC의 취재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시다가 나중에 시간이 돼서 사진이 나오니까 인정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용산 대통령실, 문체부, KTV에



JTBC와 저희 의원실에서 취재에 들어가니 처음에 JTBC의 취재와 저희 방의 질의에 대해서 용산에서 ‘야, 김건희 여사 온 것은 지워. 없었던 거야. 증거 없어’라고 털었고 이제 분과 그리고 문체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을 맞췄던 거예요, 사진 나오기 전까지. 그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앉으세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현 위원** 좀 이따 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10초밖에 안 남아서, 한국관광공사 사장님께 제가 두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꼭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김효재 이사장님, 지난 8월 26일 날 현안질의에서 답변을 하신 게 있는데,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당시 ‘2023년부터 언론 관련 단체 지원에 선정된 결과를 보면 미디어연대나—공정미디어연대겠지요—자유언론국민연합 이런 데가 전체 공모사업 대비해서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12%까지 늘어납니다. 이 단체들 전부 이름이 좀 있는 단체들입니까?’ 했더니 김효재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런 단체들이 그동안에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고’ 이 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이고요. 그 말씀은 막연한 추측이었는데……

○**조계원 위원** 추측이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2개 단체는 한 번도, 처음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유언론국민연합만 처음에 한 번 떨어지고, 그 2개 단체는 처음으로 불이익을 받은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답을 하셨지요? 인정하시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러니까 제 그 답변은 막연한 추측이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건 취소하시겠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조계원 위원** 취소하셔야지요.

그리고 당시 공모사업을 하면서 공모신청 안내서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 규정이 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공정미디어연대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공정미디어연대에서 2024년도에 제출한 지원신청서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때 공정미디어연대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원래는 공고일 기준으로 나갔던 게 설립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 기준으로 해서 공정미디어연대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지난 현안질의에서 확인된 사항이고요.

일단 기관 현황을 보시지요.

기관 현황을 보면 공정언론국민연대의 사업조직으로 출범한 조직이에요, 공정미디어연대가요. 그런데 기관 연혁을 보면 공정언론국민연대 사업조직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아무런 연혁이 있을 수가 없는데 기관 연혁이 거창하게 죽 나와 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희들도 저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가지고 나중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도 저것을 지금 허위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조계원 위원 아니, 당연히 허위 아니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것은……

○조계원 위원 아니, 단체의 별도의 대표고 정관이 별도의 정관과 사업 소재지, 고유번호를 갖고 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단체의 연혁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단체가 아닌 것을 얘기……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허위 서류잖아요. 이게 허위 작성한 거잖아요. 기관 연혁의 근거를 공란으로 비워 두기 뭐 하니까 이렇게 작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걸 가지고 그걸 아니라고 우기세요? 이 업체하고 관련된 게 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요, 거기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요.

○조계원 위원 거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공정미디어연대가 이때 신청된 단체 중에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아 가요. 세 항목에 걸쳐서 4200만 원을 독식해요. 이거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저희들이 회수할 근거가 되는데 그걸 허위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조계원 위원 무슨 법적인 다툼이 있어요?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조계원 위원 기관 연혁을 이렇게 허위로 작성한 게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거 살펴보시고요, 이에 대해서 지원금 회수와 관련된 조치 사항까지 관련해서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말씀 중에 사실관계를 조금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강 작가가 유명해진 다음부터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축전을 거절했던 사태도 있었지요. 그리고 단순히 ‘소년이 온다’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어떤 어려움을 호소했냐면 한강 작가를 2014년 43회 런던 도서전에 초청하려고 했던 런던

측의 초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정부 측의 배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번역원이 주한영국문화원과 이미 참여작가 협의가 완료되었다라고 간곡하게 설득해서 겨우 보낸 일이 있었고요. 이 일은 2016년도 파리 도서전에, 그러니까 한강 작가 배제가 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베를린 문학축제 및 문학행사 작가 파견에도 배제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어긋나서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대행에게 묻겠습니다.

K-갈라파고스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최근에 들었습니다.

○강유정 위원 한국이 굉장히 인터넷 강국이라고들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막상 실명인증, 사전검열, 데이터 국내 보관, 각종 보안인증 프로그램, 우리 다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려 너무 열악하다라는 그런 조롱의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관광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답답함을 느끼는 분야라고도 합니다.

2023년에 외래관광 조사를 했어요, 문체부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최우선 개선 영역으로 뽑은 영역이 바로 어딘 줄 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강유정 위원 대중교통 그리고 관광안내 서비스, 마지막으로 디지털 관광정보. 말 그대로 요즘에는 다 웹에서 지도를 찾을 수 있고 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지요. 일본, 대만만 가도 구글맵, 애플맵이 다 통용이 되는데,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전쟁 위험이 더 높다고도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안보를 이유로 구글이나 애플지도 제공 요청을 불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문체부나 그리고 관광공사만큼은 여러 면을 설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갈라파고스화를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보도자로 나갔더니 조금 움직이셨더라고요.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점검 회의에서 지도 반출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단시간 내에 결과가 있을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와 공동으로 해서 관계부처 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구글맵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 환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문체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긴 하지만, 아무리 대행이시긴 하지만 관광진흥 부서로서 역할을 좀 잘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간정보법상 지도데이터 반출을 위해서 협의체에 문체부를 좀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가 사실은 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도 함께 이 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알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관광공사의 서영충 직대님, 혹시 만사건통이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들어 보셨지요, 만사형통?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그냥 추정만 됩니다.

○민형배 위원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들어 보셨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예, 그럼요.

○민형배 위원 이게 평소에 쓰는 어휘이기도 하고 MB 정부 때 특별히 쓰였던 어휘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은 만사건통이라고 그래요.

표를 좀 보실까요? 자료 준비 안 돼 있나요?

표가 없어서 제가 해 드릴게요.

한국방문의해위원회라고 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예.

○민형배 위원 위원장이 누굽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방문의해위원장은 이부진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명예위원장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방문의해위원회가 공사하고 별도의 조직이라서요……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명예위원장은 영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관광공사 예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관광공사 예산의 연도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예산을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명예위원장으로 등장한 다음에 72억이 작년에 배정이 됐고요. 올해 87억이고 문체부는 내년도에도 128억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예, 예산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 예산이 2016~2018년 때는 9억 원, 12억 원 이었는데 2023년, 2024년 때는 87억이 돼요. 김건희 여사 등장 이후에 이렇게 7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만사건통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오늘 국감장에서 보셨겠지만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그쪽으로 다 쏠려 가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야지 뭔가 해결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명예위원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한국방문의해 관련해 가지고 하신 일이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의해위원회는 공사하고 관련이 없는 조직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관광공사 예산이 87억이나 책정돼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예산 내역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민형배 위원 그리고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관계가 없다고 그러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방문의해에서……

○민형배 위원 지금 민관재단 아니에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관계가 없다고 그러시냐고요.

관광공사에는 추진단이 있잖아요, 협력단이?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민형배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아니, 위원님께서 조직을 이야기하시니까 조직은 별도의 조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거 모르고 제가 여기서 여쭙겠습니까? 저쪽에는 협력단이 있고 이쪽에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민형배 위원 왜 이렇게 모른 척 판소리를 하세요.

무슨 일을 하셨냐고요, 이분이. 명예위원장으로서는 무슨 일을 하셨길래 관광공사 예산이 87억이나 배정이 됐냐고요. 관계가 없는데 예산이 왜 배정이 됩니까, 방문의해 재단하고?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

○민형배 위원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예산도 모르고 계시고.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아니요, 예산이 23년보다 24년이 늘은 건 맞는데 그 관계가……

○민형배 위원 이전의 1기, 2기, 3기 때보다 훨씬 늘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니, 사장님이 그걸 파악을 못 하시고 어떻게 일을 하신대요.

하여튼 김건희 여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아마 명예위원장은 상징적인 역할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하면 예산이 7배로 올라갑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산이 그것 때문에……

○민형배 위원 이부진 위원장하고 사진 찍은 거 말고는 한 일이 없던데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그것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오른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민형배 위원 사진을 좀 올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이후로 그렇게 예산이 올라갔어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관광공사 예산이 저 이후로 저렇게 올라갔다니깐요, 그 협력단 출범식 행사 때, 한국방문의 해 K-관광 협력단 출범식 행사 저거 하고 나서. 모르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그건 상관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올해 관광수지 적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지금 7월까지……

○민형배 위원 2023년에 98억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만 해도 74억 달러여서 100억 달러가

넘을 것 같아요. 왜 이렇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31억 달러까지 줄였는데, 관광수지 적자를.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팬데믹 기간에는 적자가 좀 줄었습니다, 어차피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19년도에도 85억 불이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아니, 마무리해서도 됩니다.

○민형배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전재수 예.

○민형배 위원 어떻게 이것을 타개하실 작정이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지금 가장 큰……

○민형배 위원 방문의해 예산은 대폭 늘었는데 관광수지 적자는 폭이 커졌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위원님, 공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방문의해는 사실 좀 상징적인 행사였고, 방문의해가 아니라 공사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 모든 것들을 다 연계해서 방문의해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9년도에 1750만 명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팬데믹 들어가면서 21년도에 10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랬다가 작년에—당초에는 유치 목표가 800만이었는데 이후에 1000만으로 수정을 했지요—다행스럽게 1000만을 넘어서 1100만이 유치가 됐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전혀……

○민형배 위원 관광수지 적자를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라고 제가 대안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여쭙는데 계속 수치만 나열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그래서 지금 내국인들의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국내로 좀 돌리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숙박할인 페스타나, 올해 숙박할인 페스타는……

○민형배 위원 그런데 국내여행 지출도 올해 7.7조, 8월 말까지 해서 50%밖에 안 됐는데 이것 낙제점수 아니에요? 대책을 좀 마련하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KTV 이은우 원장님, 앞서 답변 중에 보니까 관저 공연에 대해서 인지한 게 한 9월 20일경 맞나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박정하 위원 최초 인지한 게, 아까 보니까 답변을 그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국회에서 질의가 들어가고 방송사에서 취재하던 그 언저리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박정하 위원 이 원장님 부임은 언제 하셨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제가 5월 10일 날……

○박정하 위원 금년 5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박정하 위원 앞서 전임인 하종대 전 원장님, 제가 질의할 때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행사로 준비를 했었고 하다가 행사가 줄줄 줄고 그래서 여사가 오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냥 진행을 어쨌든 하다 보니까 깜짝 오셨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어요.

전체 상황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되고 의혹이 제기됐던 것처럼 여사를 위해서 그 공연을 만들었고 여사를 위해서 모든 게 준비가 됐다는 것과고는 좀 결이 다르지 않아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저는 여사를 위해서 이 공연이 준비됐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됐던 처음 상황과 지금 굴러오다가 하종대 전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결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어쨌면 우리가 전혀 다른 부분만 만지고 그쪽만 쳐다보면서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똑바로 말씀하세요. 처음 인지를 하신 한 9월 20일경부터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언론사 취재에 응대를 할 때, 그러니까 5월 달에 부임하셨잖아요.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전임 하종대 원장이나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하고 상의를 하고 자료가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자, 급하니까, 국회에서 막 몰아치고 언론사에서 막 몰아치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든 해 보자고 허둥허둥했어요? 기억을 정확히 더듬어 말씀 주세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정보가 회사 내에 너무 남아 있는 게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서류로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류가 남아 있는 것, 특히 섭외라든지 대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서류는 하나도 남겨져 있는 게 없고. 저희도 TV 모 매체에서 방송을 할 때 처음 그 서류들을 그때 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보안이나 경호 문제하고 얽혀 있어서 그런지 그러한 사안들이 외부에 막 노출이 되면서 된 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종감까지 국감 아직 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 의혹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야당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하셔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똑바로 정리해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박정하 위원 앞으로 계속되는 감사 중에도 정정해서 바로잡아야 될 일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재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이은우 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박정하 간사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니,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위원님들 답변 내내 끼어들기 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사과하세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알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시라는 거예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제가 갖고 있는 정보나 제가 갖고 있는 판단에 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오경 위원**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서 답변을 당당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시라고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종대 원장님 말씀을 쪽 들어보면서……

○**임오경 위원** 이제 듣고 나서 결과가 나오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내가 판단했던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판단한 게 맞으시다고요? 판단한 게 다 틀렸습니다. 박정하 간사님이 지금 어드바이스 잘 해 주시네요. 잘 생각하시고 잘 정리하셔서 말씀하셔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당사자인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셨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저희가 그동안에……

○**임오경 위원** 오늘 오전 내내 답변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성실하셨고요. 답변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있는데 끼어들기하셨고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들어가십시오.

김효재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광고지원센터 대강의실이 시민단체 기자회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공간은 기자회견이라든지……

○**임오경 위원**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없지요? 기본적으로 회의실 및 교육시설로 운영되는 곳 맞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습니다. 내부 공간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동물자유연대라는 시민단체는 정부광고 관련 단체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속하지 않지요.

○**임오경 위원** 안 속하지요?

정부광고지원센터 운영관리지침상 대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정부광고 관련 기관 및 단체, 학회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임오경 위원 먼저 PPT가 보였네요. PPT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8월 김건희 여사는 재단 내 정부광고지원센터 대강의실에서 진행된 한 시민단체의 개식용 반대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있어요. 그때 행사를 주최한 단체가 동물자유연대라는 시민단체고 이 단체는 정부광고 관련 단체에 속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 단체가 원래는 아마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그런 행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날씨 탓에……

○임오경 위원 앞서 답변에 동물자유연대라는 시민단체는 정부광고 관련 단체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부 규정을 어긴 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간단한 것을 왜 이렇게 길게 답변하십니까?

내부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정부광고지원센터에서 열린 유일한 시민단체 주관 행사에 공공롭게도 또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합니다. 재단에서 계속 김건희 여사가 오는지 몰랐다, 우발적으로 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아무 곳이나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 KTV에 이어서 동네 아줌마 행보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광고주인 농림부로부터 급한 요청 받아서 진행된 건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재단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가 재단에 연락을 해 사용을 문의하고 정권현 당시 정부광고본부장이 장소 사용승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최초 해명은 거짓말로 밝혀졌고 신청서 한 장 받은 내역 없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또한 작년과 올해 정부광고지원센터 대관 내역을 보니까 시민단체가 이용한 현황은 전혀 없습니다.

이사장님, 언론진흥재단이 김건희 여사 온다니까 평상시 시민단체에게는 열어주지도 않던 장소를 신청서도 안 받고 열어주니 황제관람에 이은 황제기자회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김건희 여사가 오는 자리는 매번 이렇게 모든 게 편법을 씁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건 제가 오기 전 일인데요.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오기 전의 일이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제가 오기 전 일인데 저도 지금 이번에……

○임오경 위원 KTV 원장님께서 오기 전 일인데 당사자가 치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다 지금 규정을 어겼음에도, 이거 그냥 몰랐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참 간단할 일을 갖다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지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거 규정 어긴 것 맞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것은 제가 규정이……

○임오경 위원 규정 어긴 것 맞습니다. 규정 어겼고 특혜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진흥재단에서 규정을 어겼으니까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건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제가 이 문제는 따져봐서 그 직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동물자유연대라는 시민단체는 정부광고 관련 단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개식용 반대 기자회견에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당당하게 개식용 반대 기자회견을 김건희 여사하고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보여 줬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단체가 와서 회견을 하고 있었고……

○**임오경 위원**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사장으로 계시니 잘못된, 규정을 어겼으니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것은 제가 사정을 알아보고 종합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종합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알아서 종합감사 때 말씀하십니까? 자리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사과부터 드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임오경 위원** 아니, 제가 지금 PPT까지 다 보여 드렸잖아요. 직원들이 설사 내가 없는, 이사장에 오기 전 일이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도 직원들이 실수했다면 사과라도 하시는 게 이사장님의 자리 역할 아닙니까? 아니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여하튼 일단 먼저 사태 파악을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그것 받아들이겠습니다. 종감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종감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까지 한 열 분 정도 더 계십니다.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해서 순서에 따라서 신동욱 위원님 5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아침에 질의드렸던 GKL의 김영산 대표님, 그 자리에 일어서서 그냥 답변하십시오.

지금 한 12시간 정도 지났는데 혹시 그 사이에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부분 직원들에게 좀 물어보셨습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기 때문에.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계약하는 게 많습니다, 굉장히. 1년에 한 240억 정도 계약을 하는데 지금 현재 파악하고, 오늘은 보고 못 드리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 내부 자료와 외부의 견적서가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못 알아보신 거예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전재수 위원장, 박정하 간사와 사회교대)

김효재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그동안 진흥재단에서 해 오던 전통적인 업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잘 봤는데, 최근에 언론인 문제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딥페이크에 의한 언론인들 피해 문제라든지 또 언론사들의 저작권 보호 문제라든지 또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에서 언론의 창작물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미래 언론사들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업무보고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재단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보여서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사실은 업무보고 굉장히 길게 썼었는데 짧게 해 달라고 그래서 생략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뒤로 갔는데요. 사실은 재단이 지금 신문협회, 방송협회 등과 함께 바로 신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언론의 저작물을 특히 AI에 활용하는 그리고 챗GPT나 이런 곳에 활용하는 이 뉴스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가 되면 그 포럼의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그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각 주별로 다 다르고요 유럽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나 아니면 캐나다 같은 데도 국가적으로 사실은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포럼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는데 그게 뭔가 정책적 대안으로 나오려면 좀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지금 서두르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포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사실은 국회에서 입법화해 주셔야 그래야 비로소 그때부터 네이버든 어디든 강제성을 띠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게 국회의원님들에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신동욱 위원 사실 입법사항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특히 플랫폼들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들은 전체적인 여러 정부부처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같이 뭘 좀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하여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별 언론사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거의 역부족인 상태여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뉴욕타임스같이 큰 회사는 개별적으로 받아냈습니다. 받아냈는데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도 큰 언론사는 자기가 합니다, 혼자. 왜냐하면 이익을 남과 나누기 싫어하는 게 언론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소 언론사들은 혼자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때 저희들 언론진흥재단 같은 기관이 나서서 그분들을 돕고 하나의 조직으로 해서 하려고 한다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게 거의 유일한 사례 같은데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지방 언론사의 생존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고를 얼마를 더 주고 이런 것보다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의 드렸고, 정말로 심각하게 예산도 좀 많이 편성하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이은우 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하종대 증인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여사의 참석을 KTV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오지는 않으셔서 중간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아까 분명히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의 증인 신문 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기현 위원님께서 자료 공문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처음에는 이 행사가 대통령 내외와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대통령 내외와 그다음에 주한대사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초청했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자 대통령 내외와 그다음에 문화관계자 이렇게 3단계로 공문을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까 하종대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참석을 요청한 것이 맞는 것이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런데 그게……

○**박수현 위원** 잠깐 들어 보세요.

그런데 최초에 이 문제가 언론에서 황제관람으로 보도가 되었을 때 그때 첫 번째 해명이 뭐였냐면 잘 기억하시겠습니까만 ‘신영희 선생님을 모셨다고 그래서 우연히 만나러 들른 것이다, 국악인을 격려하기 위해서 잠깐 들렀다’ 이것이 최초의 해명이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렇게 우연히 들렀다라고 하는 식의 해명이 바로 국민적 의혹을 자아냈고 야당 위원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최초에 그렇게 지속적인 공문을 보내서 협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해서 안 됐는데 그러면 그대로 설명했으면 될 것을……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위원님……

○**박수현 위원**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왜 그것을 신영희 선생을 만나러 우연히 잠깐 들른 것이다 이런 식의 해명으로 은폐하

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

○박수현 위원 아니, 제가 시간 드릴게요.

그것인데, 저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서로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지금 말씀, 본인이 드린 신영희 선생 등 국악인을 만나러 우연히 들른 것뿐이다라고 하는 이 최초, 초기의 해명은 거짓 해명 내지는 은폐 해명이다,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참석을 지속적으로……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 당시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는 그거였습니다.

○박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 보면 종합적으로 첫 번째 해명이 이렇게 국민적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 건 사실 아니겠어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안 하고……

○박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의 그때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박수현 위원 첫 번째는 최초의 그 해명이 거짓 내지는 은폐 해명이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좋은 뜻으로 했다고 칩시다. 주한대사, 대사 부인 그다음에 죽었는데 바로 이것이, 부산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한 애초의 기획 의도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실패한 기획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사도 대사 부인도 오지 못하고 적어도 김건희 여사가 그 자리에 가서 나 홀로 관람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언론으로부터 야당으로부터 황제관람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평가를 받게 만든, 결과적으로는 나 홀로 관람, 결과적으로는 황제관람으로 귀결된 실패한 기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성공시키지 못한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은우 원장께서 5월에 취임하셨으니 이 두 가지는 종합감사를 앞두고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이 첫 번째의 신영희 선생을 만나러 잠깐 들른 것뿐이다라고 하는 최초의 해명이 거짓 또는 은폐 해명이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KTV의 기획 의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영부인을 나 홀로 관람, 황제관람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실패한, 성공하지 못한 그런 기획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첫 번째 말씀하신 신영희 선생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여기저기 수소문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고 그것은 지금도 아직 저는 확인이, 소위 말하는 그것의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기획이 실패한 것은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물론 오프라인 행사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KTV는 방송사기 때문에 방송을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송을 혹시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송은 제가 봤을 때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수현 위원 원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작은 불신이 사태를 키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의혹이 제기 되었지요. 아까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께서 화면으로 다 띄워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황제 의혹이라고 그랬냐면 원형 테이블이 마련이 됐고 꽃다발이 그 위에 마련이 됐고 김재원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팸플릿이 마련이 됐고, 여러 가지가 황제관람을 위한 기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해명하기를 왜, 이 국악인을 만나러 간 것만 했지 언론과 야당이 이야기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폐 해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만 했기 때문에 해명이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축소·은폐·거짓 해명이라고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러니 이 문제를 종합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기로 하고 원장님께서 이 지적에 대해서는 오늘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충분히 하셨지요?

○박수현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정하 박수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조대익 PD 나오세요.

녹화 당일 김건희 여사 온 것 몰랐다고 했습니다, 중계차 내부에 있어서. 맞지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본인은 방송 전문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기술적인 것 모르시겠지 하면서 바보로 생각을 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오는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진짜 몰랐습니다.

○김재원 위원 언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몰랐습니다.

○김재원 위원 설명하겠습니다.

방송국 내의 구조실을 옮겨 놓은 것이 중계차입니다. 외부나 현장에서 송출하기 위한 이동형 구조실이 바로 중계차이지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현장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여러 각도로, 예를 들자면 중앙, 좌측, 우측 이렇게 화면을 찍게 됩니다. 이 여러 대의 카메라는 보통 카메라 1·2·3 이렇게 나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정해 놓고 중앙, 좌측, 우측, 줌인, 줌아웃, 페이드아웃, 페이드인 등 구조실의, 즉 현장중계의 경우에 중계차 내부에서 모니터를 보며 PD가 이를 카메라감독에게 영상을 잡을 것을 지시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생방송이 아니라면 이렇게 얻어진 영상들을 편집하는 것이고 생방송이

라면 즉석에서 PD가 지시해서 카메라가 잡는 신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게 PD의 역할입니다. 맞지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맞습니다.

(박정하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원 위원 그런데 카메라는 보통 좌석의 뒤쪽 혹은 장소가 넓으면 높이 위치를 합니다. 제가 유인촌 장관에게 10월 7일 날 질의했던 때 췌던 사진 증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석에서 무대 쪽이 카메라에 가려서 보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좌석 뒤쪽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게 넓을 경우에는 높이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잡는 신을 전부 다 조정할, 여기저기를 찍어라라고 카메라 감독한테 지시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PD가 중간에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했다면 모를 수 있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예.

○김재원 위원 없지요? 그런데도 몰랐다고요?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아니요, 전혀 안 잡혔습니다.

○김재원 위원 카메라가, 10월 7일 날 제가 장관께 질의……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조대익 카메라는 앞쪽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김재원 위원 질의한 그 사진에 보면 카메라가 좌석 앞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석서부터 이렇게 뒤에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봤다고요?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KTV가 보유한 중계차 내부 모두 국회에서 직접 가서 촬영해서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아울러 그날 편집본 말고 녹화본, 원본 다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없다고 하면 해당 편집했었던 그 영상 저장했던 컴퓨터 제출하고 원본 복구를 해야 합니다.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전재수 자료제출……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 예.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릴 게 일단 저희는……

○김재원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김재원 위원 위원님들, 이 건물 바로 아래에 여러 대의 방송국 중계차들이 와 있습니다. 내부 보십시오, 모니터가 몇 개인가. 보통 중계차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PD가 그걸 다 조정을 합니다, 이 신 저 신 찍으려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안 잡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애기도 안 하고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그런데 PD가 그 중계차 안에서 그 많은 모니터를 두고 못 봤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종합국정감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다 하신 겁니까?

그러면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김태정 사장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나오는 동안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보면요. 제가 가졌던 제보는요 KTV 관련 황제관람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기획하고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가유산청 내용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주도하고 공짜 공연 받고 그리고 간담회 했습니다.

김태정 대표, 아침에 제가 영등위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전히 그 입장 유지하는 겁니까?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영등위가 아니라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

○양문석 위원 예, 영상물등급위원회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것 그대로 입장 유지하는 거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양문석 위원 아까 그렇게 이야기……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저는 등기부등본이랑 사업자등록 모든 것을 다 바꿨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저의 새로운 사실, 새로운 대표자 바뀐 것을 업데이트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영화진흥위원회 심의등급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누구예요라고, 거기 착오인 걸로 알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진위가 잘못된 거지요, 김태정 대표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라고 이야기했더니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위증인 것 아시지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양문석 위원 우리가 바로 그것 끝나자마자 영상물등급위원회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료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보여 줬던 자료가 저 자료입니다. 날짜가 어떻게 되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6월 14일부터 8월 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6월 14일부터 8월 7일까지 되어 있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저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잘못했다는 거지요, 저렇게 한 게?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아니, 저는 제가 바뀐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알릴 이유도……

○양문석 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제가 저것을 보여 드렸었을 때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재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재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뭐라고 대답했어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이……

○양문석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그쪽에서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주식회사 유나이티드미디어에서는 24년 8월 13일 대표자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위원회는 서류 확인 후 변경 행정을 처리한 바 있다’, 유나이티드미디어에서는 8월 13일 날에 대표자 변경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여 드린 저 내용들은 다 8월 13일 이전이에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저는 변경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갑자기 사업자등록증, 모든 걸 바꿨기 때문에 아마 후임자가 그걸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양문석 위원 후임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그 절차는 제가 잘 모르지만요 저는……

○양문석 위원 보세요, 김태정 사장님.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양문석 위원 아까는, 오전에는 너무 당당하게 영등위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다시 저희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는 8월 13일 날 돼서야 유나이티드미디어가 변경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잘못했다고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저는 변경 요청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이 바뀌면 그쪽에서 알아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좀. 유나이티드미디어 대표가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내놓고……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아니, 제가 그것을 바꿨다는 것을……

○양문석 위원 문제가 발생을 했어, 겸직금지에 걸렸어. 그런데 그게 내 탓이 아니고 처음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탓이야, 개들이 처리를 늦게 했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8월 13일 날 대표자 변경을, 그제서야 유나이티드미디어에서 했다고 자료가 왔는데 이제는 누구 탓이에요, 그게? 정말……

겸직금지에 대한 문제를 위반하신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해요? 본인이 잘못했거나 본인의 아내가 잘못된 일을 엉뚱하게 국가기관이 잘못했다고 왜 뒤집어씌워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씌우고 당당할 수 있는 게 불법으로 취직했기 때문이에요. KKK 라인, 김대중·강훈·김건희 라인에 의해서 얼떨결에 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문화부 국장, 담당 국장, 이해충돌방지법에 공직자로 채용·임명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또는 사적 이해관계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해충돌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그건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 유나이티드미디어하고 아리랑TV하고 내용이 엄청나게 유사하지요? 그때 장관께서도 유사한 일을 했고 그리고 아리랑TV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유능하다고 해서 발탁했다고 이야기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리랑TV하고 유나이티드미디어하고는 사업 자체가 이쪽은 수출하거나 배급하는 거고 아리랑TV는 저희 국가 홍보, 이미지 방송 이런 것들을 해외에 송출하는 거라서 유사, 이해충돌에 걸리는지는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 법적인 검토도 안 하고 아리랑TV 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양문석 위원 법적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이게 공직자가 밖으로 나갈 때는 이해충돌이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양문석 위원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기업에 있던 분이 공직으로 들어올 때는 취업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문석 위원 국장님, 문화부가 어떤 법적 검토도 하지 않았고 절차에 있어서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고 이력서 달랑 한 장 받고 그리고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사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조선일보 전 주필 김대중……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양문석 위원 정책홍보비서관 강훈 차기 관광공사 사장 그리고 김건희, KKK 라인에 의해서 강훈은 아리랑TV 사장과 본인의 취직까지 한꺼번에 정리했고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은 사위 취업 청탁했고 김건희는 뒤에서 불법적인 인사 전횡을 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양문석 위원 겸직금지를 어겨도 저렇게 뻔뻔하게 아리랑TV 사장이 내 탓이오가 아니고 국가기관 탓이라고 우길 수 있는 것도 그렇고요. 이해충돌에 걸려도 그냥 사장이 되는 것도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제가……

○위원장 전재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짧게……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

○위원장 전재수 가급적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그러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십시오, 다음 기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저는 아리랑국제방송 사장으로 오기 전에 90년도 아리랑국제방송 공채 1기로 입사해서 영상물수출지원센터 등 여기만 10여 년간 근무하면서 국제방송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특히 재직기간 중에는 한국 영상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2001년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영상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3회에 걸쳐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제 주식회사 유나이티드미디어를 경영하면서 민간경영자로서 유통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난 17년간 흑자경영을 해 왔고 또한 16년간 법인세를 꼬박꼬박 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업을 제가 접고 아리랑국제방송에 오게 된 것은 딱 이유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국제방송을 제대로 만들려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 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국제방송을 살리려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유나이티드미디어의 매출현황부터 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절 안 쫓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지난번에도 제가 아리랑TV와 관련해 가지고 김태정 사장님 공직 경력이 약 20년 정도 단절되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나이티드미디어하고 아리랑TV가 유사한 업무를 합니다. 해외방송 송출 또는 해외방송 영업권 확보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컨설팅까지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작대행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나이티드미디어와 아리랑TV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국가기관이고 하나는 민간기관이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헌신하거나 그다음에 희생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리랑TV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외부 민간인이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냐, 안 그러면 아리랑TV 내부 직원들이 승진해서, 아리랑TV 20년의 단절이 아닌 아리랑TV에서 뼈를 묻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냐 했었을 때 누가 봐도, 김태정 사장님보다는 아리랑TV 직원이 승진해서 아리랑TV를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것들은 누가 봐도 동의할 부분인데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리랑TV 사장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임명 과정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은 딱히 원하지 않았는데 조선일보 전 주필 김대중 씨 그리고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 강훈 그리고 강훈을 칠상시로 거느리고 있는 김건희, KKK 라인에 의해서 얼떨결에 김태정 사장님이 사장이 되신 겁니다. 희생과 헌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김태정 사장님, 종합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자료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종합국정감사 전에 양문석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제공을 해서 종합국감 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으로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저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3분 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은우 원장님,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십시오.

공무원은 문서로 말합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이기현 위원 오셨더니 사건이 취재가 들어왔을 때 KTV를 뒤져 봤더니 문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술도 없어서 안 오셨다고 하다가 나중에 하종대 원장이 9월 20일경에 왔다 가셨다라는 얘기를 드려서 그때 아셨다고 그러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세 가지의 문서, 누가 준 겁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하종대 원장님이 왔다 가셨다라는 얘기는……

○이기현 위원 잠깐만요, 들어 보세요.

이 세 가지의 문서, KTV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KTV에서 준 세 가지 문서에 대통령 내외분 계속 요청했고 그리고 진행했어요. 제가 지금 증인 신청을 조대익 PD님만 했는데……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게 KTV의 문서가……

○이기현 위원 제가 여기 있는 14명 다 증인 신청해서 종감 때 와서 14명 질의 한번 다 들어 볼까요? 이분들이, 아까 원장님이 뭐라고 진술하셨냐면 남아 있는 서류가 없었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14명이……

30명이 온다는 내부 잔치에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면 이건 뭐냐면 속어로 표현하자면 동네 경로당 할머니들 잔치에 임영웅이 와서 노래를 다섯 곡을 부르고 갔는데 할머니가 집에 돌아가셔서 ‘누가 왔다? 송대관이 왔다 간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14명 불러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해서 진술 한번 다 들어 볼까요? 그분들이 김건희 여사 온 것을 기억 못 할까요, 1년 전 일인데?

그런데 그걸 원장님께서서는 지금 증거 서류도 없고 진술도 없어, ‘알어?’ 그러니까 몰라서 이기현 의원실에 제출할 때 ‘김건희 안 왔다 갔어요. 몰라요’ 이렇게 진술했다가 사진 나오니까 인정하신 거예요. 그때 핑계는 하종대 원장이 전임 원장인데 물어보니 그렇게 진술해서 알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기현 위원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로 하늘을 가리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한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종감 9일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밑에 있는 직원들 마음의 상처 안 입게 해 주세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KTV 직원들, 이 행사에 가 있던 14명의 직원들, 2명은 나갔지만 12명은 남아 있지요? 오늘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위증하신 거예요. 12명이……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위원님, 제가……

○이기현 위원 잠깐만요. 이제 35초 남았어요.

12명이 분명히 김건희 왔다 갔던 것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서는 직원들 내부에서 아무 진술이 없어서 김건희 왔다 갔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셨던 거예요. 부인한 게 아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답입니다. 용산에서 그 당시의 방송기획관 최재혁

이 최고의 비서관으로 앉아 있으면서 ‘야, 입 닫어, 증거 없어’ 그래서 닫고 있다가 사진 나오면서 진술을 바꾸신 겁니다. 자꾸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지 마세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생각은 솔직히 못 했습니다. 중계차를 탄 조대익 PD하고 우리……

○이기현 위원 그래서 허위자료를 내셨어요? 그래서 허위자료를 내셨어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요, 그……

○이기현 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김건희 왔다 간 적 없다 이렇게 단언했어요, KTV에서. 진술이 바뀌어요, 9월, 사진 나오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요, 위원님……

○이기현 위원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KTV 원장님께서 그렇게 진술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 국정감사장입니다. 증인 선서하셨어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위원님, 위원님께서 질의서를 주시고 저희한테 답변을 계속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갖고 있는 베스트 정보를 갖고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안 준다고……

○이기현 위원 KTV는 용산의 지침에 따라서 모른 척한 겁니다. 증거 나오기 전까지는 딱 잡아떼라…… 딱 잡아떼신 거예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저는 KTV가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종대 원장도 갖고 최재혁 방송기획관은 비서관이 돼서 갖고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새로 온 원장님께서 이 문제 감당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침받아서 하신 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14명의 직원 다 증인 채택해서 그분들이 어떤 증언할지, 원장님 감당하실 수 있을지 잘 판단해 보십시오. 9일 남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제가 그 나머지 직원들한테 그것을 물어볼 생각은 못 했고, 저는 담당 PD하고 중계차에 탔던 팀장하고 두 사람한테만 물어본 것은 제가 더……

○이기현 위원 이 중요한 사건이 터져서 의원실에서 질의가 들어왔는데 원장이라는 분이 단 2명의 직원에게만 물어보고 서류는 안 뒤져 보고 이렇게 뻔뻔히, 서류 3개씩이나 있는데……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어떤 서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손에 든 것 지금 서류 아닙니까? 제출한 서류 아닙니까? 도대체 몇 번을 보여 드려야 돼요, 이 세 가지 서류?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자꾸 말이 화가 됩니다. 원장님, 원장님 때문에 직원들이 다쳐요. 그런 일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베스트 정보로 계속 답을 드렸던 겁니다.

○이기현 위원 베스트 정보가 직원 2명한테 물어보고 그걸로 끝낸 겁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위원님, 위원님 쪽에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기현 위원** 그러면 더 확인했어야지요. 여사가 왔냐고 물어보는데 그것을 그 행사에 있었던 14명 중에 단 2명에게 물어보고 답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기억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의원실에 뻔뻔하게 냅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요, 위원님, 그래서 그 후의 답변에는 저희가 참석하셨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걸 안 드린 게 아니지요.

○**이기현 위원** 사진 나온 다음이지요. 잘 기억해 보세요. 9월 10일까지 저희 방에서 처음 질의할 때 KTV에서 김건희 여사 안 왔다고 그랬어요. 사진 나온 다음에 바뀐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건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종합국정감사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김효재 이사장님, 지난 9월 10일 프레스센터 대관 신청이 있었는데, 온라인 신청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전국비상시국회의에서 대관 신청이 있었습니다. 9월 20일 날 언론진흥재단 19층에서 기자회견하겠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각계 인사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됐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승인을 취소하셨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처음에 실무자가 이 행사의 성격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승인했다가 취소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과거에도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행사의 경우는 승인을…… 승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안을 거절하거나 했던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 사례들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관료 11만 원 입금받으셨는데 왜 지금까지 반납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마 저희 실무자가 단체에다 반환을 할 테니까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알려 주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반납을 못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했을 때 정치적인 이유로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종감 전까지 그와 관련해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더구나 승인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는지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님, 2022년에 1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2022년 코리아 유니크 베뉴(Korea Unique Venue) 사업 개선 연구용역하셨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2021년에도 1억 1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코리아 유니크 베뉴 전문가 컨설팅 용역을 하셨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조계원 위원 코리아 유니크 베뉴 사업은 경쟁력 있는 이색 회의시설을 갖춘 업체, 회의시설들을 발탁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기획되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두 번의 용역은 그렇게 이색 회의시설을 갖춘 콘텐츠를 선정하는 기준과 지원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컨설팅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신 거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업에 보시면 50개 기관을 유니크 베뉴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공공기관 24곳이 선정돼요. 그리고 대기업들, 저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대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선정이 됩니다. 애초의 사업계획하고 용역을 발주한 내용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코리아 유니크 베뉴는 국제회의 장소 중에서, 통상적으로는 보통 인원수 관계도 있고 해서 호텔 연회장에서 많이 하는데 호텔 연회장이 아니고 그 정도 장소가 확보되면서 외국인들이 좀 매력을 느낄 만한 독특한 장소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코리아 유니크 베뉴로 선정하고 있고요.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스스로의 자본으로 투자해서 깔끔하게 정돈할 수 있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왜 공기업들이나 대기업을 위주로 선정을 하고, 실제로 여수 같은 경우에도 예울마루 같은 것 발굴해서 지원하면 훨씬 좋은 MICE로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선정이 안 되고 엉뚱한 데가 됐어요.

그리고 선정위원들 보면 HS애드, 이즈피애피 이런 데가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관광공사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들이더라고요.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심사위원이 될 수가 있지요, 그것도 관광공사에서 20억씩 수주해서 용역을 수행해가는 업체들인데?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아마 직접 용역 관계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HS 애드는 광고 전문가다 보니까 초청을 한 것 같고요. 이즈피애피는 국제회의 전문으로 하는 PCO 대행업체 하는 곳이라서, 아마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평가위원이 피평가 대상하고 용역 관계가 있을 때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공사하고 용역 관계도 조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평가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앞으로도 유니크 베뉴 사업을 계속할 건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지금 아마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조계원 위원 우리 한국의 이색적이고 대표적인 MICE 시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취지가 지금 무색해졌지 않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하고 민간을 딱 쪼개서 이렇게 선정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색이 있냐 없냐의 기준인데 만약에 지역의 민간시설이 조금 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섹터를 나누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유니크 배너를 선정한 거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조계원 위원** 홍보나 판촉이나 그리고 신규 책자 및 달력 이런 부분에까지 50선으로 선정해서, 홍보하는 이런 것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조계원 위원** 그렇다면 규모는 작더라도 어느 정도 이색적인 MICE를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충분히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홍보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냐 이 말입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그러니까 아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 취지가 독특성, 말 그대로 유니크하냐 때문에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공공하고 민간을 나누고 또 수도권하고 지역하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섹터별로 선정하는 방식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개선방안을 종감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취지는 아시겠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이은우 원장님, 다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논란 후에 KTV가 이런 입장을 언론에 밝혔어요.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 당일 김건희 여사가 격려차 들렀다, 맞습니까? 다시 정정해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까 하 원장님께서 초청을 하려는 시도가 있으셨다는 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김건희 여사를 특정 지어 가지고 하지는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요, 아까 증언 내용 중에 대통령 부부를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초청했는데, 오기를 오매불망했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또 그걸 중간에 왜곡하세요?

그러니까 논쟁이 된 이유는 여사를 위해서 기획된 건 아닌지 혹은 원장이 사전에 알았던 것인지가 중요했는데, 지금 이은우 원장께서는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당시 원장이었던 하종대 원장이 초청을 했다고 해서 진술 불일치가 생긴 상황인데 다시 정정하라는 기회를 드렸는데도 애매한 정정을 하시네요.

다른 거 여쭙볼게요.

2023년 4월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에 최재혁 방송기획관이 1호기 타고 동행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때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강유정 위원 알고 계시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있지는 않았지만.

○강유정 위원 이거 복잡한 질문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없었으니까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보통 취재기자가 가지요.

○강유정 위원 예, 보통 취재기자가 가지요. 그런데 여기에 관리자가 가는데, 아까 또 하종대 원장이 조금의 위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장이 가는 일은 없다고 했는데 원장이 가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속기록 보면 확인이 될 텐데, 그때 최재혁 비서관이 어떤 일 했는지 혹시 아세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가서서, 원래 간 목적은 KTV가 대통령 순방하시면 여러 가지 중계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점검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좀 정리해 놓은 내용을 여쭙겠습니다. 출장 내용을 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숙소 등 비공식적 방송 동선 조사 및 관리, 해외 방문 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방송 해프닝 사례 연구, 방문국의 접대 방식에 대한 사전 정보 입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일로,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영상촬영기자 혹은 취재기자와 같은 실무를 담당하시는데 이런 일을 하겠다고, 워낙 그 비싼 시절 하루 1000달러, 120만 원짜리 숙소에 머물면서 숙박비로 600만 원을 쓰는데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일을 꼭 가서 하셔야 되느냐 이거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것은 그 당시 원장님하고 두 사람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 지금 원장님의 판단을 묻는 겁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강유정 위원 제가 지금 원장님으로서 이런 것이 적절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가서 그런 시스템 점검하는 것은 저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밑의……

○강유정 위원 방송 해프닝 사례 연구 같은 거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그 밑에 있었던…… 그 위에도 또 몇 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메인이고 그것은 약간 서브로……

○강유정 위원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곁에서 눈도장도 찍고 개인 화보 수준의 영상을 아마 마음에 들게 만들어 주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좀 갖게 되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재혁 비서관은 이로 인해서 대통령실에 발탁이 되는 그런 영전의 기회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KTV 발전에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나 싶어서 객관적 지표를 좀 봤는데, 이것은 현재 사장과의 연결이 되니까 좀 보세요. 시청률이

어쨌나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유정 위원 이 두 분이 들어서고 나서 시청률이 어떻게 됐는지 좀 보여 드릴게요.

그나마 61위 이 정도 유지하고, 73위였는데 99위, 94위까지 죽죽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문화·교양 관련 콘텐츠들을 죄다 폐지하고 전부 다 정책 프로그램으로 대거 바뀌 버려요.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정책정보 이쪽이 58.3%였던 게 83.7%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문화·교양은 늘리지 않고 정책 일반만 높여서 시청률이 그렇게 나오지 않던 걸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KTV는 기본적으로 정책홍보방송이 메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책홍보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홍보방송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홍보 콘텐츠를 많이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나 사실은 대통령 현장행보 프로그램이 훨씬 많은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942일 동안 어느 정도였냐면 1억 뷰 정도가 나오는 929편이 만들어졌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건 유튜브입니다, KTV가 아니고 유튜브.

○강유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쇼츠를 포함해서.

‘유티크’라고 아시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강유정 위원 884일 동안, 942일보다 훨씬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1696편이나 만들어졌요. 지금 정책 위주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선 상당 부분 대통령 현장 행보에 대한 홍보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 없으신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위원님, 아까 그 시청률은 일반 우리 TV에서 나오는 채널의 시청률이고요.

○강유정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 넘어왔어요. 정책을 홍보한다고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홍보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요, 숫자로 봤을 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유정 위원 이 숫자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884일 동안 1696편을 쇼츠 포함해서 만들었다니까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다시 한번 숫자를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강유정 위원 ‘유티크’ 884일 동안 1696편을, 쇼츠 포함이에요, 쇼츠는 587건이나 돼요. 그리고 ‘문워크’라고 하는, 942일 동안 쇼츠 1건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대통령 부부를 홍보해 줬는데 그나마도 유튜브 총 조회수가 7600회밖에 안 돼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위원님, 쇼츠가 2022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강유정 위원 제 말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진짜 정책홍보라고 생각하시는지 부부홍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쭙봤잖아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기본적으로 윤니크도 대통령 행보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강유정 위원** 그게 정책과 무슨 상관이 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보면 정책의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KTV를 그냥 사유화해서 개인의 영전이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스펙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계속 높여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책하고 연결이 되나요? 개인홍보방송에 더 가까운 거지요. KTV가 사유화됐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고……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위원님, 대통령의 행보는 모든 정책의 방향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행보에서 다, 예를 들어 해외순방 메시지 그다음에 국무회의나 이런 것들이 다 행보에 속하는데 그 속에서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국정철학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강유정 위원** 자, 마지막 말은 옴부즈맨 프로그램 있나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강유정 위원**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있어요, KTV에?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없고 시청자 참여 프로는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램 없이 너무 대통령 부부 홍보에만 매몰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지금 원장이시잖아요, 그래도 조금의 변화 의지를 보여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김대진 총장님, 오늘 아침 오전 10시부터 한 12시간 이미 지났는데 한 말씀 하하셨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예,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석관동 한예종 캠퍼스 이전 문제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그 이전 결정권은 장관께서 갖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의 입장은 거기에 4개 원이 있지 않습니까? 4개 원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커리큘럼 자체가 교차수업, 융합수업으로 다 맞춰져 있는데 만약 2개의 원만 따로 빠져나간다면 커리큘럼 운영상 학교 철학에 큰 훼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4개 원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저희들의 입장인 것이고요. 21년도에 문체부에서 용역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 실습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공연실습……

○**김승수 위원** 총장님, 그걸 떠나서 석관동 캠퍼스가 왜 이전을 해야 됩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의릉 복원 사업으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통합 캠퍼스가 나온 것도 그런 이전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통합 캠퍼스 이전이……

○**김승수 위원** 여기 계시는 여야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의릉이 누구의

표인지 아는 국민들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의릉이 누구 묘입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정종……

○김승수 위원 정종 아니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아, 경종입니다.

○김승수 위원 예. 숙종과 영조 사이에 진짜 잠깐 조선 국왕을 했던 분이고 진짜 크게 우리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국왕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경종과 의릉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역사적인 의미보다 한예종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조선왕릉을 했기 때문에 경종의 무덤을 위해서 한예종이 이전해야 된다는 이런 난센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면. 그래 가지고 여러 번 문체부에도 그렇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 할 때도 보편은 제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 이런 것들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한예종이 중요하니까, 경종의 의릉이 중요하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 의릉 바로 옆에 있는 원이 전통예술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예술문화를 계속 계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통유산을 계승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승수 위원 한예종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전을 떠나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향유 기회 또 한예종의 역할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한예종에서 하는 역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가 가지고?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영재교육원 분원이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 쪽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합니다마는 경종의 의릉 때문에 지금 여러 개, 수도권에 고양 파주 많습디만, 유치하려고 난리 치는 데가. 이게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저는 단연코 경종보다는 한예종이 더 중요하고 더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아마 저희 구성원들이 굉장히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어쨌거나 이전하는 것을 떠나서 저는 그 이전 문제도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어필을 하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예종이 이전하는 그런 데 돈을 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면 지역에 지방에 한예종의 역량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농촌 지역 아니면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예술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해 가지고 제대로 키우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예종에서도 같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이은우 원장님 오시면 하겠습니다.

오늘 종일 논란이 됐던 8600만 원짜리 국악공연, 황제관람했다고 주목받고 있는 그 공연 송출 날짜하고 시청률 아세요? 한번도 안 살펴보셨어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방송은 11월 11일 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방은 12일 날……

○민형배 위원 11일, 12일 두 번 했는데 시청률이 얼마나 돼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시청률은 굉장히 잘 안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요.

○민형배 위원 0.001% 그다음에는 또 0.002%.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가지고 무슨 홍보를 엄청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셨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홍보를 하려고 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지요?

○민형배 위원 아니, 그게 부산엑스포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실패했어요, 그것은.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결론론적으로는 시청률이 안 나왔고, 보통은 그런 경우 편성을 많이 하는데 편성을 많이 안 한 것은 좀……

○민형배 위원 좋습니다. 저거 한번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정책방송원 KTV 직제 잘 알고 계시지요? 운영규정도 아시고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민형배 위원 여기에 행정직과 방송무대직 둘이 있는데 행정직은 덜 그러는데, 저기 한번 봐 보세요. 방송무대직이 한곳에서 계속 근무하잖아요. 관리자급 징계 현황입니다. 방송무대직 부장 3명 중 1명 직원 음주폭행 감봉 3개월, 방송무대직 팀장 11명 중 3명 성비위·횡령 등으로 감봉 2개월 내지 3개월.

저는 이런 조직 처음 봅니다. 관리자급에게 이렇게 징계가 많은 것도 처음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성비위예요, 술에 취해서 직원 때리고. 이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저도 직원 수가 적은 것에 비해 저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보고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셨지요? 그대로 두시면 안 되겠지요? 뭔가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 그런 비리가 있는데 비위가 있는데 승진을 다 했어요. 거기 제가 표시해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승진심사 순위 자료 좀 주십시오 했더니 안 주시대요, 개인정보라고. 원래 그거 김땡땡 이렇게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제보가 있어요. 승진심사 순위에서 8위 또는 2위 이런 분들이 1위를 제치고 승진했다, 사실입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것은 승진할 때 제가 있지 않아서……

○민형배 위원 지금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때 자료가 다 있을 텐데.

지금 무슨 말이 나오냐면 KTV에서는 성비위자들이 관리자 되기가 쉽다, 성비위 저질러야 팀장 시켜 준다…… 치욕적이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형배 위원 이런 말이 돌아요.

그러니까 징계 처분 보시면 성폭력으로는 감봉 2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방송 송출

지연은 감봉 3개월이에요.

자료 좀 띄워 보세요.

징계위원회 회의록 자료 요구했는데 이것도 안 주세요. 좀 주세요. 개인정보 가리고 주시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죄송합니다. 5급 이상 징계는 저희가 아니라 아마 본부에서 징계를……

○민형배 위원 그럴 겁니다. 그래도 다 통보해 주잖아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왜 이럴까? 한국정책방송은요 채용할 때 경력직만 채용을 해요. 제가 확인한 것만 6년 치 확인했는데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데도 경력직만 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방송사는 특성상 전문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국회 것 한번 봐 보실래요, 국회방송? 국회방송은 5년 것 봤는데 저렇게 신규채용이 있어요.

재미있는 것 봤어요, 제가. 10년간 한국정책방송에서 채용한 경력직 명단을 봤는데 대부분 그냥 그 자리에서 승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음알음으로 들어왔다가 거기서 정규직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좀 정상적이지 않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직이 상급자 힘이 막강해지고 직장 내 갑질이나 성비위 발생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고여 있는 물이 된다 이겁니다. 외부인력을 좀 채용해 줘야 이런 일이 덜 생기는 거지요.

채용구조 개편하셔야겠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맞는 말씀이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다른 방송사들이나 언론사들이 경력직 채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KTV처럼 완전히 자체 내부에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조직이 어떻게 되겠는지. 폐쇄적인 문화가 딱 형성이 되면서 꿈쩍 못하는 위계질서 속에서 윗사람이 세지고, 그렇게 되면 이런 부조리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다른 방송사들이나 국회방송이나 이런 데 비교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개선방안 마련해서 종감 전까지 저희 방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혁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계속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김효재 이사장님, 조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 하루 전날 취소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정치적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임오경 위원 21년 이후 프레스센터 대관 내역을 쭉 받아봤더니 이렇게 버젓이 행사명에서부터 정치인의 이름, 정쟁이 되는 사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행사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행사 내역 맞나요, 안 맞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요……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것은 이사장님이 보실 때 정치적 행사입니까,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건 정치적 행사지요.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정치적 행사로 보이십니까? 이게 다 했던 행사들입니다. 그런데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을 하루 전날 취소하셨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권한이 실무팀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나중에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니 우리가 대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서서 취소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내역을 제가 지금 보여 드렸잖아요. 대관했던 내역 중 정치행사 내역을 다 보여 줬는데 왜 갑작스럽게 비상시국회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임 위원님이 주신 저 내용이 실제로 저기에서 행사를 했던 내용들입니까?

○임오경 위원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제가 지금 처음 보는데요.

○임오경 위원 처음 보세요? 했던 내용 자료 받아서 제가 지금 여기다 띄운 겁니다, 이사장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참 제가 설명하는 게 힘듭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종감 때 말씀해 주실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21년 이후 프레스센터 대관 내역을 쭉 받아봤더니 이런 정치적 행사를 했던 내역들이 나오더라, 그런데 왜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 하루 전날 취소가 됐을까? 정치적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장님, 언론진흥재단이 아니라 언론탄압재단, 대통령심기관리재단으로 바뀌어버렸네요.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대통령 비판하는 행사들은 언론진흥재단이 먼저 나서서 막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입틀막이 아니고 뭐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오히려 보수단체들도 자유롭게 프레스센터 사용할 수 있었는데 언론진흥재단이 어찌다 이렇게 편향적인 어용집단이 된 겁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건 그렇게 보실 일이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자료를 받은 것을 다 보여 드리면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사장님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장님, 종감 전까지 이 행사 취소 배경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대관 기준 투명화, 공정화 방안을 마련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언론재단 경영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재단의 직원들에게는 허리띠 졸라매라고 해 놓고 미디어본부장 등은 방만하게 쓰고 다녔습니다.

이사장님, 언론진흥재단 예산운영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및 회의비는 시행 전 사전품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사전품의서 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출된 계획품의서를 보면 모두 제출일자가 결제 이후인 매달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후품의서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건 아마 모든 이런 정부기관들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실수하신 겁니다.

남정호 미디어본부장,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도 어겨 가면서 뭘 그렇게 썼는지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내역 한번 보시지요.

진짜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 5월에는 업무현황 간담회를 하면서 3일 연속 스테이크집에서 총 87만 원을 결제했고, 2월에는 저녁 한 끼에 1인당 최소 10만 원인 용산의 일식당에서 33만 원어치 결제하고 직원 12명이랑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ARS 결제 대행서비스 11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직원들 6명이랑 썼답니다.

남 본부장, 이진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나와 계시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미디어본부장 남정호** 제가 정확한 것은 여기서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아마 제가 처음 미디어본부장으로 취임을 해서 산하에 있는 직원들을 다 불러 가지고 저희 재단에서 가까운 음식점에서 각 팀별로 회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RS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외국에, 필리핀에 출장갔을 때 썼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임오경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내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필리핀 얘기가 나옵니다…… 국내 스테이크집에서 총 87만 원을 결제했고 한 끼 식사에 용산 일식당에서 33만 원어치 결제했다라고 그리고 12명이 먹었다라고, 지금 국내 얘기를 하는데 무슨 필리핀 가서 출장에서 썼다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미디어본부장 남정호** 그 음식점은 제가 아마 저희 직원들과 먹었던 것으로……

○**임오경 위원** 직원들이랑 사용하셨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미디어본부장 남정호** 예.



○임오경 위원 이 밖에도 참치집, 와인바 등 업무추진비 집행하고 업무현안 간담회를 했다고 제출했습니다. 우리 언론재단은 와인 마시면서 정책간담회 하십니까? 참 호화로운 정책간담회 하십니까. 와인 마시면서 정책간담회 하십니까? 와인집에서 정책간담회 한다고 적혀 있는데, 참 부럽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영수증상의 식당이나 호텔 홈페이지만 가도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한데 직원들 10명 이상 함께 가서 먹었다고, 국회에 이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겁니까? 직원들 다 가서 전체 회식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의 허위사실 유포하실 겁니까? 그냥 개인으로 썼다라고 말씀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미디어본부장 남정호 제가 개인적으로……

○임오경 위원 괜히 직원들 끼워 들이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겁니다.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직원들하고 식사하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결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건 직원들하고 회식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김용섭 문체부 미디어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임오경 위원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의 규정에 대한 임원 업추비 집행 과정과 내역에 대해 특정감사하셔서 부적정하게 집행된 업추비에 대해 환수하시고 관련자 징계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지금 제 말씀 들으면서 필요하다고 못 느끼셨습니까? 못 느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하십시오, 꼭.

관광공사 직무대행님에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우리가 식당 단골집을 가게 되면 서비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서비스가 좋으니까 우리가 단골집을 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임오경 위원 지난해 우리 국민 696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 관광객의 27.6%에 해당하며 1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에서 직접 발표한 겁니다, 이것은. 알고 계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임오경 위원 이 정도면 단골 고객인데 제대로 대우 받아야겠지요,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최근 일본항공 JAL에서 자국의 소도시 여행을 장려하겠다고. 알고 계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임오경 위원 그래서 국제선 왕복 항공편을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본 내 국내선 왕복 항공편을 무료로 제공하는 특별 혜택을 13개국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임오경 위원 여기 13개국에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왜 안 되어 있을까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굳이 이유를 찾자면 지방으로 떠나는 한국하고 연결 노선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 항공사가 조금 현명하지 못한 마케팅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일본 단골 고객이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이것을 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단골 고객이 안 들어가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까지 가서 오프라이스 드시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보도 해주시고, 사도 광산은 유네스코 등재까지 됐습니다. 지난 9월까지 총 12회의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어요. 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임오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뭐 하고 계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일본 민간항공사에서 마케팅을 한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교섭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직무대행님께 질의할 게 아니라 장관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나오셨으니까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체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님,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대통령의 행보를 보게 되면 우리는 단골 여행 고객으로서 마땅히 영순위로 일본에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팽 당했어요. 문체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이웃 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해 가면서 일본 나라를 칭하고 일본 국민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인데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정책국장님은 부끄럽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기 나와 계시는 모든 기관장님들 그리고 우리 문체부 공무원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단골집을 가는 이유는 그만큼 단골집에 가면 서비스를 받습니다. 대우가 달라 집니다. 우리 관광객이 일본의 가장 많은 관광객, 1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팽 당하고 이렇게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큰소리 한번 안 칩니다.

이게 문체부가 하고 있는 행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종감 때 제가 장관님께 질의할 겁니다, 다시 한번. 관광정책국장님도 준비하셔서 장관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종감 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5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1개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 및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 사업에서 탈락한 사실에 대한 지적과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방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포털 서비스 부실 운영과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그랜드코리아레저에는 특정 경품업체와 비싼 가격으로 수익계약 등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KTV 무관중 국악공연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의 겸직금지와 이해충돌 규정 위반 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가짜뉴스 피해 신고 상담센터 실적 저조에 따른 조기 폐지 문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발간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사행산업별 국내 구매한도 준수를 위한 실명 시스템 마련, 청소년 도박 증가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과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인력·예산 확대 필요성, 한국예술종합학교 석박사 학위 인정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질의도 있었습니다.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오늘 피감기관 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고 대안 등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민형배 위원님, 정연욱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0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김승수 위원님께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배포하셨습니다. 자료집을 내 주신 김승수 위원님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해당 기관들은 자료집 내용을 잘 살펴 주시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기관장 등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 및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15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16인)

강유정 김승수 김윤덕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신동욱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전재수 정연욱 조계원 진종오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 전완희  
입법심의관 김충섭

○피감사기관 참석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심오택  
사무처장 이진식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대진  
사무국장 권수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이은우  
방송기획관 이성구  
방송보도부 조대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세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경영본부장 유병철  
미디어본부장 남정호  
미디어센터장 김선호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김태정  
경영본부장 김중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준희  
사무처장 김일희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리 서영충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 김영산

경영본부장 김현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신미경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사무총장 김윤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신은향

소통정책관 김도형

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체육국장 이정우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출석 증인

이재진(인터넷신문윤리위원장)

정진섭(GKL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최지우(변호사, 전)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하종대(전)한국정책방송원 원장)

○출석 참고인

김규섭(건진사이다 유튜브채널 대표)

전대식(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조호연(도박없는학교 교장)